

T&I REVIEW

2026 Vol. 16(1)

장보윤 · 허지운

전문 통역에 대한 통역사와 대중의 인식 연구
- 쿠팡 청문회 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

배문정 · 윤나비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해당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중심으로 -

김자경

AI 기반 웹소설 번역과 인간의 역할 고찰
-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이지민 · 마승혜

탈식민적 성취인가, 상업적 자국화인가
- *Human Acts*의 선택적 이국화에 투영된 자국화 번역 전략 -

Yanfei Zhao and Huijuan Ma

From Canon to Code: Rethinking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in the Age of AI

Changyu Guo and Ruichen Zhou

Revisiting Eco-Translatology: An Exploration of "Dynamic Priority" with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in Translation



T&I REVIEW

| 2026 Vol. 16(1) |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T&I REVIEW

| 2026 Vol. 16(1) |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T&I REVIEW

2026 Vol.16(1)

T&I REVIEW

2026 Vol.16(1)

Publisher

Aili Chang (Director, ERITS)

Editor-in-Chief

Jieun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Editorial Board

Akiko Sakamoto (Kansai University, Japan),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Kay Fan Andrew Cheu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Weiwei Wang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Aili Chang (GSTI, Ewha Womans University), Dohun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nsil Cho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nsim Kwak (Kyonggi University), Gyung 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Jieun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imin Lee (Keimyung University), Jinkook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isun Shin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oonhyung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Jiun Huh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unho Lee (Chungang University), Juriae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Moonson Choi (GSTI, Ewha Womans University), Nayoung Je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Raean Lee (GSTI, Jeju National University), Seung hye Mah (Dongguk University), Silhee Jin (GSIS, Chung-Ang University), Soo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발행인

장애리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장

편집장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편집위원

해외:

아키코 사카모토 (일본 간사이대), 에바 응 (홍콩대), 케이 판 앤드류 청 (홍콩 폴리텍대), 루드밀라 스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웨이웨이 왕 (중국 광둥외대)

국내:

교내: 신지선, 이지은, 이주리에,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교외: 곽은심 (경기대) 김도훈 (부산외대) 김순영 (동국대학교) 마승혜 (동국대) 이예안 (제주대)

이준호 (중앙대) 이지민 (계명대) 정나영 (국립공주대) 조준형 (경상국립대) 주진국 (충남대)

진실희 (중앙대) 최경희 (평택대) 최은실 (부산외대) 홍정민 (동국대)

Contents (차례)

1. 장보윤·허지운	7
전문 통역에 대한 통역사와 대중의 인식 연구	
- 쿠팡 청문회 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	
2. 배문정·윤나비	47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해당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중심으로 -	
3. 김자경	75
AI 기반 웹소설 번역과 인간의 역할 고찰	
-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4. 이지민·마승혜	101
탈식민적 성취인가, 상업적 자국화인가	
- <i>Human Acts</i> 의 선택적 이국화에 투영된 자국화 번역 전략 -	
5. Yanfei Zhao and Huijuan Ma	121
From Canon to Code: Rethinking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in the Age of AI	

6. Changyu Guo and Ruichen Zhou	149
Revisiting Eco-Translatology: An Exploration of “Dynamic Priority” with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in Translation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175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181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190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195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201
참고문헌 작성 양식	204
Guidelines for Contributors	211
Referencing Style	213

전문 통역에 대한 통역사와 대중의 인식 연구 - 쿠팡 청문회 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

장보윤* · 허지운**

Boyoon Jang and Jiun Huh (2026). A study of interpreters' and public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the Coupang hearing. This study examines the respective perception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mong interpreters and the general public, focusing on the interpreting performed during the 2025 National Assembly hearing on the corporation Coupang. It aims to explore both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between the two perceptions. Public perceptions were examined through keyword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of comments posted on YouTube videos related to the Coupang hearing. Interpreters' perceptions were explored through interviews with six interpreters from diverse professional backgrounds. The findings revealed both shared and differing views between the public and interpreters regar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quality, interpreters' impartiality and ethics, respect for professionalism, and politicians' English proficiency. Notably, interpreters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clear protocols for the use of interpreting in public communication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interpreting in these context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Interpreting in national assembly hearings, public perceptions, guidelines for interpreting users, professional interpreting, interpreter impartiality

주제어: 청문회 통역, 대중시각, 통역 사용자 가이드라인, 전문통역, 통역사 중립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신저자

1. 서론

글로벌화와 교역 확대에 힘입어 기업의 활동 반경은 국경을 넘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 교역을 넘어 해외 지사 설립이나 해외 증시 상장 등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역시 여전히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기업일지라도 국회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한 청문회, 2024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 2025년 12월에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외국인 대표들이 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의 질의 및 증인 발언에 대한 통역이 제공되었다(이성현 2026).

외국인 증인 및 참고인이 청문회에 등장하면 청문회 현장의 의사소통, 기록,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역이 제공된다. 청문회가 생방송 또는 유튜브 생중계되는 경우, 통역도 함께 실시간 중계된다. 외국인 증인이 출석했던 그간의 청문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동시통역, 순차통역, 또는 위스퍼링 모드가 활용되었다.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으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국제회의통역사 4명이 투입되어 동시통역이 진행되었으나, 당초 출석을 요구한 영국 본사 경영진이 대거 불참하여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통역이 제공되었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되었다(이대호 2016). 2024년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는 애플코리아 대표의 발언 및 의원의 질의가 모두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OBS뉴스 2024).

금번 쿠팡 청문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도 개최되었다. 12월 2일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측 통역사가 CISO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각각 순차통역과 위스퍼링 통역을 진행하였다(NATV국회방송 2025). 12월 17일 청문회에서는 쿠팡측 통역사 두 명이 각각 CEO와 CISO를 전담 통역하였고, 증인의 답변은 순차통역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 및 질의는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하였다(NATV국회방송 2025). 2025년 12월 30일과 31일 청문회에서는 국회 측의 동시통역과 쿠팡 측의 순차 및 위스퍼링 통역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쪽 통역을 사용할지를 두고 청문회 초반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민경하 2025b; 이성현 2026).

외국인 증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통역을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언론은 이를 두고 외국인 경영진을 내세우고 순차통역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질문의 핵심을 흐리는 ‘꼼수’ 전략을 취했다며 비판하였다(김

효정 2025; 양형욱 2025; 이제항 2025). 더 나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역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방패 삼아 질문의 본질을 회색하고 답변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불통’을 선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박용후 2025).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일부 의원은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통역을 듣지 않고 질의를 바로 이어 나가다가 위원장이 직접 통역 재개를 요구하기도 하였고(이성현 2026; 홍수현 2025), 국회 청문회에서 AI 번역기를 쓰겠다며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민경하 2025a; 이제항 2025). 언론뿐 아니라 현장의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했다며 불만이 상당하였고, 국민도 “시간 낭비”라거나 “영어 듣기 평가 같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제항 2025; 홍수현 2025). 한편, 본 청문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는 쇼츠로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시청자의 댓글을 통해 쿠팡과 통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증인, 그리고 청문회 통역 사용 상황을 향해 언론과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기사에서는 통역 진행 방식과 전문 통역사들의 시각을 담았다(이성현 2026). 해당 기사에서는 외국인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회의 통역 운영이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특히, 청문회 당시 윤색했다며 통역사를 질타한 계기가 되었던 문장, “one of the lowest rate(낮은 편에 속한다)”의 통역도 윤색이 아니라 정확한 통역이었다는 통역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고, 이와 더불어 요약·선별 통역 요구나 통역사 중립성 인정에 관한 전문 통역사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이성현 2026). 한국통번역사협회(2026)도 이 사건에 대하여 통역사의 중립성, 윤리 및 청문회 통역 운영의 개선에 관한 주장을 공식 SNS 채널(@kati_official_korea)을 통해 밝힌 가운데, 청문회 통역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일반 언론, 의원, 대중 간 인식차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언론과 SNS를 통해 각자의 입장만 확대 재생산되며 일반 대중 및 의원들과 통역 전문가들 간 전문 통역에 대한 인식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과 현직 전문 통역사의 통역에 관한 인식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비롯한 공적인 소통 현장의 전문 통역 운영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역사에 대한 대중 인식

통역사에 대한 인식은 크게 외부 대중의 시선인 사회적 인식과 이와 대비되는 통역사 스스로의 자기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허지운 2020; Zheng and Xiang 2018). 외부 대중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통역 또는 통역사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및 실제 통역 사용자 대상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강지혜 2010; 허지운 2016; 박소영 2020; 배소연 2026; Huh 2021).

선행연구들이 언론 보도에 주목한 것은 언론 보도가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주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미선과 최진봉 2016: 55-56). 언론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백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선행 경험을 구조화된 집합체로 내면화하여 세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과 대상을 해석하기 때문이다(Tannen 1993: 21). 즉, 언론의 프레임은 수용자에게 통역사에 관한 선행 경험으로 기능하여, 사람들이 실제 통역사를 접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작용한다(강지혜 2010).

국내 언론의 통역사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프레임의 양상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강지혜(2010)는 2009년 한 해 동안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통역과 관련해 네 종류의 프레임, 즉 정상회담 소통 등의 내용을 다루는 ‘소통 프레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수익창출 프레임’, 통역사의 ‘직업 프레임’, 그리고 ‘다문화지원 프레임’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을 확대하여 2000년부터 2016년 사이를 분석한 허지운(2016)에 따르면, 언론에서 ‘동시통역’이나 ‘동시통역사’라는 용어를 연예인의 외국어 실력을 과시하거나 외모 및 화려한 배경을 부각하는 데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어, 통역사의 전문성 인식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박소영(2020)은 1948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통역사 관련 보도 826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통역사는 고소득 엘리트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과 밀착되었던 남성 중심의 직업에서 여성 중심의 직업으로 젠더 전환이 이루어졌고 군부대 통역과 관련한 통역사를 향한 부

정적 프레임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직업의 여성화 및 미디어 노출 증가와 맞물려 통역사의 외모가 과도하게 부각되거나, 방송 직군과 결합한 ‘엔터프리터(enterpreter)’로 소비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 아울러 동시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신비감과 경외감으로 인해, 실제 통역의 수행 유형과 무관하게 외국어 능력자를 동시통역사로 등치시키는 등 통역 업무 본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혼란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박소영 2020).

다만,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시각을 전하는 틀이라는 한계가 있다. 언론이 구축한 프레임은 대중의 인식 형성에 기여하지만, 실제 수용자 및 대중의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고찰이 요구된다. 허지운(2020)은 진로 결정 시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외부 대중은 통역사를 높은 학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문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용 안정성과 미래 전망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혼재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Huh 2021)는 실제 회의 통역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수요자 109명을 대상으로 통역사 고용 시 중시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제 사용자들은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 전문 용어 구사력 등 ‘통역의 품질’과 ‘특정 분야의 통역 경험’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통역사의 외모에 주목하거나 이들이 통역사가 아닌 출연진으로 방송에 나오는 ‘엔터프리터(enterpreter)’ 현상이 새로운 트렌드로 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박소영 2020), 실제 현장의 수요자들은 통역사의 외모나 대중적 인지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통역사의 이미지와 실제 통역 시장이 중점을 두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Huh 2021).

배소연(2026)은 이러한 인식을 확장하여 통역사의 ‘자기 직업이미지’, ‘외부인의 실제 직업이미지’, 통역사가 예측하는 ‘지각된 외부 직업이미지’의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역사들은 외부 대중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적으로 오해하여 불안감을 느끼지만 정작 실제 외부인들은 통역사를 이상적인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집단 간에 심각한 구조적 인식 불일치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중심이 전통적인 언론 보도에서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로 이동함에 따라, 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는 언론 기사나 설문조사를 넘어 온라인상의 의견 분석을 통해 다각화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댓글은 능동적인 수용자들이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므로, 대중의 살아있는 인식과 담론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비정형 데이터이다.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도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대중의 인식을 고찰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상미(2020)는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화제를 모은 사론 최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LDA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용자들은 통역사의 뛰어난 전달력과 이해력을 극찬하면서도, 동시에 통역사의 외모, 나이, 표정 등 외형적인 모습이나 단순한 어학 실력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디어 속 통역사가 여전히 피상적인 이미지 위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상미(2023)는 연구 범위를 넓혀 유튜브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상에서 통역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며 일반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직업적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대중이 동시통역사를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망하는 한편, 다양한 통역 하위 직종들을 ‘통역사’라는 단일 명칭 아래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화통역사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제도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구체적인 직업적 역할에 대한 온라인 담론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고도의 인지적 훈련이 요구되는 동시통역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자격 요건이나 역할 경계에 대한 명확한 담론이 부재하였다.

나아가 장애리(2025)는 사론 최의 통역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3,762건의 댓글을 키워드 빈도, LDA 토픽모델링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질적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중이 직접 작성한 댓글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대중이 인간 통역사를 단순한 기계적 의미 변환기가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 뉘앙스, 문화적 맥락 및 비언어적 요소까지 섬세하게 전달하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간 통역사만의 고유한 강점과 핵심 역량인 통역 언어 능력, 이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도출해 내었다.

2.2. 통역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은 국제회의의 통역사의 직업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인식, 비즈니스 통역 현장에서 문화 중재자로서 자신

의 위치와 권한을 규정하는 ‘역할 인식’(안희연 2021), 조직 내 요인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본 ‘자기지위’(임세인 2018), 사회적 평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직업정체성’(배소연 2026), 그리고 고용 형태나 근무 환경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바탕을 둔 ‘직업만족도’(이지은 2017) 등 다양한 분류로 다루어져 왔다.

전통적으로 통역사의 역할은 초기 통역 정의에서 시사하듯, 원 발화를 등가의 목표언어 발화로 전달하는 투명한 도관에 비유되었다(Reddy 1979; Roy 1993; Wadensjö 1998). 그만큼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물론,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투명한 도관 수준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등장하였다(Davidson 2000; Angelelli 2004). 커뮤니티 통역에서는 중립성 상실로 인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으며(Flores et al. 2012; Lee et al. 2016; Hale et al. 2019; Lee and Huh 2021), 일부 비즈니스 통역의 경우 국제회의 통역과 달리 통역사 중립성에 대한 시각차도 제시된 바 있다(최진철 2013; 안희연 2021). 안희연(2021)은 비즈니스 통역사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보다 숙련된 소통 전문가로서 능동적인 문화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역할 유형을 게이트 키핑, 상호 작용 중 조율, 협상 대상자 발화 해석, 사용자 발화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만, 비즈니스 통역은 거래 성사라는 비즈니스 목적 달성과 다양한 중재가 필요한 비즈니스 협상에서 진행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통역 상황에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영민 2004: 75; Takimoto 2008). 더 나아가, 비즈니스 통역의 경우에도 “페어 플레이”에 기초한 통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협상 대상자의 신뢰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역에 있어 기본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이다(안희연 2021). AIIC와 AUSIT의 윤리 현장에 명시되어 있듯, 전문 통역사는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윤리적인 통역을 수행하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여전한 통념이다(AUSIT 2012; AIIC 2026). 전문 통역사들이 동시 또는 순차 통역에서 개입하는 경우도 소통 촉진을 위한 행위인 중보 요소 생략, 문장 구조 바꿔말하기, 상황에 따라 체면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언어 완화, 용어·일화·속담·문화적 지시어에 관한 부연설명, 발화자의 명백한 실수 교정에 국한되며, 이는 중립성을 잃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Gurianova 2010). 이와 같은 인식과 접근은 AIIC 통역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AIIC 통역사들은 용어, 문법, 스타일상의 정확성, 유창성, 원문 의미 유지 및 논리적 결속성을 중시하였으며, 대다수가 자신의 역할을 소통 촉

진자나 연결고리, 중재자 등 소통의 조력자에 국한하여 인식하였다(Zwischenberger 2009; Pöchhacker and Zwischenberger 2010/2015).

전술한 통역사의 엄격한 역할론은 전문 통역사들의 직업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소속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자신의 직업이 갖는 권력 및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통역 행위가 메시지를 언어적으로 중재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에 근거한다(Dam and Zethsen 2013). 해당 연구에서 통역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자기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역 사용자 및 고객의 통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물론, 통역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자기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또한 통역 수행 현장에서의 사용자 태도 및 인식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am and Zethsen 2013).

이러한 외부 인식의 영향력이 객관적 현실보다 통역사 집단 내부에서 구성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배소연(2026)은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통역사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통역사는 고도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취약성이 혼재된 이중적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성’이 외부의 실제 무관심이나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집단 내부에서 생성되고 강화된 ‘심리적 현실’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반면 통역사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내외부 인식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도 있다. 임세인(2018)의 연구에서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직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조직 내 직업지위는 자기 자신의 평가보다 사용자의 인식과 시선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번역 전담 부서의 독립 여부나 조직 내 호칭(전문성을 인정받는 ‘통번역사’ 대신 ‘에디터’나 ‘OO씨’로 불리는 경우)과 같은 조직적 요인이 통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결정권자나 사용자의 ‘언어 유창성(외국어 구사력)’에 따라서도 스스로의 직업지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느꼈다. 가령, 사용자의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통번역사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알아보고 의존도가 높아져 대우가 좋아지는 반면, 사용자의 외국어 구사력이 낮을 경우에는 통번역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번역사가 구사하는

전문적인 표현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통번역사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임세인 2018).

이지은(2017)은 140명의 전문 통역사(프리랜서 56명, 인하우스 84명)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 및 직무 환경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요인으로는 성차별 없는 환경, 직업 유지 의사, 업무에 대한 흥미,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꼽혔다. 반면, 부정 요인으로는 낮은 직업 안정성과 비관적인 미래 전망, 제한적인 승진 기회 및 보수 등 외적 보상과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고용 형태별로 프리랜서(평균 3.40)가 인하우스(평균 3.13)보다 직업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통역사의 직업만족도는 내적 자부심 못지 않게 외부적인 직무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통역사에 대한 외부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통역사 집단 내부의 자기 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 대중은 대중매체를 통해 통역사를 고도의 전문직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같은 피상적 이미지에 주목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인다. 반면 통역사 집단은 스스로를 단순한 기계적 언어 변환기를 넘어 소통을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문화 중재자로서 강한 직업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역 현장에서 이들의 직업 정체성은 사용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조직 내 부여되는 호칭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통역사를 둘러싼 인식의 구조가 단일하지 않으며, 외부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통역사 집단의 자기 인식 사이에는 지속적인 차이가 존재해왔으며 인식 간극의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 청문회 통역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매개로 한 일반 대중과 현직 전문 통역사 집단의 인식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인 소통 현장에서의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 유튜브 영상의 댓글 조사를 통해 일반 시청자의 청문회 통역을 둘러싼 인식을 분석하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 현직 통역사의 인식에 대해

여 분석함으로써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 통역사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3.1. 유튜브 영상 댓글 분석

3.1.1. 분석 도구와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쿠팡 청문회 통역 관련 영상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1월 14일, 유튜브에서 ‘쿠팡’, ‘청문회’, ‘통역사’ 키워드로 검색 가능한 롱폼 및 쇼츠 영상을 최대한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상은 청문회 현장 생중계, 현장 클립, 뉴스 보도, 방송사 토론 중심이었다. 이 중 댓글과 대댓글 합계가 10개 미만으로 답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영상을 제외하고 총 54개의 영상을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이후 해당 영상들의 댓글을 크롤링(crawling)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롤링, 전처리, 키워드 분석, LDA 분석을 위한 파이썬 코딩 작업에 AI 코딩 도구인 커서(Cursor)를 이용하였다. 크롤링은 셀레니움(Seleniu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의 기본 단위인 댓글을 의미하는 ‘문서(document)’ 기준, 크롤링 된 원본 문서는 11,011개였다.¹⁾

3.1.2. 데이터 전처리

이후 파이썬 환경에서 규칙 기반 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반복문자 정규화, 이모지/특수문자/문장부호 제거, 감탄사 단독 댓글 제거, 슬랭/약어/불용어 제거, 고유명사의 접사 정규화 등을 수행하였다. 품사별 빈도 확인 단계에서는 형태소 분석기(kiwipiepy 또는 KoNLPy의 Okt)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 남은 문서는 총 10,897개였다.

3.1.3. 키워드 분석

데이터 전처리 후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위 키워드 분석은 댓글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와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에 대하여 핵심 키워드를 비롯하여 동사와 형용사 등 품사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은 카운터(Counter), 형태소 처리는 KoNLPy(일부 단계는

1) 크롤링 대상에서 댓글에 대한 대댓글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대댓글은 댓글에 대한 상호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 영상에 대한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권상미 2020: 9).

Kiw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3.1.4. LDA 토픽 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주제를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최원준 외 2018), 국내 통번역 연구에서는 권상미(2020, 2023, 2024)와 장애리(2025)가 유튜브 댓글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문회 유튜브 영상의 댓글 데이터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전체 문서 기반의 말뭉치에 대하여 주제별로 분류하는 LDA 토픽 모델링을 1단계로 실시하였다. 1단계 결과가 통역 외의 정치 주제로 다소 분산됨에 따라 2단계에서는 ‘통역’, ‘통역사’, ‘영어’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만 추려 통역 하위 집합 말뭉치를 만들고 2단계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명사 기반 문서 표현을 사용하여, 추출된 명사가 없거나 1개인 댓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후 1단계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8,346개의 문서를 사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키워드, ‘통역’, ‘통역사’, ‘영어’가 포함된 문서를 추려 총 1,399개의 문서를 분석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는 젠심(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주제 개수인 K값을 찾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픽 일관성 지표인 c_v coherence를 활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여러 K값을 대입해가며 최적의 K값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1단계에서는 K=6, 2단계에서는 K=5로 최종 설정하여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pyLDAvis를 이용해 토픽간 거리지도를 생성하여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한편, 2단계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주제별로 대표적 댓글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댓글에 할당된 해당 토픽 비율이 80% 이상인 댓글 1,054개의 문서를 선별한 후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세부 주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²⁾

2) 하나의 댓글 안에는 다양한 토픽이 공존할 수 있으며, LDA 분석에서는 각 댓글이 각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가 계산된다. 숫자가 클수록 해당 댓글이 다른 토픽보다 특정 토픽 하나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댓글이 토픽 1에 80%, 토픽 2에 10%, 토픽 3에 5%, 토픽 4에 3%, 토픽 5에 2%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댓글은 토픽 1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댓글로 해석할 수 있다.

3.2. 인터뷰 조사

3.2.1. 인터뷰 참여자

쿠팡 청문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통역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통역사의 입장과 의견은 고용 형태와 경력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총 6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섭외하였다. 프리랜서와 인하우스로 일하고 있는 통역사 중 5년 이하의 저년차, 약 7~8년 경력의 중년차, 15년 이상의 시니어 통역사를 각각 한 명씩 섭외하였다. 인하우스 시니어 통역사의 경우, 인하우스로 1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재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하우스 통역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통역사를 섭외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통역과 같은 한국어-영어 통역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고용 형태와 경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개요

	고용 형태	실무 경력
참여자 1	현재 프리랜서	23 년 (인하우스 약 15 년)
참여자 2	프리랜서	4 년
참여자 3	프리랜서	22 년
참여자 4	인하우스	3 년
참여자 5	프리랜서	8 년
참여자 6	인하우스	7 년

3.2.2. 데이터 수집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한 후 202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집 이후 참여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 관한 유튜브 영상 시청 및 해당 사안에 관한 뉴스 파악 등 사전 배경지식을 갖추고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연구자들이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후 반구조화 방식으로 인터뷰 질문을 제시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받았다. 인터뷰 진행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 1만 대면으로 참여하였으며 나

머지 참여자는 줌과 구글미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 및 전사된 후 분석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핵심 질문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참여자의 발화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꼬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질문 유형은 LDA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 대중의 댓글에 대한 통역사들의 반응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정량 데이터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과 통역사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LDA 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를 기준으로 인터뷰 데이터를 1차적으로 수집·분류하였으며, 이후 각 핵심 주제별로 인터뷰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브라운과 클라크(Braun and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 정독, 예비 코딩, 잠재적 주제 탐색, 주제 검토, 주제 도출, 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우선 전사된 인터뷰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LD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문장과 핵심 발언을 식별하여 해당 범주에 매핑하였다. 이후 범주를 조정하고 하위주제를 탐색하면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원시 자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키워드 및 토픽모델링

4.1.1. 키워드 분석 결과

전체적인 키워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쿠팡 청문회 및 통역에 관한 영상의 댓글이었던 만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쿠팡’이었다. 또한 ‘통역’과 ‘통역사’가 각각 422회와 370회로 7, 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두 키워드를 합하면

792회로 3위에 해당하며, 통역이 언어에 관련된 것인 만큼 ‘영어’ 키워드와 합하면 총 1,402회로 통역과 언어에 관한 키워드군의 빈도 순위는 일반 시청자들의 통역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그런데, 쿠광이나 통역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관한 키워드였다. 질의 과정에서 영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이준석’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국회의원’, ‘국회’, ‘민주당’ 등 정치권 키워드군의 총 빈도는 2,658회로 통역 키워드군의 두 배에 가깝다. 쿠광이 미국 기업인만큼 국가 관련 키워드도 상당하여, ‘한국’, ‘대한민국’, ‘나라’ 등 국가 키워드군은 총 1,097회를 기록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였음에도 정작 ‘개인정보’ 키워드 빈도는 169회로 19위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상위 20대 키워드는 분석대상 영상의 댓글이 통역뿐 아니라 정치와 국가에 관한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상위 20대 키워드 순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쿠광	1,956	11	국회	318
2	이준석	1,049	12	나라	318
3	영어	611	13	미국	237
4	최민희	580	14	민주당	229
5	국회의원	482	15	수준	222
6	한국	429	16	정부	191
7	통역	422	17	김범석	178
8	통역사	370	18	없다	170
9	대한민국	350	19	개인정보	169
10	청문회	343	20	알리	135

정치권, 통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한 만큼,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순위도 긍정과 부정 등 감정 평가 담론을 담은 어휘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표 3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키워드를 기초로 한 긍정/부정 평가 담론 키워드 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3. 상위 긍정·부정 담론 중심 10대 키워드 순위

순위	긍정 담론		부정 담론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잘한다	66	부끄럽다	79
2	응원합니다	55	창피하다	64
3	대단하다	26	쪽팔린다	49
4	멋지다	19	한심하다	30
5	감사합니다	16	싫다	22
6	좋다	12	망신이다	13
7	멋있다	15	무식하다	12
8	최고다	11	문제다	11
9	잘했다	8	짜증난다	11
10	좋습니다	4	탈퇴했다	11

긍정 담론의 경우, 쿠광이나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맥락이 대부분 이었고, 부정 담론은 ‘탈퇴했다’ 키워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문회 현장의 국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담론들로 추정된다. 이는 긍정/부정 담론 모두 통역이나 통역 사보다는 정치인 지지 또는 비판 맥락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는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유튜브 댓글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4.1.2.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은 전체 말뭉치 분석과 통역 중심 말뭉치 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4.1.2.1. 전체 데이터 분석

1단계로 전체 말뭉치에 대하여 K=6으로 설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6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표 4. 1단계 전체 말뭉치 LDA 분석

번호	주제	상위 10 대 키워드(가중치/확률값)	문서수
1	쿠광 유출 사건 관련 기업 및 국가 논쟁	쿠광(0.137), 기업(0.045), 정보(0.028), 국민(0.024), 미국(0.022), 개인(0.021), 한국(0.018), 정부(0.015), 탈퇴(0.015), 중국(0.015)	1,688
2	정치인 비판 및 평가	사퇴(0.040), 미국(0.032), 생각(0.030), 정치(0.027), 한국(0.026), 민회(0.025), 수사(0.020), 여자(0.019), 대답(0.016), 얼굴(0.015)	818
3	청문회 통역 수행 및 운영 문제	통역(0.104), 통역사(0.079), 쿠광(0.045), 누구(0.019), 직원(0.018), 문제(0.018), 상대(0.015), 시간(0.012), 사용(0.012), 정치(0.011)	1,468
4	정치인 발언 및 정치적 자질 논쟁	최민희(0.133), 영어(0.056), 자리(0.046), 인간(0.032), 공부(0.025), 축의금(0.023), 양자(0.022), 나라(0.020), 위원장(0.018), 역학(0.018)	1,330
5	국회 청문회 및 의원 영어 능력 논쟁	국회(0.091), 의원(0.088), 이준석(0.053), 수준(0.044), 영어(0.036), 청문회(0.030), 국회의원(0.028), 국민(0.023), 질문(0.022), 소리(0.019)	2,006
6	쿠광 사건을 둘러싼 국민 감정	쿠광(0.063), 나라(0.045), 국민(0.039), 댓글(0.029), 무시(0.024), 망신(0.018), 조사(0.016), 알리(0.015), 어디(0.015), 예의(0.014)	1,036

1단계 분석에서 K값을 조정하며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토픽 분석에서는 통역보다는 정치인 및 국가적 감정이 중심을 이루어 통역과의 연관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만큼 쿠광 청문회에 관한 시청자의 관심은 통역 수행이나 통역사에 관한 측면보다 정치인, 국가, 국민 감정 측면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청문회 통역과 통역사에 관한 댓글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단계 LDA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4.1.2.2.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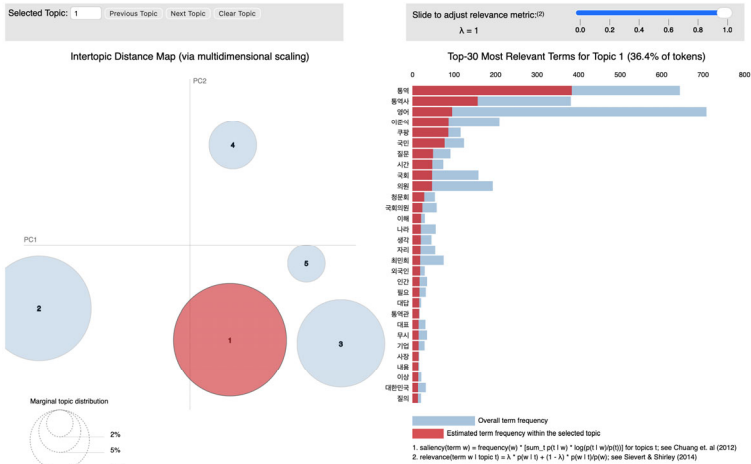
4.1.2.2. 통역 중심 데이터 분석

2단계 분석에서는 청문회 통역과 통역사를 중심으로 한 댓글에 집중하기 위하여 ‘통역’, ‘통역사’, ‘영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댓글을 모두 추출하여 하위집합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LDA 분석을 실시하였다. K=5로 설정하여 LDA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표 5. 2단계 통역 중심 말뭉치 LDA 분석

번호	주제	상위 10 대 키워드(가중치/확률값)	문서수
1	통역 수행 및 운영 담론	통역(0.113), 통역사(0.046), 영어(0.028), 이준석(0.026), 쿠팡(0.025), 국민(0.023), 질문(0.015), 시간(0.014), 국회(0.014), 의원(0.014)	449
2	통역 결과물 및 통역 활용 관련 신뢰성 논쟁	통역(0.048), 문제(0.044), 쿠팡(0.024), 통역사(0.023), 국민(0.010), 최민희(0.008), 로저스(0.007), 한국(0.007), 무능(0.006), 이재명(0.006)	49
3	통역사 중립성/전문성 담론	통역사(0.103), 통역(0.093), 동시(0.018), 최민희(0.015), 상대(0.013), 국민(0.010), 쿠팡(0.009), 한국(0.008), 문제(0.008), 생각(0.008)	339
4	통역사에 대한 공적 압박 논쟁	공부(0.067), 통역(0.058), 양자(0.049), 영어(0.046), 역학(0.043), 시간(0.022), 최민희(0.015), 동시통역(0.012), 윤색(0.009), 언어(0.007)	97
5	정치인 영어 능력 및 자격 담론	영어(0.200), 의원(0.050), 이준석(0.042), 국회(0.034), 수준(0.017), 질문(0.014), 실력(0.012), 국회의원(0.011), 자랑(0.010), 자리(0.010)	465

그림 1은 2단계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토픽모델링 거리지도이다. 각 주제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각 주제는 세부 주제로 추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제의 댓글에 할당된 토픽 비율이 80% 이상인 댓글 1,054개를 중심으로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세부 주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표 6 참조).

번호	주제	세부주제
1	통역 수행 및 운영 답론	1.1 통역 품질
		1.2 통역 필요성
		1.3 요약·선별 통역 요구
		1.4 시간 지체
		1.5 현장 통역사 존중
2	통역 결과물 및 통역 활용 관련 신뢰성 논쟁	2.1 왜곡된 통역
		2.2 쿠광의 의도적 통역 활용
3	통역사 중립성/전문성 답론	3.1 통역사의 중립성 의심
		3.2 통역 모드에 따른 인식차
		3.3 통역사 전문성 옹호

4	통역사에 대한 공적 압박 논쟁	4.1 의원 비판
		4.2 통역 품질 비판
5	정치인 영어 능력 및 자격 담론	5.1 정치인의 영어 능력 부족 비판
		5.2 정치인의 영어 능력 과시 비판

통역과 통역사에 관한 대부분의 댓글은 청문회 현장에서 쿠광 대표 및 임원과 동석한 쿠광 측 통역사들과 그들이 수행한 순차통역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청문회 당시 통역사의 통역 수행과 국회의 통역 운영 방식 중심이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 상황과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각 세부 주제마다 찬반 의견이 혼재되며 첨예한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통역 품질(1.1)에 대해서는 전문 통역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통역이 이루어졌다는 옹호 의견이 있는 반면, 대출이자 관련 발언에서 오역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센스 없이’ 통역한다는 등 통역 품질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었다. 통역 필요성(1.2)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국민 역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역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제한된 시간과 의례적인 발언으로 인한 지체를 고려할 때 통역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요약 선별 통역 요구(1.3)와 시간지체(1.4) 역시 통역 필요성(1.2)과 비슷한 맥락에서 상반된 의견이 혼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역사에 대한 존중 부족(1.5)에 관한 의견도 교차하였는데, 통역사에게 호통을 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매국’과 같은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통역사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도 함께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는 통역 결과물 및 통역을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신뢰성 논쟁으로, 주로 통역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의견(2.1)과 쿠광 측에서 통역을 언어적 장벽으로 활용하여 불리하면 통역사를 탓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의견(2.2)이 주를 이루었다.

세 번째 주제는 통역사의 중립성에 관한 논쟁으로 구성되었다. 쿠광 측 통역사가 쿠광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상실하였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통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쿠광 입장에서는 상대측 통역사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통역사의 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확인되었다(3.1). 한편, 청문회에서 사용된 통역 방식과 관련하여,

‘동시통역기’³⁾나 ‘AI통역’을 언급하면서 해당 통역 모드에 대한 신뢰성 찬반 의견도 제기하였다(3.2). 그런 한편, 통역사의 중립성 맥락에서 통역사가 실력 좋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과 전문통역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통역사를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 확인되었다(3.3).

네 번째 주제는 의원의 통역사 질타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통역사가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며 의원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4.2), 의원의 영어 실력 등을 거론하며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했다(4.1). 다섯째 주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영어 능력이며, 정치인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5.1) 영어 실력을 과시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5.2)이 공존하였다. 특정 정치인이 영어를 직접 구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역사에게 통역을 일부 생략할 것을 요구하거나, 영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라는 대중의 비판적 시각이 담긴 것으로, 이 주제는 다시 전문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를 문제삼는 담론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 4.2절에서는 4.1절의 키워드 및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직 통역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 시청자 의견과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4.2. 통역사 인터뷰

통역사 인터뷰 분석 결과, 통역 수행 운영 담론, 통역사 중립성 및 신뢰성 담론, 통역사 공적 압박 담론, 정치인 영어 실력 담론, 그리고 통역 환경 제도적 개선 담론으로 주제가 분류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⁴⁾

4.2.1. 통역 수행 운영 담론

본 절에서는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요구된 통역 수행 방식에 대한 전문 통역사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참여자들은 통역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통

3) 청문회에서 전문 통역사들이 동시통역을 제공하였으나, 유튜브 중계에서는 음성만 전달됨에 따라 일부 댓글에서는 통역사나 통역 서비스가 아닌 ‘도구’로 지칭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4) 통역 수행 운영 관련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렴하였으며, 공통된 의견을 중심으로 4.2절을 기술하였고, 일부 참여자의 의견인 경우 참여자 번호를 명시하였다.

역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회 측의 통역 생략 및 요약 요구, 불합리한 발언 시간 산정 방식 등 현장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먼저, 참여자들 모두 증인에 대한 여론이 적대적이고 압박감이 심한 청문회 분위기 속에서도 현장의 통역사가 침착하게 전문성을 발휘하며 통역하였고 통역 품질이 우수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대중의 비판과 달리 현장 통역사가 과도한 윤문이나 오역, 누락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모든 문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본 그 장면들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뭐가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역이 됐다거나 과하게 윤문이 됐던 부분은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참여자 6)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엄밀히 통역이 잘못됐다고보다 그냥 워낙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여론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를 공격했던 것이고. (참여자 2)

진짜 mental breakdown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정말 궁극의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참여자 1)

또한, 국회의원들이 통역사의 발화 차례를 임의로 건너뛰는 이른바 ‘통역 패싱(Passing)’과 통역사에게 제기한 인사말 생략이나 요약 요구에 대해, 참여자들은 통역사의 직업 윤리를 위배하는 지시라는 의견을 밝혔다. 통역사는 화자의 발언을 임의로 판단하여 생략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발언이 법적 근거가 되고 기록되는 청문회 자리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증인의 고도화된 발언 전략일 수 있으므로 통역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잘라내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참여자 5, 6).

또 청문회다 보니까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외국인 사장이 하는 얘기가 다 이제 그걸 아마 속기를 해서 다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참여자 2)

그 불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부분은 통역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답변에서 그 원 화자의 발언 중에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인데 (...) 그 비난

이 통역사한테 갈 게 아니라 그 불필요한 말을 한 화자한테만 다이렉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원 화자와 이 통역사를 제대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 시선에서 기인한 일각의 시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5)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는 좀 더 그런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내 발언을 하겠다라는 것도 그 사람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통역사가 거기서 그 부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발언을 처음에 한 발화자의 의도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위와 같은 청문회 현장과 대중의 댓글 속에서는 통역 패싱과 요약 및 생략 요구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체가 지목되었는데, 이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통역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 안에 포함시킨 국회의 시간 산정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순차 통역이 개입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통역 소요 시간이 아닌 외국인 증인의 발언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와 관련해 외국어 통역과 관련한 국회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순차 통역이 들어가면 당연히 시간은 2배로 늘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고. (참여자 1)

한 의원당 정말, 7 minutes per lawmaker, 이거가 만약에 딱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인데 (...) 통역 시간을 제외하고 증인의 오리지널 스피치 발언과 의원의 스피치의 합이 7분을 넘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고. (참여자 3)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거는 왜 외국인이 이런 청문회에 와서 증언을 할 때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합의된 프로세스가 사전에 없었는가가 좀 의문이었습니니다. (참여자 6)

4.2.2. 통역사 중립성 및 신뢰성 담론

국회 청문회 당시 대중과 정치권 일각에서 통역 결과물 윤색 및 통역사 중립성

불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부 대중은 통역사가 사용자, 즉 쿠팡 측에 유리하도록 발언을 고의로 윤색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으나,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이는 통역사의 직업 윤리와 현실적 수행 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측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각색을 할 수 있는 통역사는 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앉아 있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상황에서 통역사가 아무리 자기가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라 해도], 그거는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절대 그럴 수 있는 통역사 많지 않다. (참여자 1)

우선, 통역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언어 전문가이므로 발언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윤색할 권한이 없고, 설사 증인에게 유리하게 통역하고자 하더라도 통역사 입장에서 무엇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발언일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참여자 1, 6).

나아가 전문 통역사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받는 강도 높은 훈련과 현장의 극심한 인지적 압박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윤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참여자 1, 3, 5, 6). 참여자들은 생중계되는 청문회의 민감한 분위기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통역에 집중하는 데에만 모든 인지적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발언을 유리하게 만들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을 왜곡할 경우 결과적으로 통역사 자신의 평판과 커리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통역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1, 5). 통역사라는 직업 특성상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하기보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통역사 업계에서 평판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통역사 윤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다른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이직이나 이런 게 잦은 편이고 (...) 조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보다 내가 통역사라는 정체성이 일단 훨씬 쎈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전 국민이 다 보는 너무나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서 통역을 일부러 부정확하게 한다든지 윤색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그런 유인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참여자 5)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실제 청문회 현장에서 수행된 통역 결과물 역시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논란이 된 영상의 발화를 따져보았을 때 크게 중립성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나 왜곡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 1, 3, 5는 설사 통역사가 고용된 회사 측에 유리하게 통역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전달하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도에 그칠 뿐 연사의 원 발화를 통역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통역사의 고의적 왜곡 가능성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참여자 2와 6은 고의적인 왜곡은 없을지라도 고용 주체에 따른 미세한 뉘앙스 편향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국회 측에서도 독립적인 통역사를 섭외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좀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그 정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오리지널 스피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참여자 3)

청문회 상황에서 위스퍼링 통역에 대한 오해로 인한 통역사 비난도 있었는데, 대다수 참여자는 당시 통역 모드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았다. 다수인 한국어 화자를 위해서 순차 통역으로 정확성을 높이고, 소수인 영어 화자에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그 사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은 순차로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쨌든 회의록이나 이런 데 다 기록이 될 것이고 반대로 거기서 사실상 외국인은 그 사장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 쿠팡 사장한테 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위스퍼링으로 하는 게 좀 시간 절약 차원에서 좋았을 것 같고요. (참여자 2)

4.2.3. 통역사 공적 압박 담론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통역사는 공적 압박을 겪었고 이를 지켜본 다른 통역사들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통역사가 정치적 기선 제압과 대중적 공분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이 통역의 흐름을 끊거나 통역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국회와 쿠팡 간의 관계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압박 전술이었다는 것이다. 즉, 통역사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증인을 압박하기 위해 통역사가 신경전의 소재로 쓰였다는 것이다.

사실 통역사가 그 전체 문제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신경전의 소재로 쓰인다거나, 어쨌든 좀 부수적인 희생양으로 쓰인 부분
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6)

이러한 공적 압박은 대중과 정치권이 통역사와 증인을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는
동일시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역사는 화자의 발언을 1인칭 화법으
로 전달해야 하는데, 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로 인해 증인과 통역사를 한
팀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화자가 한 불필
요한 발언에 대한 분노가 통역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감정이 좋지 않거나 그런 회의에서는 화자와 제가 정말 명확하게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일부러 정말 사람 눈을 보지 않고 통역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알려드
리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참여자 5)

그 사람의 말을 1인칭으로 전달하잖아요. 원팀, 원팀. 그 사람이 곧 통역이고
통역이 곧 이 사람 (...)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동일시할 수밖에 없
다. (참여자 1)

나아가 참여자들은 대중의 비난이 통역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철
저히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통역에 관심이 있어
서 통역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가진 정치적 렌즈나 특정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된 현장 통역
사의 심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강한 동질감과 충격을 호소했다. 전 국민이 지
켜보는 생중계 상황에서 통역사의 얼굴이 무분별하게 유튜브 쇼츠 등으로 확산되
고, 근거 없는 오역 논란으로 직업적 평판이 공격받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잊기 힘
든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가 나름 그래도 뻥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나도 그걸 보고 몇 번을 지
속해서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간접 PTSD를 겪을
정도였다. (참여자 3)

그 이후에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방송도 타고 자꾸 소셜 미디어에

재생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통역사분은 잊기 힘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여자 5)

4.2.4. 정치인 영어 실력 담론

청문회 사태를 계기로 대중 일각에서 정치인의 영어 실력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부 대중들은 국회의원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 통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으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비난이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과 공적 의사소통에서의 통역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치인의 본업은 외국어 소통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한 국정 운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여자들은 국회의원이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대중의 반응은 영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의원에게 영어 능력을 필수 자질로 요구하게 될 경우, 정작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 능력, 분석적 사고 등을 갖춘 인재들이 배제될 수 있으며 외국어 소통은 전문가인 통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 대한 스탠다드가 가끔은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영어 잘해야 돼 또 영어 못하면 안 돼 영어 못하면 부끄러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자 4)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공식 석상에서 자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참여자 1, 3). 실제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정치인들도 많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기에 의도적으로 자국어인 한국어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서 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행위로 해석된다.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일부러라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참여자 1)

저는 가급적이면 통역사 오피셜 미팅 동안에 오피셜 어젠다를 얘기할 때는 통역사를 통해서 미팅하시라. (...) 그래야 또 공식적으로 버전도 한국어 버전

이 남잖아요. (...) 나중에 칵테일 파티 하고 그럴 때 본인의 말로 같이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는 매우 좋다. (참여자 3)

또한, 참여자들은 완벽한 원어민 수준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아닌 이상, 공식적인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통역사를 거쳐 소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절차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참여자들은 가벼운 네트워킹이나 인사 자리라면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책임과 공식 속기록이 남는 청문회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였다. 직접 소통을 시도할 경우 치명적인 소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통역사를 통해 정확한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공적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4.2.5. 통역 환경 제도적 개선 담론

참여자들은 또한 청문회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역 환경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은 국회에 외국인 증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비가 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프로토콜 마련과 통역사 보호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하나의 제안은 외국인 증인 출석 시 적용할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과 온보딩 절차의 도입이다. 참여자들은 청문회에서 시간 배분이나 통역 모드에 대한 사전 합의된 프로세스가 매우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향후 통역 시간 산정 방식, 발언의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한 국회 차원의 공식 길잡이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에 청문회를 할 때 통역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럴 때는 질의 응답 시간에 몇 분을 넣을 것이며, 누구누구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 가이드라인이, 그 문서가 필요하다. (참여자 1)

순차통역은 이런 거고, 동시통역은 이런 거고, 오늘 우리가 할 통역 셋팅은 이런 거고,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고, 아무리 통역을 우리가 잘 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온보딩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참여자 4)

또 다른 제안은 통역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포지션(증언녹취) 방식 및 교차 검증 시스템의 도입이다(참여자 3). 참여자들은 통역사 한 명에게 모

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국회 측과 증인 측이 각자의 독립적인 통역사를 대동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참여자 2, 3, 5, 6). 이러한 구조적 장치는 윤색이나 편향에 대한 소모적인 불신을 원천 차단하고 공적 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통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동시통역 부스 도입과 신원 보호 장치 마련도 제안되었다. 참여자들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론전의 최전선, 그것도 생방송에 통역사가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된 현실에 개탄하며, 신상 털기나 악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역사를 카메라 화면에 잡히지 않게 분리하거나(참여자 1, 5, 6), 전면적인 방음 부스를 설치하여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참여자 1, 3, 4, 5). 또한 통역사의 인지 부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휴식과 교대 근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참여자 1, 5).

나는 통역사 보호를 위해서 이걸 순차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호를 위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자 1)

통역사들이 최소한 그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안 잡히게라도 하면. (참여자 6)

통역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교대 인원이 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5)

그 외, 통역사 섭외를 위한 예산 할당(참여자 1, 5), 한국어와 외국어 양 언어에 대한 속기록 작성(참여자 3, 5), 그리고 정식 통역 교육 이수 등 전문통역사 자격요건 필요성(공통)도 제기되었다.

5. 논의

5.1. 전문 통역사와 일반 대중 인식 간 공통점과 차이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문 통역사와 일반 대중 간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인식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다만, 대중의 인식은 다양한 이유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단으로 갈린 반면 전문 통역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관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역 필요성, 통역사 중립, 통역 전문성 존중, 국회의원의 영어 역량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통역 필요성에 있어 전문 통역사들과 일부 대중은 청문회 통역이 법적인 증언 효력을 가지는 자리이며, 청문회에 배석한 모든 의원과 생중계를 통하여 이를 시청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속기록으로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의원들의 영어 능력과는 무관하게 통역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반면, 질의 시간제한 및 의례적인 발언은 핵심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통역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댓글도 다수 있었다. 통역사들은 이에 대하여 의례적 인사말로 정의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 법적 효력을 갖는 청문회 자리에서 통역사가 자의적으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발화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통역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간 지체가 문제라면 청문회 계획 시 의원 질의시간 제한을 늘리거나 처음부터 동시통역으로 기획했어야 한다며 외국인 증인 참여시 통역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통역사 중립성의 경우 통역 품질과 밀접히 연관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역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청문회 순차통역의 품질에 대하여 문제 삼을 만한 오역 없이 잘 이루어졌으며,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통역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댓글에서도 통역 품질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왜곡’, ‘윤색’, ‘날조’, ‘조작’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쿠광 측 통역 품질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는 통역 중립성에 관한 논란과 연결되었다. 댓글에서는 쿠광 측이 고용한 통역사라는 이유로 ‘매국노’, ‘한통속’, ‘대변’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통역이 쿠광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쿠광이 통역을 방패막이 삼으려 통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통역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그간의 통역 경험을 토대로 통역사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용주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용주나 고객에게 유리한 통역이라 하더라도, 발언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는 범위 내에서 통역사의 언어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내용을 왜곡하여 통역하면 결과적으로 통역사 자신의 평판과 커리어에

해가 되기에 통역사는 정확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통역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전문 통역사에 대한 존중 문제의 경우, 통역사가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는 장면에서 이에 동조하며 통역 품질, 통역사의 태도, 또는 표정까지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던 반면, 통역사의 실력과 전문성을 옹호하며 통역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댓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 통역사들은 해당 장면을 보며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PTSD’나 ‘트라우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역이 아닌 부분이 윤색 통역으로 지적되고 해당 장면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속츠로 확산되고 악플까지 달리는 상황이 통역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통역사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넷째, 국회의원의 영어 실력 문제에 있어, 댓글에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하였다. 통역사들은 이에 대해 의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청문회와 같은 공적 현장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적 자리에서는 의원 개인의 영어 실력 발휘보다는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5.2. 인식 간극의 원인

앞서 정리한 대중과 전문 통역사 간 인식의 간극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쿠팡 청문회라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역 품질과 통역사 중립성에 관해서는 대중의 댓글 안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쿠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반면 통역사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기업이 증언하고 다양한 정치적 노선이 교차하는 청문회 현장에서 통역사가 공개적 압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 경우는 매체의 확산력에 의해 그 충격이 더욱 확대되었고 통역사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며 통역사들은 깊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순차통역, 동시통역, 위스퍼링 등 통역 모드와 소요 시간에 관한 정보 등 기본적인

통역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역사의 윤리와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문 통역사가 준수하는 직업윤리와 중립성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통역사가 고용 주체에 따라 편향적으로 통역한다는 불만이 표출됨과 동시에 통역사에게 자의적인 선별·요약 통역을 기대하는 모순된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는 엔터프리티나 외교현장의 상징적 주역 등 대중의 통역사에 대한 피상적 이해 수준을 보여준 선행연구와도 궤를 같이한다(강지혜 2010; 허지운 2016; 박소영 2020). 통역 실무 차원의 인식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통역 방식, 작업 환경, 직업윤리보다는 통역사 자질이나 결과물의 품질을 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권상미 2020; 장애리 2025).

본 연구에서 일부 대중은 순차통역을 진행한 통역사와 원 발화자인 증인을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 두 사람을 동일시하며 함께 비난하기도 하였다.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나온 증인은 외국인 대표와 임원이고, 통역사는 언어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일 뿐 증인이 아님에도, 증인을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이 통역사에게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통역사들은 2년간의 전문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윤리적인 통역을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통역사들은 윤리적인 통역이 의사소통 참여자의 신뢰를 얻고 통역사 자신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 통역사들의 노력을 외부에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부의 인식이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 자부심, 직업 지위 인식에 영향을 주고 직무 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이지은 2017; 임세인 2018; 장애리 2025; 배소연 2026; Dam and Zethsen 2013). 전문 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통역사 및 통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통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다음 6장에서는 공적인 소통 현장의 전문 통역 운영 체계화 방안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인 소통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전문통역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언은 크게 전문통역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통역

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 개선, 통역사 활용에 대한 교육 제공, 공적소통 현장의 통역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문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 통역사 선정: 기본적으로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등 전문 통역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통역 경력을 쌓은 통역사로 선정하여 통역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통역사 섭외 주체: 통역사 섭외에 있어 상호 신뢰 및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사전 합의는 필수이다. 또한, 외교 및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각자 신뢰할 수 있는 통역사를 섭외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역사로 사전 조율하에 섭외하여야 한다.
- 예산 할당: 외국인 증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역 제공 예산을 사전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 통역 서비스 비용은 국회 측이 부담하거나, 각자 통역사를 섭외할 경우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 시간 배정: 청문회 의원 질의와 같이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고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역 시간을 사전에 고려하여 시간 안배를 해야 한다. 이때 통역 시간은 제한에서 제외하고 원 발화자의 발언 시간만을 포함하거나, 이를 고려해 발언 시간을 최소 두 배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통역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 동시통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역 윤리 준수 환경 제공: 통역사가 원 발화자에 충실한, 정확하고 윤리적인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통역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속기록 언어: 외국인 증인의 발언은 한국어 통역뿐 아니라 원어 기록도 남겨야 한다.

둘째, 통역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통역 시간: 고강도의 통역이 장시간 지속될 시 통역사 교대를 하여야 하며, 통역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의 지속 시간을 예상하여 통역사 교대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통역사 신원 및 초상권 보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역사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거나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역사 화면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자리 배치를 조정하고 동시통역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 음향 및 기타 조건: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통역사가 발언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자리 배치와 음향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통역사 소명 기회 부여: 통역이 제공되는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통역사에게 결과물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 시 통역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통역사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전문 통역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상시로 제공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통역 사용자와 청중의 통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 통역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 회의 시작 전 통역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여 선입견을 미연에 방지한다.

넷째, 국회를 비롯한 공적 소통 현장의 통역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 정부, 국회,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적 소통 현장에서 전문 통역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도록 한다.
- 통역사 섭외, 통역사 자격 요건, 인원 구성, 교대 계획, 장비 및 음향 셋팅, 시간 안배, 예산 확보, 통역 윤리 준수 등 통역사 활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정리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 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 통역 현장에서 나타난 일반 대중과 전문 통역사의 시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며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의 시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대중의 댓글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화되는 의견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정량 데이터가 조사 시점의 댓글로 한정된 점과 인터뷰 조사 대상이 소수로 한정된 점이 연구의 한계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통역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의 시각을 분석하여 간극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소통 현장의 통역 서비스 활용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댓글 달론 형성 양상이나 유튜브 채널·출처 성격별 세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 대상을 국회 관계자, 청문회 운영 실무자, 정책 결정자 등으로 확대하여 청문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을 한층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문 통역사와 통역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0).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통역에 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1(3): 7-39.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의 이론적 특징과 대화통역사 양성 방안.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사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역』 22(2): 1-28.
- 권상미. (2023).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과 통역 콘텐츠 분석: 유튜브(Youtube)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25(1): 1-26.
- 권상미. (2024). 「통역사 구인시장의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통역사 구인공고 분석」. 『통역과 번역』 26(1): 1-21.
- 박소영. (2020). 「언론의 통역사 보도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2(1): 79-104.
- 배소연. (2026).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희연. (2021). 비즈니스 통역사 역할 연구: 통역사 역할 인식 및 사용자 역할 기대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미션·최진봉. (2016). 「언론에 나타난 이주민 이미지의 변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 53-77.
- 이지은. (2017). 「통역사의 직업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85-109.
- 임세인.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176.
- 장애리. (2025).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역량 탐색: 샤론 최 통역 유튜브 동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3): 349-393.
- 허지운.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8(2): 153-187.
- 허지운. (2020). 「대학생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21(3): 285-312.
- 최원준·설재욱·정희석·윤화목. (2018). 「국내 학술논문 주제 분류 알고리즘 비교 및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178-186.
- 최진철. (2013). 「국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언어중재자의 역할: 한독 비즈니스 사례 연구」. 『국제지역학논총』 6(2): 139-164.
- Angelelli, C. V.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un, V. and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Dam, H. V. and Zethsen, K. K. (2013). Conference interpreters—The star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A study of the occupational status of Danish EU interpreters as compared to Danish EU translators. *Interpreting* 15(2): 229-259.
- Davidson, B. (2000). The interpreter as institutional gatekeeper: The social-linguistic role of interpreters

- in Spanish-English medical discours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3): 379-405.
- Flores, G., Abreu, M., Barone, C. P., Bachur, R. and Lin, H. (2012). Errors of medical interpretation and their potential clinical consequences: A comparison of professional versus ad hoc versus no interpreter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60(5): 545-553.
- Gurianova, A. (2010). Neutrality in Conference Interpreting: Influence of Mode (Simultaneous versus Consecutive) on the Neutrality of the Interpret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eneva.
- Hale, S., Goodman-Delahunty, J. and Martschuk, N. (2019). Interpreter performance in police interviews: Differences between trained interpreters and untrained bilingual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3(2): 107-137.
- Huh, J. (2021). Market demand for conferen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Sifting through the signals. *Translation & Interpre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13(1): 71-100.
- Lee, J., Choi, M., Huh, J. and Chang, A. (2016).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s by marriage migran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24(2): 179-200.
- Lee, J. and Huh, J. (2021). A need for building an ethical and trusting partnership between police officers and interpreters: Findings from South Korea. *Translation & Interpreting* 13(2): 31-48.
- Pöschhacker, F. and Zwischenberger, C. (2010/2015). Quality and role in conference interpreting: Views from the East and South of Europe. In Zwischenberger, C. and M. Behr (eds.), *Interpreting Quality: A Look Around and Ahead*. Berlin: Frank & Timme, 269-296.
- Reddy, M. J. (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4-324.
- Roy, C. B. (1993). The problem with definitions, descriptions, and the role metaphors of interpreters. *Journal of Interpretation* 6(1): 127-154.
- Takimoto, M. (2008). "Keeping an Eye on All Balls": Interpreters' Functions in Multi-Party Business Interpreting Situations. PhD dissertation, Monash University.
- Tannen, D. (1993). What's in a frame?. In Tannen, D.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56.
- Wadensjö, C.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 Zheng, B. and Xiang, X. (2018). Between invisibility and over-visibility: Self-perception and user expectations of liaison interpreters in business settings. *Babel* 64(1): 1-32.
- Zwischenberger, C. (2009). Conference interpreters and their self-representation: A worldwide web-based surve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239-253.

[인터넷 자료]

- 김효정. (2025). 영어 테스트 치른 쿠광 청문회... 김범석은 어디 가고 한국어 못하는 임시대표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4347?sid=100\(2025.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4347?sid=100(2025.3.18. 검색))
- 민경하. (2025a). 난장판된 쿠광 청문회... 동문서답에 “AI통역 띄워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1696?sid=101\(2026.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1696?sid=101(2026.3.18. 검색))
- 민경하. (2025b). 통역 기사웁부터 고성·삿대질까지... ‘난장판’ 쿠광 청문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5442?sid=101\(2026.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5442?sid=101(2026.3.18. 검색))
- 박용후. (2025). 쿠광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 이젠 소비자가 바뀌어야 한다[박용후가 소리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462?sid=110\(2025.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462?sid=110(2025.3.18. 검색))

- 색).
- 양형욱. (2025). 쿠팡도 남긴 ‘꼼수 통역 흑역사’... 안 넘어가는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7845?sid=100>(2026.3.18. 검색).
- 이대호. (2016). [MTN현장+] 1명의 외국인과 4명의 동시통역사...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그 뒷이야기.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6083114032472969>(2026.3.18. 검색).
- 이성현. (2026). 늘어나는 외국인 증인, 말 안 통하는 국회.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4>(2026.1.11. 검색).
- 이제향. (2025). ‘호구된 국민’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맹탕’ 논란 속 고발 의결.
<http://www.breaknews.com/1170109>(2026.3.18. 검색).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2026). #한국통번역사협회의 목소리.
https://www.instagram.com/p/DTcOvyDkxGe/?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2026.3.18. 검색).
- 홍수현. (2025). “이준석만 이해...통역 줌” 청문회에 외국인 보낸 쿠팡 결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5536?sid=100>(2026.3.18. 검색).
- NATV국회방송. (2025.12.2.). [국회방송 생중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 (25.12.2.). <https://www.youtube.com/watch?v=O-Zvm3hB568>(2026.3.18. 검색).
- OBS뉴스. (2024.10.29.). [현장영상] 한국에서 ‘유독’ 비싼 애플... 이유 몰았더니 돌아온 답변이..?!.
<https://www.youtube.com/watch?v=116OMpNOcjA>(2026.3.18. 검색).
- AIIC. (2026). Code of Professional Ethics. Retrieved from
<https://aiic.org/company/roster/companyRosterDetails.html?companyId=13403&companyRosterId=120> on 10 April 2026.
- AUSIT. (2012). AUSIT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ausit.org/code-of-ethics-and-code-of-conduct/> on 10 April 2026.

부록 1. 분석 대상 동영상 목록

번호	동영상 (동영상별 조회수: 1,700 ~ 291 만 회/게시일: 2025 년 12 월 17 일 ~ 2026 년 1 월 1 일)
1	‘의장님, 우리 잘 했나요?’ 통역사만 ‘열일’ 더 센 청문회로
2	최민희 ‘동시 통역씨라’...쿠팡대표 “내 통역쓰겠다” 발각
3	[지금뉴스] 답답한 이준석 “제가 번역해드릴게요”...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4	‘쿠팡 청문회’ 이준석 통역 패스에 일동 당황
5	통역도 시간 낭비! 의미없는 답변에 결국 쿠팡 청문회 극단의 조치 취하는데...
6	쿠팡 청문회에서 통역 답답해 대폭발... “그만 답변하시라고!!”
7	쿠팡 청문회 통역 지연.. 이준석 답답해 셀프 통역
8	이준석,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쿠팡 청문회..첫 질문부터 ‘빠거덕’
9	“동시통역기 차세요!” 쿠팡 청문회 공개 설전
10	‘영어 듣기평가’ 된 쿠팡 청문회..왜변까지?
11	“통역기 써라” vs “비정상” 쿠팡 청문회 기싸움?
12	“HAPPY...” 한마디에 쿠팡 청문회 ‘발각’
13	쿠팡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 사용 ‘기싸움’
14	[현장영상]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되죠!”...‘통역사’ 두고 난리 난 청문회
15	[오늘 이 뉴스] 통역이 대신 “한국말 못하셔”.. ‘영어 선사’ 쿠팡 청문회 난리
16	사상 초유의 ‘영어 선사’ 쿠팡 청문회! 글로벌 기업이라고? 쿠팡 영어로 답하자 최 위 원장 한국말로 버럭 소리지르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17	통역쇼와 동문서답의 완벽한 조화?
18	[지금뉴스] 최민희 “국회 동시통역 들어라”...쿠팡 대표 “이건 비정상”
19	‘사오정.영어 듣기평가’ 현장 된 쿠팡 청문회..더 센 청문회 재추진
20	[자막] 최민희, 쿠팡의 ‘오역 통역사’ 기용과 황당한 통역 꿈수에 분노 폭발!
21	이준석,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쿠팡 청문회..첫 질문부터 ‘빠거덕’
22	동시통역기 쓰세요! NO!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쿠팡청문회
23	[화라이브를 켜라] 쿠팡 청문회 실시간 현장...이 시각 국회
24	이준석, 쿠팡 측 대답에 헛 웃음 지었다 왜?
25	[현장영상] 번역 기다리던 이준석 참을성 폭발..“아 제가 할게요” 속사포
26	쿠팡 청문회에서 오간 충돌.. ‘동시통역기 착용해라 VS 싫다’
27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만 보낸 쿠팡 “한국말 못 한다”
28	국회 청문회 출석한 쿠팡 대표 “Happy to be here...” 답변에 “의례적 인사 하지마”
29	이준석 ‘또’ 통역 패스하자 최민희 한숨 쉬더니

30	“착용해라” vs “싫다”...쿠팡 청문회서 ‘동시통역기’ 두고 충돌 지금 이 뉴스
31	[현장]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출석한 대표는 외국인 법률 전문가/하버드 출신 이준석, 참다 못해 번역 자처
32	이준석 “김범석 어디갔냐” 물으니 쿠팡 신입대표 “Happy to be here”
33	쿠팡 대표, 사과 대신 고성?...동시통역 놓고도 기싸움
34	시작부터 “한국어 전혀 못 해”...청문회 내내 ‘동문서답’
35	“지금 통역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급발진한 쿠팡 대표이사 해럴드 로저스 답변 태도 봤더니..
36	최민희, 인상 꺾 쓰더니...쿠팡 해럴드 로저스 통역사 앞으로 부른 이유는?
37	“통역 선생님, 그런 거 번역하실 겁니까?”
38	[돌발영상] 복장 터지는 쿠팡의 동문서답들... 청문회인가 영어 듣기인가
39	동시통역기 거부, 손사래까지...돌변한 쿠팡 대표 “그만합시다”
40	“지난번에 왔던 분이죠?” 최민희, 통역사 앞으로 부르더니
41	통역기 쓰랬더니 ‘벌컥’...“그만하자” 막 나간 쿠팡 대표
42	“웨얼 이즈 범 캅” 못알아듣는 미국인?...쿠팡 신입 대표의 답변 회피 전략
43	“Happy to be here”...영어듣기 평가 된 ‘쿠팡 청문회’
44	[사사건건] “내 통역사 쓸래”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캐섬한 이유?
45	30 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46	쿠팡 외국인 대표 한국어 실력은?
47	[더 인터뷰] 결국 맹탕된 쿠팡 청문회, 영어 듣기 평가 됐다? ‘장모님’만 아는 로저스, 알아 듣는 사람은 이준석 뿐?
48	심각한 쿠팡 통역사 상태: 국회 청문회에서 지멋대로 오역한 쿠팡 통역사
49	쿠팡 청문회 중 뜻밖의 영잘알 인증 하게되자 뭔가 민망해 웃는 개혁신당 이준석
50	“할 줄 아는 한국어 장모님”...강제 영어듣기평가가 시킨 쿠팡 청문회
51	[뉴스 ‘꼭’] 영어만 듣고 이준석 바로 질문, ‘통역 패스’에 최민희 “잠깐”
52	최민희가 통역사 모욕하자 쿠팡 대표 “내 통역사 유능해!”
53	최민희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쿠팡 커뮤니티 반응 보자 ‘정적’
54	(속보) 최민희 막말에 분노한 쿠팡 대표...

This paper was received on 7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allylingui@gmail.com

huhjiun@ewha.ac.kr

About the authors

Boyoon Jang (first author) is a doctoral student in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and translator identity.

Jiun Huh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I policy, market trends, gamification, T&I technologies, and interpreter training.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이해당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중심으로 -

배문정* · 윤나비**

Munjung Bae and NaBee Yoon (2026). Toward an improved management system for professional healthcare interpreter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key stakeholders. This study examines how effectively South Korea's professional healthcare interpreter management system operates in practice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four stakeholder groups: healthcare interpreting practitioners, medical institution staff, healthcare interpreter trainers, and exam developers. The findings revealed four common issues across all groups: ambiguity in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sufficient alignment among training, certification exams and actual practice; limited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inadequate post-certification support and career development pathway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a continuing education and recertification system for certified interpreters, a short-term training track for uncertified interpreters, and a centralized workforce pool managed by a public institution. It also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certified interpreters as trainers to enhance the practical relevance of training programs, along with policy incentives for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 accreditation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encourage the hiring of certified interpreters. (Yeungnam University,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 영남대학교 글로벌통번역학부, 제1저자, 교신저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교육실, 공동저자

Keywords: Professional healthcare interpreters, focus group interviews, recertification,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al incentives

주제어: 의료통역 전문인력, 초점집단면접, 재인증, 보수교육, 제도적 유인

1. 서론

국내에서 의료통역이 전문 영역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법적으로 허용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전후하여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자격 검증 제도가 마련되면서 의료통역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김순미 2020).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을 중심으로 교육 및 검정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의료통역,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국제의료관광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김민정 2025; 김순미 2020). 이와 같이 다양한 유관 제도가 존재하나, 통역 전문성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재원의 ‘의료통역 전문과정’과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교육받은 인력의 활용 여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통역 교육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이를 전문 직업으로 이어가기까지의 경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김순미 2018). 예를 들어, 인재원에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의료통역 전문과정’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 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합격 시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료증 취득이 곧바로 의료통역사로서의 취업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유선희 2020).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검증 수단으로는 인재원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이 대표적이다. 현재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7개 언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취업 연계나 급여상의 이점이 적고, 업무를 위한 필수 사항도 아니어서 자격증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민정 2025: 243). 2024년 진행된 ‘글로벌헬스케어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을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배지영 외 2024: 209).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도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만큼 현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의료통역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2.1. 전문 의료통역 서비스의 필요성

의료 현장에서의 언어 장벽은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플로레스(Flores 2005)는 제한된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 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훈련받지 않은 임시 통역사를 활용할 경우 통역 오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LEP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훈련된 전문 통역사나 이중언어 구사 의료 제공자를 활용할 경우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 치료 결과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역 오류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를리너 외(Karliner et al. 2007) 역시 전문 통역 서비스 이용 환자군이 비전문 통역 이용 환자군에 비해 의료 결과 및 환자 만족도 면에서 현저히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메타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문 의료통역 인력의 확보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해외의 연구 결과는 국내 의료통역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의 표준 직무 모델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 정진철 외(2014, 2015)의 연구에서 의료통역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언어적 치환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역 오류는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로 이어져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의료 용어와 임상 절차에 정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2. 국내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상기 2.1.에서 논의된 전문성 인식을 토대로 국내 의료통역 인력의 교육 및 자격 검증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인력의 명칭, 직무 범위, 자격 검정 체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조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의료통역 종사 인력은 의료통역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 통역사가 아닌 코디네이터나 간호사 등 타 직종이 업무의 일환으로 통역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 의료통역사들은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 규정상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김순미 2018; 김순미 2020).

김순미(2020)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통역 전문성을 단순한 언어 능력과 통역 정확성으로만 보지 않고,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의료 지식, 행정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통역학계에서는 언어 능력, 통역 능력, 정확성, 중립성을 핵심 전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학계와 현장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증을 통과한 인력만을 통역 업무에 투입하고 이들의 업무를 통번역 관련 언어 서비스에 집중시키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이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채용 시장에서도 이러한 혼재 양상이 확인된다. 김민정(2021)의 채용 공고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의료통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 콜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되었으며, 업무 범위 역시 통역을 넘어 홍보, 마케팅, 상담 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채용기관들은 자격 취득 여부보다 유사 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력 및 경력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 및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통역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미영(2019)은 국내 의료통역사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전문성 부족, 서비스 품질 저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며, 의료통역사 자격 제도로의 전환, 검정시험 응시 언어 다양화, 연수 과정 내실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배지영 외(2024)은 직무분석과 텔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자격시험이 통역 능력과 실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경력관리가 미흡하며, 현장의 실무 요구와 자격체계 간의 불일치가 자격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재인증 및 의무적 보수교육 체계를 참고하여 한국에도 독립적인 인증기관 설치와 주기적 역량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3. 해외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 제도 사례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라는 과제는 다수의 이민자와 외국인 환자를 수용하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호주, 미국, 영국과 같이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역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연방·주정부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관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를 통해 통번역인 인증과 재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의료 분야 전문 자격인 CSHI(Certified Specialist Health Interpreter) 취득 후 3년마다 재인증을 요구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3년간 120시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총 120점의 전문성 개발(PD)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로그북 시스템을 통해 실무 이력과 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무작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인증 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

미국은 의료통역을 독립된 전문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인증기관인 NBCMI(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Medical Interpreters)와 CCHI(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가 인증·재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자격시험 응시 자격으로 최소 40시간 이상의 공인 교육과정 이수율 의무화하여 교육과 자격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NBCMI의 CMI(Certified Medical Interpreter) 자격은 5년마다 재인증이 요구되며, 30시간의 승인된 보수교

1) <https://www.naati.com.au/certification/recertification/>

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다.²⁾ CCHI는 4년 주기로 32시간의 보수교육을 요구하되, 이 중 최소 4시간은 실제 통역 기술을 훈련하는 수행 기반 교육이어야 한다.³⁾

영국은 의료통역을 법률, 지방 행정 등과 함께 공공서비스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의 핵심 분야로 관리한다. CioL(Chartered Institute of Linguists)라는 권위 있는 언어 전문가 기관이 교육 평가와 자격 수여를 주도하며, 독립적 규제 기관인 NRPSI(National Register of Public Service Interpreters)를 통해 인력을 관리한다(Hlavac 2013). CioL이 수여하는 DPSI(Diploma in Public Service Interpreting)가 핵심 자격으로 기능하는데 DPSI는 최장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취득하는 학사 학위 수준(Level 6)의 고숙련 자격이다.⁴⁾ 자격 취득자는 NRPSI에 등록하여 ‘RPSI(Registered Public Service Interpreter)’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최소 10시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 개발 이력을 제출해야 등록이 갱신된다.⁵⁾

이상의 해외 사례는 공통으로 교육 이수, 자격 취득, 실무 활동, 재인증이 하나의 연속적인 경로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교육 수료나 시험 합격 후 경로가 불분명한 국내 의료통역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4. 선행 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국내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리체계는 명칭과 역할의 혼재, 자격 제도의 실효성 부족, 학계와 현장 간 전문성 인식의 괴리, 체계적인 보수 교육 및 경력관리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통역 실무자, 의료기관 관계자, 실기교육 전문가, 검정시험 출제위원이라는 네 주체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이해관계자 조사를 한 연구를 보면, 김순미(2020)은 서울 소재 4개 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 팀장과 통역 담당자를 면접하여 코디네이터 중심의 통역 시스템과 인증 및

2) <https://www.certifiedmedicalinterpreters.org>

3) <https://cchicertification.org/>

4) <https://www.ciol.org.uk/ciol-diploma-public-service-interpreting-dpsi>

5) <https://www.nrpsi.org.uk/>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배지영 외(2024)는 교육과정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및 의료통역사 채용 담당자들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의료통역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공급자(통역 실무자), 수요자(의료기관), 인력 양성(교육 전문가) 및 검증 주체(시험 출제위원)에 해당하는 각 집단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각 이해당사자 집단의 주요 쟁점과 문제를 도출하고, 둘째,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통역 전문인력 교육 및 검정시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초점집단면접(FGI)

FGI는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현상을 공동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 작동의 구조적 맥락과 내면화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Kitzinger 1995). 본 연구의 FGI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설정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흐름에 따라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FGI는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접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각 회차의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질문지는 모든 집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집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보조 질문을 추가하여 설계하였다. 질문의 핵심 영역은 (1)의료통역 전문인력의 현장 활용도, (2)미활용 원인, (3)전문과정 교육과 검정시험의 현장 상황 반영 정도, (4)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5)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 등이다. 각 핵심 영역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통역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통역 실무자) 통역 인력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교육 수준이나 검정시험 통과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시험 출제위원, 실기교육 전문가) 현장에서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활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바를 공유해 주세요.
(의료기관 관계자)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십니까?

2.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통역 실무자) 병원 채용 시 어떤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시험 출제위원, 실기교육 전문가) 교육이나 시험 제도 자체의 미흡함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의료기관 관계자) 통역 인력을 어떤 경로와 기준으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3. 전문과정 교육과 검정시험에 현장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통역 실무자) 교육, 검정시험 등이 실제 현장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4. 의료통역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통역 실무자)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공부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관계자) 통역 인력의 통역 품질에 만족하십니까?

5.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림 1. 반구조화 질문지 예시

3.2. 참여자 구성

본 연구의 FGI에는 의료통역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해당사자 집단인 의 료통역 실무자, 의료기관 관계자, 실기교육 전문가, 시험 출제위원의 4개 집단이 참여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기존에 섭외된 참여자의 소개, 연구자 개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되었다. 총 참여자는 43명으로, 집단별 참여자 수는 의 료통역 실무자 19명, 의료기관 관계자 11명, 실기교육 전문가 9명, 검정시험 출제위 원 4명이다. 의료통역 실무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담당으 로 구성되었으며, 베트남어 및 몽골어 통역 인력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전원 프리 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주된 근무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 종합 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국제협력팀,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코디네

이터, 의료통역 인력 및 의료코디네이터 관리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실기교육 전문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전공 또는 해당 언어 통번역 전공 대학교수와 인재원 의료통역 전문과정 강사로 구성되었다. 시험 출제위원은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로 이루어졌다.

이 중 검정시험 출제위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참여 인원이 비교적 많아, 원활한 의견 교환과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2~3차례로 나누어 FGI를 실시하였다. 반면 시험 출제위원 집단은 참여 인원이 소수인 점을 고려하여 단일 회차의 집단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별 FGI는 동일한 질문 틀을 기반으로 운영하여 집단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익명성 보장, 참여 철회 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표 1. FGI 참여자 구성

구분	주요 역할 및 특징	참여자 수	모집 경로
의료통역 실무자	인증(인증 후 비활동 인원 3인 포함), 미인증 통역 인력 ⁶⁾	19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증 통역 인력 통한 소개
의료기관 관계자	코디네이터, 행정지원 담당자, 간호사	1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국제의료협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개인 네트워크
실기교육 전문가	의료통역 교육자	9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연구원 개인 네트워크
검정시험 출제위원	검정시험 출제위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3. 자료 분석 절차

분석은 전사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크레스웰과 크레스웰(Creswell and Creswell 2018)이 제시한 질적 분석 절차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먼저 FGI 참여자

6) ‘인증 통역 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의료통역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

의 동의 하에 녹화한 면접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텍스트 자료로 정리한 후, 연구진이 자료 전체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후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1차 코딩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 단계에서는 참여자 발언에서 드러난 주요 인식, 경험, 문제 제기 등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코드화하여 자료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1차 코딩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며 유사한 코드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2차 코딩 단계에서는 개별 코드 간의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중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상위 개념으로 묶어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군 분류가 모호하거나 새로운 주제군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 간 논의하여 필요할 경우 주제군을 재조정하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기관 규모에 따른 요구 역량의 차이를 설명하며 기본 시험 난도 하향 및 필요 시 보수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안한 내용의 경우 주제군 분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의료기관 규모별 역량 요구 수준’이라는 독립된 주제군 생성을 고려하였으나 기존에 구성된 대주제군에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대주제 하의 중주제 중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보수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로 수정하여 해당 내용을 의미 단위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주제 도출 과정은 자료와 코드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집단별 FGI 결과

4.1.1. 의료통역 실무자

의료통역 실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 분석 결과, 현장 활용 실태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1) 역할과 직무 정체성의 불명확성

현장에서 의료통역 전문인력과 코디네이터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하며, 통역 외에도 예약 관리·행정·환자 안내 등 다양한 부수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의료진의 의료통역 인력에 대한 인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통역 실무자 1]

병원에서는 중립적인 통역을 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제 의료진들은 상급병원이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긴말을 개인적인 개인사 말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의료통역 실무자 3]

병원에서는 (통역 인력)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거의 환자의 브리핑을 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생략해 주기를 바라고, 입막음을 하는 역할, 역할자로서 의료통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병원들도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2) 전문인력 활용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

실무자들은 의료 현장에서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 전문인력 제도의 영향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전문과정 수료자 및 검정시험 합격자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용 시 인증 여부를 참고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응답도 일부 나타났다.

[의료통역 실무자 7]

올해는 왜 검정시험을 안 봤냐 하면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판다고 해도 제가 뭐 어떤 병원에서 일할 때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원하면 그냥 예전에 일했었던 사람만 뽑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자격증 갖고 있다 해서 제 장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검정시험은 안 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꼭 수료하고 검정시험까지 본 사람을 뭐 대학병원에서 그런 사람들만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의료통역 실무자 9]

이게 현장에서 그 검정시험에 대한 그 요구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3) 교육 및 검정시험의 현장 반영 부족

전문과정 교육에 대해 다수의 실무자는 병원 시스템 및 의학 지식 이해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회귀 언어의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부분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현직 통역 인력도 합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통역 실무자 5]

지금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언어로 교본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몽골 환자분들은 암이나 장기 이식이 훨씬 많고 러시아 환자분들도 중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아랍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귀 질환이나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좀 언어권별로 많이 오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많이 오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교육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4) 처우 및 지속가능성 문제

의료통역 실무자들은 업무와 책임 수준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과정 이수와 검정시험 준비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장기적인 경력 설계가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의료통역 실무자 4]

사실 의료통역도 어쨌든 전문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페이가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의료통역 실무자 10]

시험이 얼마 비싸지는 않지만 난이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이력에 도움되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5)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실무자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와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의료통역 전문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제고 및 전문과정·검정시험의 인지도 향

상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료통역 실무자 3]

이분들이 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런 데서 경험을 좀 쌓으시고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병원과 의료진과 환자와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규모에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상급병원으로 나중에 오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초점화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료통역 실무자 15]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과 그냥 외국어 좀 한다는 이유로 통역하고 있는 인력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중요시 하는 시간 단축이나 컴플레인 감소 같은 것을 지표를 만들어 보여 주면 의료진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표 2. 의료통역 실무자 집단 FGI 결과 요약

대주제	중주제	의미 단위
역할과 직무 정체성의 불명확성	의료통역사와 의료코디네이터 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	- 의료 현장에서 의료통역사와 의료코디네이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의료기관 규모가 작거나 의원급일수록 의료통역 인력의 업무 범위가 통역을 넘어 확장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통역 전문성보다는 현장 편의에 따라 역할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의료진의 의료통역 인력에 대한 인식 한계	- 의료진은 의료통역 인력을 중립적인 언어 전달자라기보다 진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의료진이 통역 과정에서 환자 발화의 조절이나 진료 흐름 관리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통역의 전문성과 직업적 경계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문인력 활용의 제도적·구조적 한계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전문인력 제도의 영향력 부족	-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음 - 의료기관 채용 과정에서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나 검정시험 합격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많음

		- 실무 경험이나 다기능 수행 가능성이 자격 요건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음 - 검정시험을 통과했음에도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지 못함
	의료기관 규모 및 지역에 따른 활용 방식의 차이	-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의료통역 인력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통역 인력 활용 수준 및 역할 범위에 차이가 존재함
교육 및 검정시험의 현장 반영 부족	전문과정 교육 내용과 실제 업무 간의 괴리	-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전문과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함 -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및 상황 대응 교육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검정시험의 평가 내용과 현장 역량 요구 간 불일치	- 검정시험이 실제 통역 수행 능력보다는 이론적 지식 평가에 치우쳐 있다고 인식함
처우 및 지속가능성 문제	업무 난이도 대비 낮은 보수 수준	- 의료통역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다고 인식됨 - 전문과정 이수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
	고용의 불안정성과 경력 지속의 어려움	- 의료통역 인력이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음 - 장기적인 경력 설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음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교육, 시험 개선 및 보수교육	- 현장 실습 강화가 필요함 - 최신 의료 환경을 반영하는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교육 수요자 수준 및 언어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제도적 지원 필요성	- 의료기관에서 의료통역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있음 -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의료통역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4.1.2. 의료기관 관계자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개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1) 의료통역 인력의 채용 및 활용 구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통역을 독립 직무로 운영하기보다 코디네이터 역할에 통역 업무를 포함시키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검정시험 합격이 실제 통역 능력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관계자 1]

생각보다 사람이나 이런 구인 광고에 통역사라고 말하지는 않고 보통은 해당 언어 코디네이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통역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1차 진료기관, 소위 말하는 병원급, 성형외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채용 공고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통역 전문 교육이라든지 검정시험 합격은 거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의료기관 관계자 3]

그리고 사실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잘하지는 않잖아요. 점수 높은 사람, 토익이나 토플 점수 높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보다는 현장에서 한 몇 년간 더 훨씬 뭐 3~4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별·진료 유형별로 통역 인력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 진료는 내부 직원이 통역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정 언어권은 필요 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증 여부를 채용 기준에 포함하기 어렵고 미인증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부 의원급 기관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AI 통역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도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관계자 8]

성형외과 쪽은 실제로 동시에 AI가 통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그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말투라든지 이게 자연스럽게는 없어서 약간 갭은 있지만 그래도 작은 병원들은 직원을 많이 언어별로 다 채용하기 어려운 병원에서는 되게 효율적이고 원장님들이 좋아하세요.

(2)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상당수는 전문교육이나 검정시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고,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간호사 자격 등 기존 전문 자격과 언어 능력을 보유한 경우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료통역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관계자 5]

저는 사실 의료 통역사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과정 구성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검정시험이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의료기관 관계자 7]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간호사 출신의 영어를 잘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정시험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간호사 면허가 있고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의 경우는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3) 제도 활용 유인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의료기관 운영 측면에서 명확한 재정적, 제도적 실익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관계자 1]

과거에는 KAHF⁷⁾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나 의료통역 자격증 있는 사람이 통역해야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의료통역 전문인력 활용이 외국인 환자 유치나 진료 효율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확신도 부족했다. 외국인 환자들은 자격 사항보다 정서적 유대감과 문화적 공감대를 중시해 자국 출신 통역인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을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

(4) 개선 방안 제안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환경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공신력 있는 인력 풀 관리 체계 구축, 둘째, 보수교육 및 현장 중심 역량 강화, 셋째, 의료기관과 제도 간의 공식적 연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표 3. 의료기관 관계자 집단 FGI 결과 요약

대주제	중주제	의미 단위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채용 및 활용 구조	전문인력 중심 채용 구조 부재	- 채용 공고에 ‘의료통역’이라는 용어보다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됨 - 대부분의 병원에서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의 구분이 없음 - 언어 능력과 경험 위주의 채용
	언어별, 병원 규모 별 통역 인력 활용 현황	- 영어의 경우, 국제진료센터 간호사가 통역을 병행하는 사례 많음 - 특정 언어권의 경우 상시 통역 인력을 두기 보다 필요 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
	전문인력 공급 규모의 한계	-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함 -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외주 및 AI 통역까지도 고려 및 활용하는 실정임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인식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 부족	- 전문인력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 관계자도 있음 - 제도가 의료기관 운영에 제공하는 실질적 이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전문과정 교육 및 시험에 대한 인식	-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 -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여부가 업무 수행 역량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함
제도 활용 유인	제도적 유인 부족	- KAHF 인증평가 가산점 폐지 - 코디네이터만 활용해도 가산점이 충분함
	현실적 유인 부족	- 외국인 환자들은 자격 유무보다 본국 출신 통역인 선호

		- 언어 능력 있는 간호사나 직원이 있으면 통역 인력 채용할 이유 없음
개선 방안 제안	체계적인 전문인력 풀 관리	- 병원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권·경력·활동 지역·근무 형태 등이 정리된 공신력 있는 인력 풀 정보 제공 필요 - 배출된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취업 관련 지자체 부서 및 국제진료센터 정보 제공 필요
	보수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	- 최신 의료 환경 및 특정 진료과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성 있음 - 검정시험의 기본 난도를 하향하여 배출 인원 늘리고 보수교육 통해 등급 상향하는 체계 제안
	의료기관과 전문인력 제도 간의 공식적 연계 장치 필요	- 전문인력 활용 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 의료통역 실습생 수용 기관 지원

4.1.3. 실기교육 전문가

실기교육 전문가 집단의 면접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현장 작동성 한계

실기교육 전문가들은 의료통역 업무가 병원 유형·진료과·언어권·환자군에 따라 크게 다른데 이러한 현장 특수성이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정 진료과 중심의 반복적 통역 환경에서는 교육 없이도 현장 경험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아랍어권과 같이 환자들이 수개월씩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코디네이터 역할이 더 요구되는 언어권에는 전문과정보다 예비 과정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기교육 전문가 2]

일본어는 성형이나 미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곳은 굳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학교 가서 배운 고차원적인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2) 의료통역 교육 시험에 대한 참여 유인 부족

앞서 의료통역 실무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도 공통으로 지적했듯이, 의료통역 전문인력 인증이 채용·처우 개선 등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재

차 언급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로 매력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처우가 나았던 아랍어권마저 최근 보수가 하락해 우수 인력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 이수나 시험 응시에 투자할 동기가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었다.

(3) 교육 및 검정시험 내용의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

실기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과 검정시험이 다양한 진료과와 상황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포괄성이 오히려 현장 수요와 괴리를 낳는다고 평가하였다. 언어권별로 다빈도 진료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기교육 전문가 1]

아랍어는 혈액암, 소아암, 장기 이식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면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산부인과, 내과, 신경과 이런 거는 거의 없어. 근데 교육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4) 개선 방안 제안

실기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개입과 지원, 교육 방식 수정, 교육과 시험 구성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표 4. 실기교육 전문가 집단 FGI 결과 요약

대주제	중주제	의미 단위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현장 작동성 한계	의료 현장의 요구 사항과 교육·시험의 불일치	- 병원 유형, 진료과, 언어 및 환자군별로 요구되는 통역 역량이 상이함 - 특정 진료과만 반복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포괄적 시험이나 교육의 필요성 낮음
	교육이나 시험이 평가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함	- 교육이나 시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된 통역이 가능하다는 인식 - 특히 단일과 중심 업무에서는 언어 능력만으로 현장 적응이 가능하다고 인식됨
의료통역 교육·시험에 대한 참여 유인 부족	인증 취득 여부가 고용 및 업무 배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병원 채용 과정에서 교육 이수나 시험 통과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음 -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음

	낮은 보수와 처우	- 의료통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수가 낮아 내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음 - 비교적 보수가 높았던 언어권도 최근에는 떨어짐
교육 및 검정시험 내용의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	포괄적 시험 구조의 현실 정합성 한계	- 교육과 시험 범위가 실제 현장 업무 범위보다 과도하게 넓다고 인식됨 - 모든 진료과를 포괄하는 시험이 실무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함 - 언어권별 다빈도 진료과는 사실상 일정하므로 차별화된 교육 필요
	검정시험 난이도	- 통역 인력 직무 범위 벗어나는 내용 여전히 출제 - 교육과 시험 내용의 괴리
개선 방안 제안	정부의 개입과 지원	- 보건복지부의 국제진료센터 및 병원 대상 홍보 - 병원 평가 시스템에 제도 활용 여부 반영 - 장기적으로 인증 전문인력 의무 고용 제도와 및 기존 인력 대상 재인증·보수교육 경로 마련
	교육 방식 수정	- 현행 전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교육에 오프라인 강의 점진적 도입 필요 - 불성실한 수강생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교육과 시험 구성	- 현장 상황 반영한 단계적·선택형 교육 필요성 - 교육-시험 간 목표 수준의 명확화 및 일치 필요

4.1.4. 검정시험 출제위원

검정시험 출제위원 집단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시험 출제를 위한 기반 정보 부족

출제위원 대다수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실제 임상 현장 경험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출제 범위와 난이도 기준이 불명확하여, 출제위원들이 '간호사보다는 낮고 간호조무사보다는 높은 수준'과 같은 간접적 비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하

였다.

[시험 출제위원 1]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뛰는 현장을 같이 단 몇 시간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으면은 조금 참고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어렵잡는 수준이라서 그게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렵잡는 수준이라는 게 출제위원마다 각각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위원들은 ‘이 정도는 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위원들은 ‘이 정도까지는 통역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 출제하다 보면 의견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에 출제위원들은 체계적인 직무분석 자료의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출제 방향과 기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시험 운영 및 출제 프로세스 개선

시험 출제 및 심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통역 전문인력이 출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제는행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험 시행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노후화된 문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폐기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험 출제위원 2]

이거보단 높아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어렵다, 이런 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생생하게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합한 비교인지는 몰라도 수능 출제할 때 대학 교수도 들어가고 그 대학 교수들이 낸 문제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풀어보면서 난이도 조절하듯이 저희도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3) 교과과 시험의 표준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

표준화된 교재와 수험 자료가 부재해 응시자와 출제위원 모두 체계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 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한 현행 구조로 인해 교육 내용과 시험 범위 간의 연계가 어려워, 표준화된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표 5. 검정시험 출제위원 집단 FGI 결과 요약

대주제	중주제	의미 단위
시험 출제를 위한 기반 정보 부족	의료통역 현장에 대한 직접 경험 부족	- 다수의 출제위원은 대학교수로 의료통역 현장 경험이 거의 없음 -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이해 없이 출제에 임함
	출제 범위 및 난이도 설정 기준의 불명확성	- 의료통역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의학 지식 수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개인의 판단에 의존 - 체계적 직무분석 기반 출제 가이드라인 필요
시험 운영 및 출제 프로세스 개선	출제 및 심의 과정의 효율화와 내실화	- 경험 많은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출제 내용 검증 참여 필요 - 검토의 경우 과거에 공동으로 수정 및 보완하던 방식이 더 효과적
	문제은행 관리 및 업데이트	- 노후화된 문제 폐기 필요성 - 최신 의료 트렌드와 다빈도 질환 통계 반영한 정기 업데이트 필요
교육과 시험의 표준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	표준 교재 및 수험 자료 부재	- 응시자용 표준 교재 부재 - 출제위원용 참고자료 확충 필요
	교육과정과 시험 범위 연계성 부족	- 교육 수료 없이 응시 가능하여 교육-시험 내용 불일치 - 표준 교육 이수 의무화 또는 교육 범위 내 출제 제도화 필요

4.2. 종합 논의

의료통역 실무자, 의료기관 관계자, 실기교육 전문가, 검정시험 출제위원 네 집단은 의료통역 전문인력 체계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GI 논의는 몇 가지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체계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인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조 전반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집단의 면접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핵심 쟁점은 표 6과 같다.

표 6. 집단별 FGI 결과의 공통 핵심 쟁점

공통 쟁점	주요 내용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직무 및 역할 정의 불명확	의료통역 전문인력과 의료코디네이터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하며 병원에서는 두 직군을 구분 없이 운용함
교육·시험·현장의 연계 부족	교육과 시험 내용, 현장 요구 수준이 서로 연결되지 못해 인증 취득이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음
제도적 유인 부재	의료기관은 제도 참여 실익이 불명확하고, 통역 인력은 채용·처우 개선 효과가 없어 양측 모두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전문인력 관리 및 지원 체계의 미비	의료기관은 인력풀 정보 부재로 채용이 어렵고, 통역 인력은 보수교육 및 경력 개발 경로가 부족하다는 입장임

첫째,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직무 및 역할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실무자들은 이를 전문성 저하의 문제로 인식한 반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다기능 인력 운용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집단 간 관점 차이도 확인되었다. 둘째, 교육·시험·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공통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교육 수료 없이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현행 구조로 인해 교육과 시험 간 정합성 확보가 어렵고, 교육과 시험 내용이 언어권별·진료과별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셋째, 제도적 유인이 부재하여 의료기관과 통역 인력 양측 모두 참여 동기가 낮은 상황이다. 인증 인력 고용에 따른 실익이 없고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아, 전문과정과 검정시험이 현장 진입보다는 자기개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전문과정 수료자와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의료기관의 인력 채용과 통역 인력의 지속적 역량 개발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통역 실무자, 의료기관 관계자, 실기교육 전문가, 검정시험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 분석 결과, 교육·시험 체계와 현장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인증 인력 활용을 유도

할 제도적 기반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이해당사자들 간 공통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김민정 2021; 김민정 2025; 김순미 2020; 배지영 외 2024; 유선희 2020; 정미영 2019; 정철자 2010) 본 연구 결과 현재까지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의료통역 검정시험에서 점수 통과 여부 확인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인증해 주고 있는데, 다등급(1~3급)으로 전문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1급은 호주·미국의 의료통역 전문자격에 준하는 난도와 수준을, 2급, 3급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의료통역 검정시험 등급의 세분된 난도에 따라 의료통역 교육과정도 전문과정 1급, 2급, 3급 등으로 수준의 세분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전문과정(200시간)이 1급 수준이라면 2급이나 3급은 그보다는 적은 교육 시간의 단기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은 인증 없이 활동하는 통역 인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교육과정에 수료시험을 포함시켜 검정시험과 등급별 전문과정의 수준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해외진출법에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통역 보수교육의 의무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인증 자격도 의료통역 검정시험 또는 등급별 전문과정 이수 후 경력 및 보수교육 이수에 따라 승급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호주 NAATI 사례와 같이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되, 언어권별로 다빈도 진료과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나 기관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 따라 의료통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의 품질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의료통역 교육이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재원에서는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과정 1급 수준의 교육과 보수교육을 운영하며 국가 의료통역 검정시험을 추진한다면, 전국에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2급, 3급 수준의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인원 배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생의 현장 경험 강화를 위해 현재 인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실습 과정을 더욱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통역 실습과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통역 인력 비중이 높은 언어권의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인증을 받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외국인 통역인을 교육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이들은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인력으로, 교육 내용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들 외국인 의료통역인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도 상기 제시한 능력 검정과 교육수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인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 배출 인력에 대한 인력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동의하에 의료기관에는 인력 정보를, 통역 인력에게는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되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검정시험 또는 전문과정 이수 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의료기관 서비스 인증 제도로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인력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기관 평가 가점이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21). 「채용 공고를 활용한 의료통역 주체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22(4): 46-65.
- 김민정. (2025). 「국내 의료 통역인 교육 현황 고찰」. 『번역학연구』 26(2): 229-253.
- 김순미. (2018). 「한국형 의료통역 연구: 의료관광통역과 다문화 의료통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8-37.
- 김순미. (2020). 「인하우스 코디네이터 중심 국제진료센터 의료통역 시스템 연구」. 『통번역학연구』 24(2): 33-64.
- 배지영·노진원·오현복·박도형·양수형. (2024). 『글로벌 헬스케어 자격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유선희. (2020). 「한국 의료통역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고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어 통역 수업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1): 105-133.
- 정미영. (2019).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통역사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593-602.
- 정철자. (2010). 「시장 수요 조사에 근거한 한국형 의료 통역 연구」. 『번역학연구』 11(2): 151-172.
- 정진철·김강호·정선정·정동열. (2014).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1차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정진철·김기용·전승환·정동열. (2015).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Creswell, J. W., and Creswell, J. D. (201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5th ed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lavac, J. (2013). A cross-national overview of translator and interpreter certification procedures. *Translation & Interpreting* 5(1): 32-65.
- Flores, G. (2005). The impact of medical interpreter services on the quality of health care: A systematic review.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2(3): 255-299.
- Karliner, L. S., Jacobs, E. A., Chen, A. H. and Mutha, S. (2007). Do professional interpreters improve clinical care for patient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 systematic review. *Health Services Research* 42(2): 727-754.
- Kitzinger, J. (1995). Qualitative research: Introducing focus groups. *BMJ* 311(7000): 299-302.
- [인터넷 자료]
- <https://www.certifiedmedicalinterpreters.org>
- <https://cchicertification.org/>
- <https://www.ciol.org.uk/ciol-diploma-public-service-interpreting-dpsi>
- <https://www.naati.com.au/certification/recertification/>
- <https://www.nrpsi.org.uk/>

This paper was received on 10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m.bae7811@gmail.com

nb9969@naver.com

About the authors

Munjung Bae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School of Glob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Yeungnam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munity interpreting, AI-generated real-time speech translation,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language teaching.

NaBee Yoon (co-author)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iohealth Education Center at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KOH).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healthcare and interpreting.

AI 기반 웹소설 번역과 인간의 역할 고찰 -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김자경**

Jagyeong Kim (2026). *An interview-based study of AI-assisted web novel translation and human roles therein.*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of AI in Korean web novel translation, focusing on its potential and limitations, current workflows,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revisers, and the emerging roles of translators. Based on interview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from two companies developing AI-assisted translation platform for web novels, the study found that AI demonstrates a strong potential for improving translation efficiency; however, translation quality control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As a result, current workflows continue to rely on a combination of AI translation and human revi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revisers require not only linguistic proficiency but also genre literacy, cultural sensitivity, and localization competence. In addition, new professional roles are emerging in the industry, including highly proficient web novel translators, AI translation quality-control specialists, localization experts, and project managers. The study highlights the continued importance of human expertise in AI-assisted translation environment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industry-linked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web novel translation. (Seoil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 web novels, web novel translation, AI-assisted translation, human-AI collaboration, translation education

*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서일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26년 2월 뉴욕타임스에는 프랑스 로맨스 출판사 할리퀸이 AI 번역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격노한 번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판사들 역시 AI 번역으로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2024년 11월에는 네덜란드 출판사 VBK가 상업 소설의 번역에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AI라이프경제 2025). 상업적 대중문학은 AI의 영향을 먼저 받는 만큼 웹소설 번역 업계도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을 목표로 AI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웹소설은 장르적 성격과 규범이 명확하여 AI가 웹소설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방대한 학습 데이터까지 갖추고 있어 AI를 활용한 웹소설 창작의 가능성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박성준 2024) AI 번역의 도입과 활용은 이미 가시화된 흐름이지만 향후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번역 도입의 과급력은 중국 웹소설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AI 번역에 힘입어 중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7억 달러 규모에 달했고 해외 독자층도 2023년 2억 3천만에서 2024년 약 3억 5천만 규모로 증가했다(Sixth Tone 2025). 2024년 11월 기준, 중국 웹소설 플랫폼 웹노벨(Webnovel)의 베스트셀러 상위 100위권 웹소설 중 42%가 AI 번역이었으며 번역물의 70%가 AI로 초안을 생성한 후 인간이 편집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번역 비용을 90% 이상 절감했다(Sixth Tone 2025). 국내에도 한국 웹소설에 특화된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여 번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많은 작품을 해외 시장에 유통하겠다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국내 업체 대표와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AI 번역의 도입 배경, 그 가능성과 한계, 인간과의 협업 및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대 역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규모 인터뷰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국내에서 자체 AI 번역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가 소수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업계 상황과 수요, 관점을 이해하고, 생성형 AI의 출현이 번역가에게

불안을 추동하는 시기에 현장의 구체적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며 향후 교육 방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한국 웹소설 수출의 최대 난관, 번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은 단연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만하다. 이미지가 동반되는 영상,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오로지 텍스트로 전달되는 장르인 만큼 번역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문화 코드와 정서, 독자 수용도를 고려한 세심한 현지화 작업도 필수적이다. 류(Liu 2024: 348-349)에 따르면, 중국 웹소설의 수출에서도 번역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웹소설은 분량이 길고 번역 난도가 높아 관련 번역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AI 번역과 인간의 후편집 방식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및 CP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번역 지원”(60.4%)이었다. 1, 2순위를 합쳐도 “번역 지원”이 79.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지원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교육 제공”(49.1%), “해외 네트워크가 강한 기업과의 연계”(26.4%), “각색 지원”(20.8%), “파일럿 제작 지원”(15.1%)이었다. 즉, 수출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 각색과 파일럿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번역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수의 전자책 출판사를 포함한 결과에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업력에 따라 나는 결과다. 10년 이상 업체는 번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였으나, 5~10년은 78.1%, 5년 미만은 84.4%로, 10년 이상 업체도 번역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지만, 5년 미만 업체일수록, 즉 신생 업체일수록 번역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번역 지원의 필요성은 웹소설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번역 지원”이 1순위(52.9%)로 꼽혔으며(1, 2순위를 합친 결과는 77.9%), 성별, 연령, 경력, 장르, 매출액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이는 한국 웹소설이 글로벌 독자를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번역이며 번역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김자경과 김혜림(2021)은 한국 웹소설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

는 번역가 4명, 웹소설 수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웹소설 번역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는데, 인터뷰 결과에서도 한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번역의 난이도, 열악한 번역 환경도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으나 특히 번역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웹소설은 텍스트 기반 장르이며 연재 방식이므로 번역해야 할 분량이 많아 번역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단가와 품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웹소설은 기존 문학 장르와 다른 독특한 문체적 특징이 있고 가독성 있게 읽히면서도 장르적 특징과 현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 역시 번역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료 지원과 웹소설 번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감수 프로세스와 번역 작업 환경 개선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웹소설의 해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홍보자료 및 샘플 원고의 번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25개사 29종, 2025년에는 41개사 68종이 번역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약 40개사 내외의 출판사와 플랫폼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 웹소설 번역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24년 8월~12월 총 12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번역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가 산학 연계형 웹소설 번역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개 언어권(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으로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3. 국내 웹소설 번역과 AI의 활용

한국 웹소설 수출 지원을 위해 번역 비용 지원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 앞에 AI가 구원자 역할로 등판하고 있다. AI 웹소설 번역 앱도 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테일시(Talesy)는 안드로이드 기반 웹소설 번역 앱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쓰인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이전 회차의 대화와 사진, 인물 관계를 기억하여 일관성 있는 번역을 제공하고 프롬프트 설정, 배경과 관계 수정, 특정 단어 바꾸기 기능 등 독자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웹소설을 한국어로 바꿔주는 앱뿐만 아니라 한국어 웹소설

을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도 찾아볼 수 있다. Webnovels AI(<https://webnovelsai.com>)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쓰인 웹소설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로, 웹소설 번역에 특화된 기능을 갖춰 구글 번역보다 높은 번역 품질을 도출한다고 설명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기술을 선보이는 업계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마인드는 웹소설 기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AI 번역 솔루션 오로라(Aurora)를 활용하여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며, 작품 전반의 서사 흐름과 캐릭터 말투, 설정 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술을 통해 초벌 번역을 한 후에 전문 번역가의 검수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BeSUCCESS 2025). 메타크래프트는 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글로벌(Novelpia Global)의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인 2025년 12월 4일, 누적 조회수 6,800만 회를 기록하였으며, AI가 생성한 초벌 번역을 현지 독자가 장르와 문맥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번역 속도와 현지화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동아일보 2025). 2024년 9월 설립된 리베타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프로그램 트리니티(Trinity)를 개발하고 자체 개발한 AI 번역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글로벌 유통 플랫폼 오모픽션즈에서 AI 기반 번역 작품들을 공급하며(한경 2025), 스텔라앤은 웹소설 AI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고 2025년 3월에는 웹소설 플랫폼 투니즈(Toonyz)를 런칭하며 특허 출원을 받은 1억 토큰의 데이터셋이 학습된 AI 현지화 솔루션을 탑재하였다(중앙SUNDAY 2025). 인피닉션은 웹소설 특화 다중 에이전트 번역 시스템을 통해 번역 효율을 95% 이상 높이는 기술로 한국 웹소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25 KU IR Camp’ 데모데이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NewsWire 2025) 웹소설 AI 번역 기술을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토대로 넥스텝(NAACst Step) 7기 데모데이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Platum 2025).

AI를 활용한 웹소설 번역이 도입되며 AI 번역 결과물을 검수하기 위한 채용 공고도 하나둘씩 나오는 추세다. 인피닉션은 2025년 7월 영어 번역 검수 인턴, 9월 일본어 번역 검수 인턴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다. 담당 업무는 AI 번역 품질 제고로, 오역과 오류를 검수하고 문화적 뉘앙스를 살리며 글로벌 독자의 관점에서 번역물을 평가하고 AI 번역 엔진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대사항으로 탁월한 영어 실력, 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 번역 및 검수 경력,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에 관한 관심과 애정, 꼼꼼함, 책임감이 제시되었다. 2026

년 3월 기준, 보이스루는 AI를 활용한 영어 웹소설 번역물의 오류와 누락, 문맥 불일치를 수정하고 스타일가이드와 설정 기준에 맞춰 품질을 조정할 영어 번역 검수 프리랜서를 모집하며, 리베타는 AI 번역 QA 리드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주요 업무는 AI 번역물의 오역, 누락, 어색한 표현 교정, 원문 문체와 감정선의 자연스러운 전달 및 언어·문학적 완성도 검수, 작품별 스타일가이드 수립 및 운영, 안정적인 번역 품질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QA 프로세스 설계, 오류 패턴과 장르 특성에 따른 번역 난점 피드백, 프롬프트 최적화 및 번역 모델 개선이다. 자격 요건은 번역 역량, 여성향 웹소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소통 역량, 영어권 국가 6년 이상 거주 경험이며, 웹소설의 적극적 소비자, 번역·출판 실무 경험, 번역학 학위와 연구 경험, AI 번역툴 활용 경험이 우대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AI 결과물의 오류 수정 및 가독성 개선과 현지화 작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웹소설 수출에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4. AI 기반 웹소설 번역 연구

생성형 AI 등장 후 국내에서는 AI를 활용한 문학 텍스트의 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AI 문학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전통적 문학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웹툰과 웹소설 등 플랫폼 기반 디지털 서사 콘텐츠에서는 AI 번역 관련 논의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웹툰은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마승혜와 김순영 2021; Abid and Moon 2024), 웹소설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반면 중국에서는 웹소설의 AI 번역 논의가 활발한데, AI 번역 모델의 개발과 활용, 품질 평가, 팬 번역에서의 AI 활용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중국 웹소설의 인간 번역과 GPT-4 번역을 비교한 야오 외(Yao et al. 2025)는 어휘, 구문, 내용 측면에서 AI와 인간 번역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AI 번역의 잠재력을 크게 평가했다. 다만 모호한 문장 이해, 반복적 문장 구조, 고유명사의 과도한 음역, 다의어 번역 등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특히 원문의 미가 모호할 경우 번역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번역가와의 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외(Wu et al. 2024)는 LLM 기반의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해

웹소설 번역을 수행하였다. 5명의 에이전트(시니어 에디터, 주니어 에디터, 번역가, 현지화 전문가, 감수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일관성과 현지화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번역 비용을 95% 이상 낮추며 GPT보다 고품질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천 외(Chen et al. 2025)는 웹소설 번역에서 AI를 활용할 때 캐릭터 이름, 관계성, 세계관에서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소설 번역 특화 MTBERT-NMT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이 주로 웹소설 번역의 AI 활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반면, AI 활용의 한계에 무게가 실린 연구도 있다. 귀와 아미르다바기안(Guo and Amirdabbaghian 2025)은 중국 웹소설 번역에서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사자성어의 처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AI와 인간 번역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문학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옮기는 데 AI의 한계가 크고 인간 번역가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웹소설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큰 축을 이루는 한편, 팬 번역에서의 AI 활용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 웹소설은 팬이 기계번역을 활용해 번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며, 웹노벨은 2019년부터 AI 기반 웹소설 번역을 시작했고 독자가 직접 번역물을 수정하는 독자 참여형 모델을 활용한다(Mei 2019). 장(Zhang 2024)은 중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계번역의 폭넓은 활용 및 팬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팬 번역에 관심이 있는 언어 전공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추천했다.

이 연구들은 AI 번역 모델 개발과 결과물 평가,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으나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진 상태다. AI를 활용한 팬 번역도 비전문가 맥락의 논의이므로 웹소설 전문 번역가 양성 교육이 이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AI 기반 웹소설 번역을 진행하는 업체 관점에서 인간 역할과 필요 역량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 웹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업체 대표와 진행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¹⁾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 13일과 3월 17일에 약 두 시간 내외로, 각 업체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녹취 및 기록하였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터뷰는 모두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사전에 전달한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웹소설 번역에 특화된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게 된 계기
2. 일반 번역 모델과의 차이, 발전 방향
3. 웹소설 번역에서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4. AI 번역 기술의 발전이 한국 웹소설 수출, 유통 등에 미치는 영향
5. AI 기술 기반의 웹소설 번역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협업 방식
6. AI 번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 교정 및 중요성
7. AI 번역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번역가의 역할 변화
8. AI 번역·콘텐츠 기업이 기대하며 필요로 하는 역할, 직무, 역량
9. 외국어·번역 전공 학생들을 위한 조언, 또는 웹소설 번역 교육 관련 제언
10. AI 번역, 콘텐츠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직무, 인재 수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웹소설 특화 AI 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웹소설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 수가 소수인 데다 인터뷰 참여자가 업계와 학계의 상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번역가로서의 진로와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현실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풍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웹소설 번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된 배경, 활용 상황, 가능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번역 과정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한 업체는 익명을 요청한 관계로 기업명을 밝히지 않으며 다른 한 업체는 스텔라앤임을 밝힌다(이후 논의에서 업체 B는 스텔라앤).

6. 인터뷰 결과 분석

6.1. 웹소설 번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배경

AI 기술 도입 배경에 대해 두 업체는 웹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번역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AI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포화 시장에 해외로 진출하고 싶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그때 SNS를 하다 보니까 해외 팬들이 번역이 없어가지고, 뭐 불법으로 읽기도 하지만 불법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사가지고 자기들이 번역기를 돌려 읽는 모습을 보고, 아, 수요와 공급과 기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게.” [업체 A]

“웹소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금액, 사업적으로 봤을 때, ROI가 들어간 비용 대비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AI가 훨씬 더 품질이 낮았을 때인데 어떻게든 코퍼스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웹소설 번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진짜 좋은 웹소설 IP가 많거든요. 좋은 소설들이 많은데 해외로 나아가지 못하는 허들이 있었어요. 그게 번역의 장벽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드래프트 정도는 AI가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하자, 라는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B]

또한 AI 번역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웹툰은 그림을 보면서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 번역의 효율성이 더 크고, 물론 AI 성능과 데이터셋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디자인 요소가 없는 웹소설 번역에서 AI 번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 웹툰은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르게 번역을 하는 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이거는 그림을 보고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림까지 같이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으로는 하기에는 정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AI가 맥락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와 양질의 데이터셋이 잘 구축이 돼서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뭐 있겠죠, 하지만 쉽지가 않다, 특히 스타트업은 더 어렵다. 그래서 어설 뜨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진짜 훈련된, 숙련된 사람이 빠르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식사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쉽다는 건 아닌데 웹툰과 웹소설을 비교했을 때는 공수가 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디자인적 요소가 없고 텍스트만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좋은 품질이 나오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봐야 되는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이제 애는 텍스트만 있으니까.” [업체 B]

웹툰은 디자인 요소, 의성어와 의태어, 그림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사 단계에서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웹소설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AI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 향상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봤을 때 AI 번역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6.2. 웹소설 번역에서 AI 활용의 어려움

두 업체 모두 웹소설 번역에서 AI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었으나 AI 활용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은 문제임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다. 첫째, AI 번역물의 품질 문제다. AI를 활용할 때 문화적 뉘앙스, 감성적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때로는 환각,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 특유의 정서와 문화적 맥락이 담긴 표현 등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 이해가 필요한 표현은 AI가 직역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인간 개입이 빠질 수 없고(B사), 규칙화의 어려움, 불분명한 주어, 시점 처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A사).

“규칙화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커요. 예를 들면 기술 번역을 할 때 A는 무조건 A'로 번역이 되어야 되고 B는 무조건 B'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두운 숲이라는 장소가 나올 때 이 어두운 숲이 진짜 특정 지명을 가리키면 대문자로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어두운 숲을 의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소설에서. 이

게 규칙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변칙적인 게 많다는 게 정말 어려운 점이
고. 그리고 한국어 특징이 주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시점을 굉장히 다
양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읽어도 누가 주어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데 그럼 AI는 판단을 내릴 때, 근데 사람은 적어도 일관성 있게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AI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으면
사실 끝이 없어요.” [업체 A]

둘째, AI를 활용할 때 번역의 정확성과 유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AI가 웹소설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
이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 AI는 작품의 세계관, 저자 의도와 메시지에서 벗어나
지 않는 선에서 유연한 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번역에는 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보통 기계번역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 정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랑 유창성, 스타일을 쓰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정확도와 유창성은 상충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까지는 같이 추구할 수 있지만 너무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유창성이 떨어지고,
유창성을 많이 올리려면 사실 정확도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작가가 안 한 말도
넣어줘야 되고, 설명을 하려고. 작가가 한 말도 삭제해 과감하게 시켜야 되거든
요. 사용자가 읽을 때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AI는 전혀 그 판단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읽으면서 이 정도는 작가가 하려는 메시지
를 해치지 않고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더하고 뺄 수가 있는데, 저희는
AI의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맡겨둘 수가 없어서 아, 일단 정확
하게 하자. 근데 그러면서 유창성도 추구해야 돼. 근데 상황마다 판단 기준은 달
라져야 되기 때문에 AI한테 그거를 가르쳐주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봤을 때 AI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요.” [업체 A]

셋째, 웹소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번역 품질이 매우 중요하고 독자 몰입을
형성하려면 긴 서사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AI 활용 시
높은 품질의 번역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
다. 웹툰, 영상과 달리 웹소설은 몰입을 유지하려면 높은 품질의 번역이 필수적이
라는 점에서 강조된 의견이었다. A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길이 남았다”라고 판단했는데, “LLM이 편각
이 심하고, 파인튜닝보다 모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모델의 발전에 따라 번

역 기술이 늘 함께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의 측면에서는 계속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웹소설은 형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반적 소설의 형식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으며 신조어가 많이 들어가고 혁신을 추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품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웹소설 독자층의 성격상 AI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는 웹소설의 하위 장르나 목표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두 업체의 의견도 약간 달랐다. 우선 A사는 독자층의 반발을 크게 강조하였는데, 서브컬처 독자층의 경우 AI 번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었다.

“웹소설 번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인데 AI로 이제 기술은 1차적으로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유통과 마케팅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팔리는 거는. 누구든 이제 번역을 하거나 좋은 서비스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잘 파는 거는 여전히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중국 웹소설도 AI로 대량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BL 독자들은 마니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번역을 정말 싫어합니다.” [업체 A]

AI를 활용해 번역한다는 점을 밝힌 후 구독을 취소하는 독자들도 있었고, 중국도 무차별적으로 AI를 활용하기보다 콘텐츠와 품질을 고려해 선별적 접근을 하고 서브컬처 팬덤은 번역 품질에 대해 까다롭고 민감하다는 것이다.

“거기(중국)도 되게 선별적으로 번역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 있는 거, 유명한 작가들 거만 굉장히 선별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 양이 많아 보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 중국어, 영어 동시 화자가 너무 많아서 수월해 보이는 것뿐이지,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AI를 꺼리고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저하가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고 왜냐하면 웹소설은 아직까지 서양에서 대중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인데 웹소설이. 서양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의 웹소설 번역본을 보는 게 굉장히 서브컬처란 말이지요. 근데 서브컬처 팬덤들은 특징이 대중보다 간간하고 번역 퀄리티에도 간간하고 원작 뜻을 더 알고 싶어 하고 IP를 굉장히 깊게 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물책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보다도. 그리고 나오면 굿즈도 사야 되고 이런데. 그냥 대중 웹소설 매일매일 뭐 한국 독자처럼 일주일에도 세네편씩 보고 이러면 대량 소비를 하는 집단이면 뭐 사실 번역 퀄리티에 상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켄 몇몇 작품을 정말 깊게 파서 한국어로 된 드라마

CD까지 30만 원 쥐가면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역 퀄리티에 민감한 게 당연하고 AI에 반대를 너무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업체 A]

웹소설을 구매하는 서구권 독자는 윤리의식도 높고 인간 번역 대체에 대한 반감도 높아 웹소설 매출의 측면에서 인간 번역과 품질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B사는 AI 번역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AI 번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고 비용 부담은 큰 상황에서 AI 도입 없이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의 경우 웹노벨이 물론 일부 비판을 받지만, 물량 공세 속에서 이제는 많은 독자들이 어느 정도 품질 하락을 감내하며 AI 번역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글로벌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럼 돈을 많이 주든지. 그래서 제대로 하계끔 만들든지, 사람을 많이 붙이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도 부족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은 물량으로 승부할 거라고 밀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웹노블이라는 플랫폼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일부에서 욕먹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감안을 해버려요. 애네들이 올라오는 거는 이렇지만 물량도 많고 종수도 많고, 그래서 감안을 하고 봐. 이제 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업체 B]

6.3. AI 번역 환경에서 인간과의 협업

번역 비용 문제로 AI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AI 번역의 한계로, 두 업체 모두 웹소설 특화 AI 모델을 활용하여 번역물을 생성한 뒤 인간이 감수하는 형태로 최종 번역물을 도출하고 있다. A사의 프로세스는 [글로서리 초안 작성(AI)→글로서리 검토→초별 번역(AI)→1차 감수(AI)→수정→최종 검토]로 정리할 수 있는데, AI가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AI가 웹소설의 초별 번역뿐 아니라 글로서리 초안을 만들고, AI 번역물의 1차 감수를 진행하며 인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작업을 끝맺는 것은 인간으로, AI가 일차 생성한 글로서리를 인간이 확인하고, AI가 1차 번역과 감수까지 끝낸 결과물을 인간이 AI의 제안을 검토하며 재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항상 번역을 하면 글로서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로서리 초안은 AI가 만들더라도 사람이 검토를 하고요. 똑같은 단어도 작품에 따라 번역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단어장으로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초벌 번역이나 이런 것도 AI가 하는데 그다음에 좀 어색하거나 번역 티가 많이 난다, 너무 정확도만 추구한 문장이다 이런 거는 또 AI가 한 번 더 검수까지 해줘요. 그리고 사람 검수를 하고 이렇게 고쳐야겠다 생각까지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약간 헛갈리는 것들이 나와요. 사람이 이걸 한번 봐줘야겠는데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사람한테 맡기죠. 사람이 AI가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들을 보고 아, 여기는 AI가 그래서 A, B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A랑 B 중에 뭐가 더 고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A, B 중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면 사람이 그중에 골라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번 짹 읽고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 없는지 보고 이렇게 하고 출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또 아무래도 출판을 하고 나서도 독자들이 가끔 이런 게 좀 잘못됐다, 하면 그 부분을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루프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업체 A]

B사의 프로세스는 [원문 분석과 설계→초벌 번역(AI)→1차 수정(AI)→검수·현지화]로, 내부 인력이 작품 분석과 설계 작업을 진행한 후 AI를 활용해 초벌 번역을 진행한 뒤 다단계 검수 작업이 진행된다. AI 활용 전후 단계에서 사전 준비(용어집과 메인 캐릭터집 등 제작)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전 작업을 AI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A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AI가 초벌 번역과 1차 검수를 진행하고, 누락, 일관성, 용어 등 중요 부분을 수정하며, AI 번역과 수정이 끝난 후 원어민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문에 엮매이지 않고 최종 독자의 관점에서 흐름이 깨지지 않고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수정을 진행한다.

“제일 처음에 원문 분석을 해요. 어떤 장르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큰 설계를 하죠.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설계를 하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AI 웹소설 특화 번역 엔진을 활용해서 초고를 뽑아내요. 그다음에 IP가 되게 좋다고 했을 때는 원문 대조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 이게 다 비용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이 최종적으로 현지화 파트만 빠르게 집행을 해요. 그래서 AI 번역 엔진이 누락이나 일관성, 용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문제가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이 봤을 때 기준을... 엔드 유저, 그 독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독자는 원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번역사 개입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역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생략

하는 것도 있고, 고치는 것도 있고 약간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1:1 번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엔드 유저가 마지막에 봤을 때 전체 플로우로 봤을 때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약간의 생략이 있을 수도 있고 각색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선 어딘가까지는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허용하는 정도예요.” [업체 B]

즉, AI가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1차 번역하고 교정 작업까지 진행하며, 누락과 일관성 등 핵심 부분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인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품질 확보를 위해 AI 작업 전후 단계에서 인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수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4. AI 결과물의 품질 평가

A사는 AI 활용으로 품질 검수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AI는 캐릭터의 스펠링이나 성별을 바꾸는 등 심각한 오류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독자 몰입을 크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AI는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하는 실수를 해서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거나 갑자기 캐릭터의 스펠링을 아예 다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루이슨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제 L-O-U-I-S-O-N인데 S-E-N으로 하거나 갑자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부분부분. AI니까 한 번만 실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너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할법한 실수는 사실 정도가 경미해서 그렇게 몰입을 해치진 않거든요. 오타가 난다든지 그런 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 이러는데 성별이 틀리면 이거는 너무 성의 없게 보이잖아요, 글이. 그리고 AI가 실수한다 이러면, ‘이 글은 AI가 번역한 글입니다’ 이런 문장 자체를 아예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래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와는 다르게 못 거르면 독자의 몰입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고 번역에 대한 신뢰도를 너무 확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기는 뭐 한 번도 검수를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수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조차도 자동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AI는 번역보다는 평가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업체 A]

전체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인간과 달리, AI는 저자의 의도나 작품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AI를 통해 오류를 해결하거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사람은 이상한 부분을 찾는 게 되는데 AI는 이상한 부분을 찾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읽기 행위는 읽으면서 줄거리를 대충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아, 이런 흐름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기의, 인지적인 그런 게 모두 다 동반이 되는 행위잖아요.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근데 AI는 압축을 시킬 때 사람이랑 다르게 이진 중요하니까 빼먹으면 안 되는 정보다,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생략하고 컴팩트해도 되는 정보다 이걸 몰라가지고 컴팩트를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오류 자체를 집어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사람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 이거 이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애는, 작가가 의도한 부분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웹소설에서는 게임하는 웹소설이라서 상태창이 뜰 때도 많고 그럼 AI는 자기가 넣은 건지 작가가 넣은 건지 구분도 못하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사에서 비틀림 장치를 넣은 건지 자기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성에 비해서 그걸 AI로 잡아내는 건 사실 되게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오류를 다 잡고 하는 거를 없애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공장에서 빵을 100개를 찍어내면 2개만 맛봐도 ‘아, 이진 다 완성된 잘된 빵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번역에서 정말 잘 안되더라고요. 일부분만 봐서 잘됐다고 해서 절대 전체 퀄리티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A]

따라서 AI 결과물의 품질 평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B사는 품질 평가 과정에서 용어 일관성, 고유명사, 가독성을 집중적으로 수정하고, 최종 독자 관점에서 감수를 진행하고 작품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원작의 재미와 감정 충실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번역 품질 평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용어 일관성, 고유명사, 그리고 자연스러운 Fluency. 원어민이 읽었을 때 어색한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꼭 원어민 에디터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그거를 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유저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나는 웹 소설 좋아하는 유저다. 그리고 웹소설이라는 거는 문법 자체가 일반 소설, 정말 뭐 한강 작가님이 쓰신 그런 소설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의 기본도 많이 깨져 있고요. 재미 위주로 그 플로우적인, 그러니까 몰입도만은 깨지면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충실도, 독자에게 의도하는 긴장과 로맨스 코믹 요소 이렇게 번역본에 잘 녹아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업체 B]

두 업체 모두 AI 번역의 품질 평가와 교정 작업을 다단계로 진행하며, B사는 내부 전담 인원이 두 단계로 품질 확인 작업을 하며, 특히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모니터링을 담당할 Q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수자가 품질 확인 및 수정 작업을 마친 뒤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전담하는 별도 내부 인력이 있다는 의미다. A사도 내부 감수자가 최종 수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며 “영어를 잘하는” 정도로는 AI 번역 결과물에서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없기에 다년간의 해외 거주 경험 및 장르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5. 감수자의 기대 역량

AI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 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두 업체 모두 내부 감수자를 활용하며 감수자의 역량을 강조했다. A 업체의 경우 감수자는 번역 경험보다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며, 원문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반응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이었으며, 따라서 감수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해외 거주 경험과 문화적 차이의 이해도였다.

“AI가 정말 많은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번역 경험보다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할 때는 게임 말투를 더 실감 나게 구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적절한 번역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좋은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더 트렌드에 맞는 번역을 추구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AI가 이미 1차적으로 글쓰기를 다 해주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수정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 이거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대거나 아니면 말투에서 조금 더 뭐가 해외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는데 라는 거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데서, 국내파인데 번역을 정말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해외에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번역 경험은 좀 적을지라도. 물론 번역 경험도 많고 해외에서 많이 살던 사람이 베스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어 여부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못하면 웹소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독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현지에서, 요즘의 인터넷 텍스트에 뭐가 더 적합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업체 A]

AI를 활용해 일차 번역 작업이 되었으므로 번역 교육을 받은 인력보다 문화적 맥락에서 어색한 표현을 파악하고 웹소설 독자의 감각과 유행 등을 이해하고 섬세하게 고쳐 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웹소설은 신조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예를 들면 “두쫌꾸”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현지 감성에 맞춰 바꿀 수 있는 감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사도 정규 번역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언어적 역량이 약간 부족하거나 번역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웹소설 장르 이해도와 애정이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견이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과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스토리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웹소설 번역에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이야기 전개 흐름과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웹소설에 대한 애정이 깔려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대 나온 친구들은 번역 요율이 높아요. 그런데 웹소설 번역은 그만큼 줄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살짝 약하더라도 웹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훨씬 잘 해요. 웹소설 번역을 잘할거면 웹소설을 좋아해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플로우가 있어야 돼. 그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번역할 때도 그 스토리대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원문 대조해요. 근데 웹소설은 원문 대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웹소설 번역을 잘한다 그러면 영어가 좀 약하더라도 그 웹소설을 진짜 좋아해야 돼요.” [업체 B]

업체에서 감수자 채용 시 번역 교육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번역 결과물이 나온 상태이므로, 언어 전환 능력보다 웹소설 장르 이해, 현지화, 작문, 편집 능력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B시는 우씨아월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 팬들이 번역했고 언어적으로 아쉬운 지점이 있더라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인 만큼, 원문을 충실하게 옮기는 데 그치는 번역가가 아니라 웹소설 장르에 특화된 전문가, 즉 원작이 가진 세계관, 재미와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6. 향후 필요한 번역가의 역할

AI 번역 모델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웹소설 번역가 양성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도 있었다. 웹소설 번역은 AI 도입 전에는 비용 부담으로 거의 손대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AI 기술로 한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지고 일정 규모로 형성되면, AI 한계와 번역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번역 시장이 커지며 실력 있는 웹소설 번역가의 필요성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었다.

“AI로 번역 작업이 대체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웹소설은 사실 AI가 있기 전까지 웹소설 번역가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뛰어들 생각 자체를 안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AI로 인해서 한국 웹소설 시장이 만약에 커지면 분명히 독자들 중에서는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회사들도 이걸 났을 때 수익이 이 정도 나오면 비용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도들이 웹소설 번역가나 QC의 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 대체는 어렵기도 하고, 결국은 거의 수요 없던 분야에서 새로 생기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웹소설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업체 A]

AI 환경에서 향후 필요한 역할로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력 있는 웹소설 번역가이다. 두 업체 모두 ‘타입터’ 번역가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고,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할 만큼 실력 있고 독자 선택

을 받을 수 있는 번역가는 계속 필요하며, 한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진다면 그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 경우 실력 있는 번역가란, 원문의 언어적 요소를 충실히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문에서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8점이라 했을 때 번역본도 8점이 될 수 있도록”(업체 B) 만드는 번역가를 의미하며, 해당 콘텐츠 및 장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번역작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AI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AI 번역 결과물을 전략적으로 수정 가능한 AI 번역 품질관리 전문가다. AI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AI 에이전트까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좋다는 의견이었다. 즉, AI 결과물을 원문과 비교 대조하여 수정하는 단순 작업에 그치지 않고,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품질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AI 모델 개발을 위해 고품질 언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정제하며 레이블링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문화적 뉘앙스를 깊이 이해하고 맛깔나게 옮길 수 있으며, 현지 독자 관점에서 섬세하게 문제를 짚어내고 수정 가능한 현지화 전문가다. 웹소설 번역에서 현지화 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기대라 할 수 있으나 추가로 제안된 흥미로운 의견은,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에 대한 수요였다. 즉, 멀티모달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함께 살펴보고 콘텐츠의 관점에서 최종 QA를 진행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춰 현지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언어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사와 배경의 어울림까지 고려하며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인재,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현지화까지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솟폼, 애니메이션까지 아우르는 현지화 전문가.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전체를 보고 큐레이션을 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솟폼 부분을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데 북미 타깃이에요. 그럼 북미 타깃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만들었을 때 이 언어가, 이 그림과 잘 물어나오나, 이런 부분.” [업체 B]

넷째, 전체 번역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즉 PM 역할을 할 수 있는 번역가이다. AI 번역 과정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며 조율할 수 있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잘 영어로 옮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뭔가를 바꿔가면서 주도해 가면서 결국 독자에게 가닿는 출간물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게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번역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번역가와 출판사의 조그만 상호작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에 가까운 저자와 번역가와 출판가,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근데 AI 출판의 시대가 다가오면 대량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량 출판의 시대가 왔을 때 번역의 질을 높인다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에서 출판과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퀄리티가 잘 나오게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 A]

다양한 웹소설을 대상으로 글로서리를 제작·검토하며 AI 번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오류 해결과 품질 확인을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번역, 독자와 장르적 특징, 제작 과정 등 전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외 거주 경험 외에도 글로서리 제작, 번역과 감수, 현지화 작업까지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B사도 강조하였는데, AI 번역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보고 설계와 기획,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중요성은 향후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7. 나가는 말

본고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활용하는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체 관점에서 AI 활용 배경과 가능성, 한계를 살펴보고 AI와 인간의 협업 및 감수자의 필요 역량, 향후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AI 도입 배경으로 한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림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웹툰에 비해 텍스트 기반의 웹소설은 AI 활용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웹소설은 번역 품질

의 중요성이 크지만, AI 결과물을 활용할 때 안정적 품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초벌 번역과 1차 감수까지 진행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진행하는 형태로 작업하며, AI는 독자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어 인간의 품질 평가와 수정 작업이 빠질 수 없고, 작품 몰입도와 감정 충실도, 현지화를 고려해 철저한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I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부 감수자를 채용하며 감수자에게는 문화적 뉘앙스와 장르 이해, 현지화 역량이 요구되었다. 향후 번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로는 실력 있는 웹소설 전문 번역가, AI 번역 품질관리 전문가,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 번역 프로젝트 관리자가 제시되었다.

물론 이는 소규모 인터뷰 결과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향후 더 많은 업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업체 외에도 감수자와 번역자 등 다양한 실무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 앞에서도 웹소설 번역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I 번역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인간의 역할이 빠질 수 없으며, 웹소설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품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번역 가능’ 수준을 넘어서 독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즉 ‘팔릴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AI 결과물의 검토와 수정의 중요성이 큰 만큼 감수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추세이지만 번역 전공자에 대한 선호도는 크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시장의 요구, 보수적 구조적 간극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번역 교육이 아니라 웹소설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르적 이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현지화 역량, 가독성 제고를 위한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AI 번역의 이해와 감수 역량, 웹소설 IP 확장성을 고려한 멀티모달 콘텐츠의 이해와 전환 역량,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에 기반한 실무 참여형 번역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정보라 작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외국 젊은 독자들이 한국 웹소설을 열정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현지에서 많이 접했다”며 “한국 문학이 꾸준히 외국으로 진출하려면 웹툰·웹소설 같은 대중적인 장르를 더 많이 번역해 소개해야” 한다는 의견

을 피력했다(이데일리 2025). 한국 웹소설의 번역은 한국 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저변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웹소설 번역 교육을 위한 학계와 업계,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자경·김혜림. (2021). 「한국 웹소설 번역의 어려움 탐색: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6.
- 마승혜·김순영. (2021). 「웹툰 한영 번역양상 및 멀티모달 기계번역(MMT) 활용 가능성 모색: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03-124.
- 박성준. (2024). 「AI를 활용한 웹소설 창작의 현재와 미래- AI 웹소설 창작 플랫폼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32: 199-24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Abid, F. and Moon, J. (2024).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for automatic translation of Korean webtoon into foreign language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235-252.
- Chen, J. and Li, C. (2025). Context-Aware Neural Machine Translation for Web Novel Serialization: A Multi-Task BERT-Based Approach for Long-Form Narrative Consistency. In *2025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ISCIPT)*. IEEE, 586-590.
- Guo, L. and Amirdabbaghian, A. (2025). Exploring the translation of idioms by AI in Chinese internet literature. In Aquad, A. and M. H. (eds.), *Role of AI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GI Global, 293-326.
- Liu, B. (2024). An analysis of the overseas dissemination phenomenon and strategy of Chinese Internet literature.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s* 1(2): 345-352.
- Mei, S. (2019). China Literature and Caiyun Technology jointly launch the AI translation works to accelerate exportation [阅文与彩云科技合作上线 AI翻译作品 加速出海步伐], Tech 163. Retrieved from <https://tech.163.com/19/1225/11/F186PC3L00097U7R>(2026.4.1.검색).
- Wu, M., Xu, J. and Wang, L. (2024). TransAgents: Build your translation company with language agents. In *Proceedings of the 202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 Demonstrations, 131-141.
- Yao, X., Kang, Y. B. and McCosker, A. (2025). Missing the human touch? A computational stylometric analysis of GPT-4 translations of online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Spaces*. Retrieved from <https://arxiv.org/abs/2506.13013>(2026.4.1.검색).
- Zhang, S. (2024). Machine translation of Chinese fantasy (Xianxia) novels: An investigation into the leading websites translating Chinese internet literature into English. In Rothwell, A., Way, A. and Youdale, R. (eds.), *Computer-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42-157.
- [인터넷 자료]
- 동아일보. (2025). 노벨피아 글로벌, AI 번역 기반 운영 성과... 가입자 7만 명 도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205/132908693/1>(2026.4.1.검색).
- 이데일리. (2025). 한국문학, 장르·언어 관계 없이 더 많이 번역돼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3926642332920&mediaCodeNo=257>(2026.4.1.검색).

- 중앙SUNDAY. (2025). 스텔라엔, 웹소설 기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투니즈'로 구글플레이 창
구 프로그램 7기 선정. <https://v.daum.net/v/ym7QFvHEIV?f=p>(2026.4.1.검색).
- 한경. (2025). [2025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CEO] AI 기반 K-웹소설 번역 및 유통 플랫폼
개발한 스타트업 '리베타'.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510316999d>(2026.4.1.검색).
- AI라이프경제. (2025). [AI 프리즘] 출판사의 인공지능 번역 실험 강행... 번역가들 “문학은 기계가 할
수 없다”
<https://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53>(2026.4.1.검색).
- BeSUCCESS. (2025). 하이브마인드, AI 솔루션 '오로라'로 일본 시장 진출...한국 웹소설 번역·현지
화 사업 본격화. <https://besuccess.com/?p=177878>(2026.4.1.검색).
- NewsWire. (2025). 건국대 캠퍼스타운 'KU IR Camp 데모데이' 성황리 종료.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5385>(2026.4.1.검색).
- Platum. (2025). 서울대 학생 주도 액셀러레이터 스넥, '넥스텝' 7기 데모데이 성료.
<https://platum.kr/archives/261373>(2026.4.1.검색).
- Sixth Tone. (2025) AI Translation Is Helping Chinese Literature Go Global.
<https://www.sixthtone.com/news/1017094>(2026.4.1.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

vandi98@naver.com

About the author

Jagyeong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Seou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탈식민적 성취인가, 상업적 자국화인가 - *Human Acts*의 선택적 이국화에 투영된 자국화 번역 전략 -

이지민* · 마승혜**

Jimin Lee and Seunghye Mah (2026). Postcolonial Accomplishment or Commercial Appropriation: The Strategy of Domestication Embedded in the Selective Foreignization of Human Acts. This study critically re-examines Human Acts, the English translation of Han Kang's Sonyeoni Onda, by empirically testing the propositions advanced in prior scholarship through an exhaustive source-target comparison. The analysis reveals a potent strategy of selective foreignization at work beneath the rhetoric of postcolonial representation, which is shaped by the commercial distribution structures of world literature. While the translation constructs a veneer of locality by retaining proper nouns and certain cultural markers, it systematically flattens the experimental narrative and the historical-political context of the source text through deletion, compression, explicitation, and renaming. Notably, the strategies that prior studies identified as consistent principles of foreignization are shown to be applied selectively and inconsistently.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forced choices and aesthetic compromises that translation confronts with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world literature distribu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Korea)

Keywords: Postcolonial translation, selective foreignization, domestication, literary translation, *Human Acts*

주제어: 탈식민주의 번역, 선택적 이국화, 자국화, 문학번역, 『소년이 온다』

* 경상국립대학교, 제1저자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신저자

1. 서론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폭력과 기억의 윤리를 다루며 한국 현대문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표징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의 영어 번역본인 *Human Acts*(2016)는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다수의 문학상 후보로 올랐고, 작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매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평적 성공의 이면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첨예한 논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의 한 축은 결텍스트(paratext)와 이탤릭체의 전략적 활용을 근거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서구 중심적 문학장의 질서에 균열을 낸 탈식민적 성취임을 강조한다(조의연과 조숙희 2017; Yoon 2021). 윤(Yoon 2021)은 *Human Acts*가 문화 특정적 요소를 보존하는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과 역사적 맥락을 보장하는 결텍스트를 통해 문화 제국주의에 저항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다른 한 축에서는 번역가가 원전 특유의 정치적 급진성과 미학적 전복성을 거세하고, 서구 독자의 수용성에 맞춘 상업적 자국화(domestication)를 꾀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김대중 2021; Pak 2020).¹⁾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립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Human Acts*가 상업적 글로벌화의 요구와 부분적 이국화 전략이 결합된 전략적 독자 친화 번역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1) 특히 본고는 기존 논의가 번역의 성패와 주체를 데보라 스미스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해 왔던 관점을 지양한다.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국제 인문포럼에서 데보라 스미스가 직접 밝혔듯(이지민 2018b), 영미권 출판 시장에서 편집자는 결말까지 수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번역은 작가, 번역가, 편집자 간의 복합적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번역가라는 용어는 개인을 넘어, 글로벌 자본의 논리와 편집 권력이 개입된 확장된 번역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만 이때의 ‘확장된 번역 주체’는 번역가 개념을 규정하는 분석적·개념적 층위의 설정이며, 출판사·에이전트·편집자 등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개입 양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 후속 과제로 남긴다(5장 참조).

2. 선행연구 검토

2.1. 식민주의·탈식민주의와 번역의 정치학

번역은 결코 중립적 언어 전이가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실천이다. 니란자나(Niranjana 1992: 2)는 식민주의 통치하에서 번역이 피식민 문화의 표상을 고정하고 서구 중심적 지식 체계를 재생산한 방식을 분석하면서 번역을 “식민주의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실천(Translation as a practice shapes, and takes shape within, the asymmetrical relations of power that operate under colonialism)”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통찰을 통하면 비서구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될 때 작동하는 위계적 권력의 문제가 학문의 중심이 된다.

스피박(Spivak 1993)은 서구 중심 번역 관행이 제3세계 텍스트의 고유한 결을 훼손하는 양상을 분석하며, 이를 ‘번역주의(translationese)’라는 개념으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제3세계의 이질적인 목소리가 서구의 표준적이고 유창한 영어 문체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지닌 수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마찰은 필연적으로 삭제된다. 이러한 번역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층위를 지닌 타자들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서구 독자가 수용하기 용이한 가공된 타자성을 생산하는 신식민주의적 폭력을 내포한다. 이에 스피박(1993: 183)은 번역가가 원문의 논리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원어의 구조와 한계에 굴복할 것을 제안한다.²⁾ 이는 타자의 목소리가 지닌 생경함과 고유한 문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번역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티모츠코(Tymoczko 1999, 2007)는 번역의 필연적인 선택성에 주목하여 이를 ‘부분적 재현(partial representation)’과 ‘제유(metonymy)’의 관점에서 이론화한다. 그는 번역가가 원문의 방대한 문화적 정보를 온전히 전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특정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재현할 수밖에

2) “...the translator must surrender to the text. She must solicit the text to show the limits of its language, because that rhetorical aspect will point at the silence of the absolute fraying of language that the text wards off, in its special manner(번역가는 텍스트에 굴복해야 한다. 번역가는 텍스트가 스스로 그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가 특별한 방식으로 언어가 완전히 해체되고 침묵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고, 텍스트의 수사적 표현은 바로 그 침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Spivak 1993: 183).

에 없음을 역설한다. 이때 번역가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기제는 그가 처한 사회적·정치적 좌표인 ‘위치성(positionality)’이다. 식민주의적 위계 하에서 지배 권력은 피식민 문화의 특정 파편만을 제유적으로 부각하여 그 열등함을 공고히 하는 재현의 정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번역가는 자신의 위치성을 자각하고 전략적인 ‘부분적 재현’을 실행함으로써 지배 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다. 티목즈코(2007: 189, 216-217)에게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복제를 넘어 번역가의 ‘행위 주체성(agency)’이 발현되는 정치적 실천이며, 이를 통해 피지배 문화에 권력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empowerment)’의 수단이 된다.

탈식민주의 번역의 핵심 전략은 주변부 언어로 쓰인 원작이 패권 언어인 영어로 전이될 때, 원문의 언어적·문화적 고유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 있다(Bassnett and Trivedi 1999: 13). 이러한 탈식민주의 번역 이론은 베누티(Venuti 2008)의 이국화와 자국화 개념을 통해 번역 차원에서 구체화된다. 베누티(2008: 16)는 영미권의 출판 관행이 투명성의 환상에 기초한 자국화 번역을 지배적 규범으로 제도화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번역가를 비가시화하고 원천 문화의 차이를 영어 독자의 인지 관습 안으로 흡수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그는 이국화 번역을 제안하는데, 이는 영어권의 패권 국가들과 그들이 자국 외부의 타자들과 맺는 불평등한 문화적 교환에 맞서는 전략적 문화 개입이며,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주의, 문화적 자아 도취,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베누티(2008)는 이국화가 어디까지나 영어 출판 시장 내부에서 수행되는 전략임을 명시하면서, 그것이 시장 외부에서 작동하는 절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의 의도적·국지적 균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국화의 존재 자체가 곧 탈식민적 윤리의 성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어떤 규모로 어떤 자국화 기제와 결합되어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정치적 효과가 달라진다.

2.2. 『소년이 온다』 영역본에 관한 선행 연구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탈식민적 재현, 미학적·정보적 조정, 그리고 문화적·정치적 왜곡이라는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비판적 재검토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첫 번째 갈래, 즉 *Human Acts*를 탈식민적 재현의 성취로 규정한 논의(Yoon 2021; 조의연과 조숙희 2016, 2017)이다. 나머지 두 갈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다. 미학적·정보적 조정 연구는 번역에 나타난 조정·삭제 양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적·정치적 왜곡 연구는 본 연구의 비판적 관점을 공유하는 선행 논의로 각각 활용된다.

우선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탈식민적 재현의 성취로 규정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윤(2021)은 데보라 스미스가 서문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작가의 역사 해석 방식을 상세히 해설하며 독자의 이해를 도운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옥(hanok)’, ‘언니(onni)’, ‘선생(seonsaeng)’과 같은 한국어 호칭 및 문화 특정적 어휘를 음차하여 이탤릭체로 표기하거나, 한국 고유의 나이 체계를 텍스트 내에 고수하는 등의 선택을 탈식민적 번역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고유성을 원형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서구 중심적인 문화 제국주의에 균열을 내며, 패권 언어인 영어와의 불평등한 교류 구조에 저항하는 이국화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의연과 조숙희(2016, 2017)는 이탤릭체의 문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데보라 스미스가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장함으로써 등장인물의 내밀한 고통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번역 전략을 미학적 문체 구현과 정보의 선별적 조정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신상범(2020)은 데보라 스미스가 원문의 미학적 충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정보량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정했으며, 이를 원작에 대한 예술적 재구성으로 규정했다. 이지민(2018a) 또한 데보라 스미스가 정보성을 제어함으로써 서구 독자의 플롯 이해도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윤미선과 박건영(2019)은 독자 수용 측면에서 번역가가 문장 길이를 조절하고 본문 내 설명을 삽입하여 모호성을 제거한 전략이 가독성을 향상시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음을 확인했다. 윤선경(2024)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한국 문화와 영미권 문화 간 차이를 타협하면서도 원문의 시적 문학성을 새로운 영어 독자를 위해 재창조한 독립적 문학 작품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조정·변형·삭제의 광범위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지닌 정치적 희석과 상업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김대중(2021)은 데보라 스미스가 원작이 지닌 미적 총체성과 그 안에 내재된 혼란을 없애고, 광주의 구체적 역사성을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탐구라는 추상적 틀로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전향성을 약화시켰다고 비

판한다. 박(Pak 2020)은 한강의 *Human Acts*를 트라우마 번역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한강이 원문에서 구축한 주체성의 모호함, 폭력 앞의 세계 균열, 그리고 증언 가능성의 윤리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Human Acts*가 결텍스트를 통한 역사적 사실 보완과 이국화 전략을 통해 탈식민적 저항을 일관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텍스트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아가 해당 작품이 탈식민주의 번역의 대표성을 온전히 획득했는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작품을 둘러싼 제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Human Acts*는 순수한 탈식민적 저항의 산물이라기보다 이질감 없는 번역을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층(신지선과 조혜진 2018)의 기대를 반영한 상업적 번역의 결과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선행 연구가 탈식민주의 번역 사례로 규정한 지점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러한 번역 전략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번역가의 의식적인 개입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Human Acts*에 나타난 자국화 번역 기제

본 절의 분석은 선행연구가 *Human Acts*의 탈식민적 번역 또는 이국화 전략의 근거로 제시한 논의를 원문-번역문 대조를 통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절차는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를 명제 단위로 추출하고, (2) 해당 전략이 텍스트 전반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검증한 뒤, (3) 불일치가 관찰된 지점을 새로운 분석 단위로 재구성하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일례로 ‘선생’ 호칭의 경우, 원문의 전체 용례(22회)를 전수 추출하여 번역문의 처리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가 일관된 번역 원리로 제시했던 전략들의 실제 적용 양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상반된 관점을 직접 대질(對質)시키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즉, 윤(2021)이 탈식민적 재현 또는 이국화의 근거로 제시한 개별 명제들을, 김대중(2021), 박(2020)이 제기한 상

업적 자국화 비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 드러나는 (비)일관성을 베누티(2008)의 ‘시장 내적 전략으로서의 이국화’ 및 티목즈코(1999, 2007)의 ‘부분적 재현·위치성’ 개념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이때 각 분석 절은 선행연구의 특정 명제에 일대일로 대응한다. 즉, 결텍스트를 통한 역사적 맥락의 프레이밍(조의연과 조숙희 2016, 2017; Yoon 2021)은 3.1에서 살펴보고, ‘선생(seonsaeng)’과 같은 호칭의 음차(Yoon 2021)는 3.2에서, 실험적 서사 및 미세 묘사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3.3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장 제목의 처리 방식은 3.4에서, 한국 고유의 나이·층수 등 수치 체계의 조정(Yoon 2021)은 3.5에서, 마지막으로 ‘무궁화꽃’ 등 문화특정 표현의 축어역(Yoon 2021)은 3.6에서 각각 전수조사를 통해 검증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일관된 원리’로 제시한 명제가 실제 텍스트에서 어떻게 (비)일관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분석 단위로 재구성한다.

3.1. 결텍스트의 프레이밍

데보라 스미스는 서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며, 이를 ‘안티고네(Antigone)’나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등 서구권 독자에게 친숙한 신화 및 사건에 비유한다. 이러한 결텍스트는 정보적 측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듯 보이지만, 실상 수용자의 해석 지평을 특정 프레임으로 선제 규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광주의 희생자를 안티고네의 시신에 병치하는 해석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서구 고전 비극의 문법으로 재구성하는 프레이밍이다. 이 비유는 국가법과 개인 양심의 충돌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부각하는 대신, 수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무장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정치적 봉기로서의 성격을 탈색시킨다. 나아가 군사정권을 계획적 학살을 자행한 국가 권력이 아닌, 오판에 빠진 비극적 군주로 치환하여 인식하게 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1972년 북아일랜드의 ‘피의 일요일’과의 비교 역시 광주의 역사성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전자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의 종파적·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단발성 대량 총격 사건이었다면, 1980년 광주는 열흘 이상 지속된 범시민적 반독재 저항운동이자 무장 자치가 실현된 거대 서사였다. 국가 폭력이라는 모티프는 공유할지언정 그 목적과 규모, 지속성 면에서 결을 달리하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는 것은 낯선 타자의 역사를 서구 독자의 인지 범위 내로 편입시키려는 자국화

전략의 산물이다. 이는 스피박(1988)이 경고했듯, 서발턴(subaltern)의 외마디 비명을 지배적 재현 체계 속으로 매개하여 그 고유한 정치성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가깝다. 즉, 보편성을 빙자하여 서구적 참조 틀로 편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단어 삭제 및 재명명

번역문에는 ‘taegeukgi(태극기)’, ‘pyeong(평)’, ‘onni(언니)’와 같은 한국어 고유어가 간헐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맥락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환원된다. 윤(2021)이 이국화의 사례로 꼽은 ‘seonsaeng(선생)’의 경우, 본 연구자의 전수 조사 결과 원문에서 호칭으로 사용된 22회 중 단 1회만 음차되었을 뿐, 나머지는 ‘sir’, ‘professor’, ‘miss’ 등으로 번역되거나 생략되었다.

특히 여성 화자인 임선주만을 ‘Miss Lim’으로 번역한 것은 원문이 지닌 수평적 동료 의식을 지우고 오히려 가부장적 위계를 투사한 결과이다. 만약 이것이 한국어의 위계적 의미를 보존하려는 탈식민적 전략이었다면 ‘선생’이라는 호칭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그 맥락을 설명하는 주석적 개입이 뒤따랐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국화는 텍스트 전반을 관통하는 번역 원리라기보다, 독자에게 외국 문학이라는 안전한 이국적 정취만을 제공하는 상징적 증표이자 마케팅적 표식으로 기능한다. 이는 수용 문화의 기대에 부응하여 특정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배제한다는 티목즈코(1999)의 관점과 일치하며, 번역가가 시장 논리에 철저히 영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Human Acts*의 선택적 이국화 전략은 표면적으로 현지성을 전시한 상업적 자국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Human Acts*에서는 어휘, 문장, 나아가 텍스트 층위 전반에서 원문의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양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이는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려는 전략이나, 결과적으로 원문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지명 및 공간을 비가시화하고 개작하여 문화적으로 채색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번역문에서는 광주항쟁의 상징적 공간인 ‘금남로’를 비롯하여 ‘충훈동’, ‘삼각동’ 등 구체적 지명이 모두 탈락한다. 반면 ‘한옥(hanok)’과 같이 서구 독자가 직관적으로 한국적 이국성을 느낄 수 있는 어휘는 선택적으로 보존되거나 오히려 강조된다.

[사례 1]

ST: 중흥동 집 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복덕방에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D중학교 선생이라고 하니까 집사는 사람이 활짝 반가워 하더라고. (p.193)

TT: When we sold the hanok and moved, I introduced myself to the new buyer as a teacher at D middle school; the man was really glad to meet me,... (p.202)

[사례 1]에서 원문의 ‘중흥동 집’이 ‘hanok’으로 번역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명을 지우는 대신,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선호하는 시각적 기표로 대체함으로써 공간의 역사성을 문화적 풍경으로 치환한 결과다.

다음, 계급적 함의를 삭제하여 중산층적으로 평탄화하였다. 한국 고유의 노동 문화를 내포한 공간 및 사물 역시 영미권 중산층의 기표로 치환되며 맥락적 왜곡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례 2]의 ‘함바집’과 [사례 3]의 ‘반찬통’의 번역이다.

[사례 2]

ST: 윤 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 (pp.72-73)

TT: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e by the junction. (p.77)

ST의 ‘함바집’은 건설 현장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 현장 인근의 허름한 식당을 의미하며, 1980년대 한국의 노동·서민적 정서를 강하게 환기한다. 이를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지닌 ‘cafe’로 일반화한 것은 공간이 지닌 계급적 감각을 삭제한 전형적인 자국화 기법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찬통’의 번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3]

ST: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p.129)

TT: I scooped some stir-fried anchovies out of a Tupperware container and onto a plate... (p.135)

[사례 3]을 살펴보면, 영어권 독자에게 ‘Tupperware’는 1950~70년대 서구 교외 중산층의 정돈된 부엌과 깔끔한 가공 방식이 결합된 상징적 기표다(Vincent 2003).

원문에는 없는 이 구체적 브랜드명의 삽입은 독자로 하여금 1980년 광주의 절박한 서민 가정의 풍경 대신, 미국의 안락한 중산층 가정을 연상케 한다. 이는 당시 한국의 지리적·계층적 특수성을 약화시키며 독해의 문턱을 낮추는 ‘자국화적 평탄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반찬통’은 남은 음식을 다시 보관하고 꺼내 먹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적 식문화를 내포하지만, 이를 ‘Tupperware’라는 수입 브랜드 용기로 명명함으로써 원문이 지닌 생활 양식의 고유성을 서구적 소비 문화의 틀 안으로 포섭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명명은 독자에게 안전하고 익숙한 타자성만을 제공할 뿐, 원작이 대면하게 하는 당대 한국 사회의 처절한 현실성을 무력화한다.

3.3. 문장 및 단락 삭제

감각과 심리의 미세한 결을 구축하는 묘사(예: 안경에 서리는 김, 몸의 어른거림 등)나, 정대의 혼령 서사(2장)와 같은 실험적 기법들은 아래 [사례 4]처럼 번역 과정에서 대폭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사례 4]

ST: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스름이 내리자 새들이 울음을 그쳤어.

낮에 울던 풀벌레들보다 가냘픈 소리를 내는 밤의 풀벌레들이 날개를 떨기 시작했어.

완전히 어두워지자,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닿아왔어.

어른어른 서로의 언저리를 어루만지다 우리는 흠어들었다.

어쩌면 우린 낮 동안 피약별 아래 꿈쩍 않고 머무르며 비슷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았어.

밤이 되어서야 몸의 자력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나올 힘을 얻은 것 같았어. 그들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졌고, 서로를 알고 싶어했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두 번의 쇠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랐다. (p.52)

TT: Why did you kill my sister, what did you do to her?

The metal screech of the iron gate opening and then closing sliced through the silence of the night. (p.56)

그 외에도 박 양에 관한 일화(3장)나 광주 진압의 잔혹성을 다룬 대화(6장)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이러한 삭제의 누적은 원문이 의도한 정동적 여운과 폭력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약화시킨다. 또한, 이는 원문의 특징인 혼란, 비가시성, 과편화의 미학을 휘발시키고 ‘사건-원인-결과’라는 선형적 인과관계를 강화하여 독자의 편의적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본문에서 독자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수행된 삭제와 명시화는 티목츠코(1999)가 지적한 ‘부분적 재현(partial representation)’의 전형이다. 즉, 번역가가 특정 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원문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것이다. 나아가 서사 전개에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제거된 요소들은 사실 해당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결(texture)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때 제거된 요소들—감각 심리의 미세한 묘사, 정대의 혼령 서사, 과편화된 비선형 구성—은 부수적 장식이 아니라 원문이 5·18의 집합적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바로 그 형식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축약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 생성 방식 자체를 평탄화하는 것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지나치게 매끄럽게 다듬는 행위는 스피박(1993)이 비판한 ‘번역주의’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이 지닌 거친 타자성을 삭제하여 서구 시장에서 소비되기 용이한 매끄러운 상품으로 가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2020) 또한 이러한 삭제와 명시화가 한강의 원문이 구축한 주체성의 모호함과 트라우마의 비가시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3.4. 제목과 장 제목의 재명명과 탈맥락화

원작 『소년이 온다』 각 장의 시적인 제목(『어린 새』, 『검은 숨』, 『알곡 개의 뺨』 등)은 번역본에서 ‘인물/역할+연도’ 체계(『The Boy, 1980』, 『The Editor, 1985』, 『The Boy’s Mother, 2010』 등)로 재명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일종의 친절한 안내판으로 기능하며 서사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표 1. 원작과 번역본의 장 제목

	ST	TT
1 장	어린 새	The Boy, 1980
2 장	검은 숲	The Boy's Friend, 1980
3 장	일곱 개의 뺨	The Editor, 1985
4 장	쇠와 피	The Prisoner, 1990
5 장	밤의 눈동자	The Factory Girl, 2002
6 장	꽃 핀 쪽으로	The Boy's Mother, 2010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The Writer, 2013

그러나 이러한 명시화 전략은 원작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미적 장치들을 희생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3장의 경우, 원작 제목(‘일곱 개의 뺨’)과 달리 번역본 제목(‘The Editor, 1985’)은 첫 문장에서부터 편집자의 정체를 즉각 노출하며, 6장 역시 번역본에서 장 제목(‘The Boy’s Mother, 2010’)을 통해 화자를 특정한다. 이로 인해 독자가 텍스트의 파편들을 맞추며 화자를 점진적으로 식별해 나가는 원작의 지연된 인지 효과는 완전히 상실된다.

결국, 이러한 재명명은 서구 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국화적 재조정의 일환이다. 요컨대, 이 번역 텍스트는 표면적으로 선택적 이국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삭제, 압축, 명시화로 점철된 자국화적 재서술 체계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3.5. 문화특정어휘의 일관성 문제

나이 계산법이나 건물 층수 표기 등 문화적 특수성이 담긴 수치를 번역할 때, 전략적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윤(2021)은 번역가가 한국의 연 나이 계산 방식을 고려해 원문의 ‘열아홉 살’을 ‘eighteen years’로 조정([사례 5])한 것을 두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평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는 도착어 문화의 나이 계산법에 맞춘 자국화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사례 5]

ST: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열아홉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p.69)

TT: Eighteen years old and passing by on the bus, she'd screwed her eyes tight shut. (p.73)

문제는 이러한 조정이 텍스트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 작품 내에서도 [사례 6], [사례 7]과 같이 원문의 수치를 그대로 직역한 사례가 빈번히 공존한다.

[사례 6]

ST: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열일곱살이었다. (p.136)

TT: You were seventeen when you first heard it described that way. (p.143)

[사례 7]

ST: 처음 혼자서 망월동을 찾았던 스무살의 겨울을 기억한다. (p.205)

TT: I remember the winter when I was twenty, when I went alone... (p.214)

나이 번역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열아홉 살’을 ‘eighteen’으로, ‘스물네 살’을 ‘twenty-three’로 낮추어 번역한 경우는 총 3회에 불과했다. 반면, 원문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2회 있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이 정보를 아예 생략했다. 요컨대 나이 표기를 관통하는 단일한 번역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정 사례가 3회에 그쳤다는 사실이 곧 자국화 경향의 약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빈번한 처리 방식인 ‘생략’이야말로 수치 차이로 인한 독자의 혼란을 차단하고 가독성을 확보하려는 자국화 중심의 기본으로 기능한다. 즉, 이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조정이나 직역이나’라는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이국화 원리가 부재한 가운데 가독성 우선의 자국화적 처리(조정 또는 생략)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번역 단위의 비일관성은 [사례 8]과 [사례 9]의 층수 표기 방식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의 ‘이층’은 영국식 표기법(Ground floor - 1st floor)과 미국식 표기법(1st floor - 2nd floor) 사이에서 번역 전략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8]

ST: 위태하게 이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어졌다. (p.92)

TT: You stood there clinging to the second-floor railing... (p.97)

[사례 9]

ST: 여자들은 이층에 모여 있어. (p.87)

TT: women were all supposed to go up to the first floor. (p.92)

원문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층’은 문맥에 따라 ‘first floor’([사례 9])와 ‘second floor’([사례 8])로 혼용되어 번역되었다. 작품 전체에서 ‘이층’은 총 9회 등장하는데, 단 1회만 ‘the first floor’로 조정하여 번역했으며, 3회는 ‘the second floor’로 직역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정보를 생략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번역가가 고유 명칭이나 표면적 어휘를 보존함으로써 원문 문화에 충실한 듯한 외관(이국화)을 취하면서도, 나이나 층수처럼 한 사회의 인지적 기반을 이루는 구조적 수치 체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번역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번역의 균열은 문화적 요소를 표층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칠 뿐, 문화 시스템이 지닌 위치성과 구조적 의미를 내재화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즉, 지명이나 이름 같은 가시적인 고유 요소는 이국화의 장식으로 남겨두면서도, 사고 체계와 직결된 구조적 문화 코드는 서구 독자의 인지 관습에 맞춰 암묵적으로 조정하거나 방치한 것이다. 가독성을 담보로 한 이러한 선택적 조정은 번역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역학 관계의 은폐이자, 체계적 문화번역의 부재를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자국화적 재서술의 견고한 배치 속에 발생한 논리적 균열이며, 상업적 자국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6. 문학적 vs 축어적 번역의 선택적 운용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이 원문의 문학적 결을 살리는 문학적 번역임을 지향한다고 밝혔으나(Yoon 2021),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국적 효과를 노린 축어적 번역과 번역가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자국화된 비유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례를 또한 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Yoon 2021)에서 탈식민지적 번역으로 제시한 [사례 1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한국의 전통놀이를 서구권의 유사한 놀이인 ‘red light, green light’로 치환하는 대신 ‘The hibiscus has blossomed’라고 축어적으로 번역하였다.

[사례 10]

ST: (아이들이) 커다란 돌 사이로 뛰어 땡김스로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채석장 끝에서 소리지르면 마당까지 들렸제. (pp.185-186)

TT: The big chunks of granite made it prime territory for hide-and-seek, for shouting 'the hibiscus has bloom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I could hear them... (p.193)

이러한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이국적 색채를 보존하는 듯 보이지만, 놀이의 규칙과 맥락을 알지 못하는 서구 독자에게는 원문이 의도한 놀이 특유의 긴장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술래잡기’와 같은 표현은 보편적인 ‘hide-and-seek’으로 환원함으로써, 이국화와 자국화 사이의 일관된 기준 없이 가독성과 이색적 분위기 사이를 위태롭게 오간다.

나아가 번역가의 자의적 개입은 원문의 인물상까지 왜곡하기도 한다. [사례 11]은 6장의 무언극 장면에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여성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원문에 없는 비유를 삽입하여 인물상을 왜곡하였다.

[사례 11]

ST: 다시 말없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 무대 오른편을 본다. (p.98)

TT: The woman turns now to the right, still silent as a marionette. (p.104)

원문의 여성 화자는 광주의 비극을 몸소 겪어내고 증언하는 능동적이고 강인한 주체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 여성을 ‘마리오네트(marionette)’³⁾에 비유함으로써, 인물의 기괴함과 수동적 측면을 부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화자를 ‘마리오네트’에 비유한 것은 마리오네트가 서구 담론에서 흔히 ‘자율적 의지가 거세된 수동적 존재’(Nelson 2003) 혹은 ‘인간성을 상실한 기괴한 형상’(Freud 1919/2024)으로 소비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한 선택이다. 원문의 화자가 지닌 고통의 주체성은 번역가가 덧입힌 ‘마리오네트’라는 기표에 갇혀, 역사의 파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비인격적인 인형의 움직임으로 치환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원문의 정서적 깊이를 전달하기보다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이 덧입혀진 과도한 문학적 가공이라

3)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어 ‘마리오네트(Marionnette)’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머리, 어깨, 손, 발 등 주요 관절 마디마디에 실을 매달아 움직이는 인형이다. 인형 위에 연결된 나무 막대, 즉 쿼트를 바를 조작자가 직접 움직여 인형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할 수 있다.

결국, 번역가가 표방한 문학적 번역은 실제 텍스트 층위에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별적 의역과 이국적 취향을 자극하기 위한 파편적 직역의 불균형한 조합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진실성을 온전히 전달하기보다 서구 시장의 미학적 기준에 맞춘 전략적 재서술의 또 다른 단면이다.

4. 논의: 탈식민적 재현인가, 상업주의적 포섭인가?

일부 선행연구는 『소년이 온다』의 번역본인 *Human Acts*에 나타난 풍부한 결텍스트, 한국어 고유어 표기, 확장된 배경 설명 등을 근거로 이를 탈식민적 번역 행위라 평가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선행연구가 일관된 번역 원리로 제시했던 전략들은 실제 텍스트에서 선택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러한 번역 장치들은 원문의 이질성을 보존하기 위한 독립적 저항의 발로라기보다, 오히려 시장 친화적 이해를 보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번역가는 서문과 각주를 통해 ‘안티고네’나 ‘피의 일요일’과 같은 서구적 참조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해석 비용을 선제적으로 낮추었으며, 본문에서는 삭제, 압축, 명시화를 통해 원문의 파편화된 서사와 인지적 모호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곳곳에 남겨진 소수의 한국어 어휘와 호칭은 원문의 타자성을 온전히 전달하기보다 현지성을 증빙하기 위한 선택적 장식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은 스피박(1993)이 지적한 언어의 정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티목즈코(2007)가 강조한 문화적 위치성의 재현에도 실패한 결과다. 원문화의 구조적 의미 체계를 드러내어 독자의 인식 지형에 도전하기보다, 표피적 이국성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균형한 문화 번역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일관성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편적으로 잔존하는 이국화가 원문의 이질성을 보존하려는 독립적 저항의 산물일 가능성과 번역 전반의 비일관성이 의도된 전략이 아니라 편집 과정의 우연한 실수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 무엇보다 비일관성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해석은 성립될 수 없다. 고유명사나 ‘hanok’처럼 가시적이고 장식적인 이국적 표지는 보존되는 반면, 나이·층수·호칭과 같이 독자의 인지 기반을 이

루는 구조적 문화 코드는 체계적으로 평탄화되었다. 무작위적 오류라면 이와 같은 방향성 있는 비대칭이 반복적으로 관찰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처리 방향은 ‘독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을 지향한다는 번역 주체의 명시적 입장(이지민 2018b: 204) 및 이국화·자국화의 전략적 혼용을 실무 표준으로 보는 동시대 번역 현장의 인식(Badioiu and Lee 2022)과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연한 오류나 개별적 저항이 아니라, 세계문화 유통 환경 속 ‘확장된 번역 주체’(각주 1 참조)의 구조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결국, 오늘날의 번역 현장에서는 이국화와 자국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보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 두 전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합하는가 하는 전략적 혼종성이 산업적 표준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영문판 *Human Acts*를 분석하여, 해당 번역이 표방하는 탈식민적 재현의 수사 이면에 상업적인 목적의 선택적 이국화 전략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분석 결과, 번역본은 고유명사와 일부 문화 표지를 유지하며 표면적 현지성을 구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삭제, 압축, 명시화 및 재명명을 통해 원문의 실험적 서사와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평탄화하고 있었다. 특히 나이 계산, 층수 표기, 호칭 체계와 같은 구조적 문화 코드가 일관성 없이 조정되거나 소거됨으로써, 원문이 지닌 고유한 의미 생성 방식과 문화적 위치성은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티목츠크(1999, 2007)가 언급한 선별적 제시가 수용 문화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고착된 사례이며, 스피박(1993)이 우려한 바와 같이 타자의 목소리가 지배적 재현 체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언어의 정치성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번역은 이국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독자의 인식을 교란하는 방식이 아닌 이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율된 안전한 타자성으로 재배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문이 지닌 타자성의 급진성과 불편함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번역의 문학적 성취나 대중적 기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문화 유통이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번역이 직면하는 강제된 선

택과 그에 따른 미학적 타협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택적 이국화와 가독성 중심의 전략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거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번역 주체를 글로벌 출판 환경 속 ‘확장된 번역 주체’로 개념화하였으나 분석 자체는 텍스트 내적 대조에 한정되어 있어 출판사, 에이전트, 편집자 등 개별 외부 행위자의 구체적 개입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판사 기록, 편집 메모, 번역 계약서 등 출판·사회학적 자료를 활용한 행위자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자의 전수조사에 기반한 사례 분석을 주된 방법으로 삼았으나, 향후 대규모 말뭉치 분석이나 실증적인 독자 반응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소년이 온다』 번역을 둘러싼 논쟁을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상업주의, 독자 수용, 문화적 위치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권력 관계의 산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번역 연구는 이국성의 보존 여부를 넘어, 타자성이 어떠한 권력 구조 속에서 재구성되고 통제되는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지평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중. (2021). 「『소년이 온다』의 번역을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와 혼란」. 『영어영문학21』 34(1): 1-29.
- 신상범. (2020).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 번역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1): 137-160.
- 신지선·조혜진. (2018). 「번역서에 대한 한국과 영미권 독자의 서평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3: 105-129.
- 윤미선·박건영. (2019).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의 영어권 독자수용 예비 연구」. 『통역과 번역』 21(2): 87-117.
- 윤선경. (2024). 「번역에서 문학으로: 데보라 스미스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94: 83-104.
- 이지민. (2018a).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에 나타난 정보성 조정 전략 연구」. 『통역과 번역』 20(2): 97-121.
- 이지민. (2018b).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조의연·조숙희. (2016).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한강과 데버러 스미스」. 『영어권문학연구』 9(3): 257-274.
- 조의연·조숙희. (2017). 「이탤릭체의 문체적 활용: 『소년이 온다』 한영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8(5): 231-252.
-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파주: 창비.
- Badioiu, L. & Lee, J. (2022). "Rewriting of poetry: A case study of the translation of Yideum Kim's Hysteria."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60: 7-28.
- Bassnett, S. & Trivedi, H. (1999). "Introduction: Of Colonies, Cannibals and Vernaculars." In S. Bassnett and H. Trivedi (ed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1-18. London: Routledge.
- Freud, S. (1919/2024). *The Uncanny*. Trans. Max Habicht. Elizabethtown: Continental Press.
- Han K. (2016). *Human Acts*. Trans. Deborah Smith. London: Portobello Books.
- Nelson, V. (2003). *The Secret Life of Puppe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ranjana, T.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k, Y. (2020). "From Gwangju to Brixton: The impossible translation of Han Kang's Human Acts." *Lateral* 9(2). <https://doi.org/10.25158/L9.2.2>.
- Spivak, G. C.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 Nelson and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271-313.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pivak, G. C. (1993).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C. Spivak (ed.),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179-200. London: Routledge.
- Tymoczko, M.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Early Irish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Tymoczko, M.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 Venuti, L. (200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2nd edn). London: Routledge.
- Vincent, S. (2003). "Preserving domesticity: Reading Tupperware in women's changing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role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40(2): 171-196.
- Yoon, S. (2021). "Decolonizing acts: An analysis of Deborah Smith's English translation, *Human Acts*." *Acta Koreana* 24(2): 75-92.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May 2026; revised on 1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ke9836@daum.net

shm213@gmail.com

About the authors

Jimin Lee (First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multimodal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Seunghye Mah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Dongguk University, Seoul. Her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literary translation, AI-assisted translation, and content translation.

From Canon to Code: Rethinking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in the Age of AI*

Yanfei Zhao** and Huijuan Ma***

In recent years, AI technologies have increasingly been applied to the translation of sacred texts, a field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last bastions of human translation. Drawing on González Núñez's framework of translation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lation management, practice, and beliefs of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one of the most ambitious modern efforts to translate the Chinese Buddhist canon into English.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BDK has developed a scholar-led, dissemination-oriented model that seeks to balance translation accuracy with reader accessibility. Compared with AI translation, this model retains clear strengths in interpretive depth, philological accuracy, and ethical accountability. At the same time, AI translation continues to intensify some of its own limitations, including the absence of a clear AI-use policy, insufficient collaboration, and a minimalist annotation policy that may obscure interpretive complexity. The paper suggests that BDK could move toward a human-AI collaborative model in which machines support drafting and technical organization, while the interpretive and editorial authority remains with human experts.

Keywords: Buddhist translation, the BDK project, translation policy, AI-assisted translation, institutional transl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ina Scholarship Council Program (Project ID: 202506530284) and th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at Yale University.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two anonymous reviewers and Professor Eric Greene of Yale University for their valuable insights and support.

**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1. Introduction

Throughout human civilization, Buddhist translation has constitut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orms of cultural exchange. It not only facilitated the spread of Buddhism across linguistic and cultural boundaries, but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 wide range of cultural forms. So far, existing scholarship has paid substantial attention to the early transmission of Buddhist texts, especially the translation of Indian Buddhist scriptures into Chinese from the second to the eleventh century (e.g., Hung 2005; Nattier 2008; Funayama 2013). Yet Buddhist translation did not end with the medieval period. It has remained an ongoing tradition that has continued well into the modern era.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onward, European missionaries and scholars began translating Buddhist texts into Western languages, primarily from Pali and Chinese into English. By the late nineteenth century, key Buddhist texts, such as the Jātaka tales, the *Diamond Sutra*, the *Lotus Sutra*, and *The Awakening of Faith in Mahāyāna*, had been translated by European scholars including Max Müller (1879–1910), Samuel Beal (1871), and Timothy Richard (1907). In the 1970s, with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Studies as a standalone discipline, modern Buddhist translation entered a phase of rapid growth, supported by translators' improved proficiency in Asian languages and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Buddhist dictionaries and reference tools.

However, unlike the systematic translation of the Pali canon under the auspices of the Pali Text Society, Chinese Buddhist texts were more often translated individually, without sustained institutional support or a comprehensive long-term plan. This situation began to change with the emergence of large-scale organized translation projects, among which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has been the most ambitious and influential. BDK (Jpn. 仏教伝道協会; Bukkyō Dendō Kyōkai), also known as the Numata Foundation, is a public-interes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65 by Yehan Numata (1897–1994). The Numata Foundation seeks to promote Buddhist teachings, culture, and research and one of its major undertakings has bee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Chinese Buddhist canon.

In 1982,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was initiated and two years later, the Numata Center for Translation and Research was established in Berkeley, California. The project initially selected 139 works for translation and adopted the long-term goal of rendering the entire Taishō Tripiṭaka into English. By the end of 2025, 114 texts had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57 volumes under the collective title “The English Buddhist Canon,” making the BDK projec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stitutional enterprises in the modern history of Buddhist translation.

Despite its scale and influence, the BDK project has received limited scholarly attention. Existing studies 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Buddhist texts remain relatively few. Pan (2021) sketches the broader landscape of English translations of Chinese Buddhist texts, providing valuable statistical observations such as the number of translated texts and productivity of translators. Jiang (2021) offers a more specific overview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Buddhist texts in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the BDK project is a particularly important case. However, no study to date has systematically examined the BDK project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 structure, translation management as well as translation activities. The gap is noteworthy, since BDK is not merely a translation initiative, but also a concrete institutional model for how Buddhist texts are selected, translated, edited, and presented to English readership. Further, with the emergence of AI-powered translation in recent years, the BDK project has also entered a new context, where the key question is no longer how Buddhist texts should be translated by human translators, but how institutional translation projects such as BDK should respond to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s.

Drawing on archival materials, project guidelines, newsletters, published translations, and related paratextual materials,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project from its inception in 1984 to the present. It also assess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BDK model in the age of AI-powered translation and considers how its policy might be recalibrated in response to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s. By placing BDK’s human-centered model in dialogue with AI translation, this paper offers a case study for rethinking translator

competence, institutional translation management, and translators' ethical accountability in the age of AI. Specifically, this paper addresses three questions:

- (1) What constitutes the BDK's Buddhist translation policy?
- (2) Compared with AI translation, what are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BDK model?
- (3) How might Buddhist translation policy be recalibrated in the age of AI?

2. Institutional Translation and Translation Policy

Over the past two decades, “institutional translation studies” has emerged as a burgeoning field in translation research. As early as the 1980s, Mossop (1988: 65–66) called attention to translating institutions as a “missing factor” in translation theory, arguing that institutional settings can shape the general approach taken in translation. Institution does not only refer to concrete organizations such as companies, churches, publishers, or governmental bodies. It may also refer to a set of norms or expectations that influence behaviors. Toury (2012: 7), for instance, describes translating as “an institutionalized mode of text generation” governed by norms.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was proposed by Koskinen (2008: 22) in her seminal work on the EU translation. For Koskinen, institutional translation is carried out by official bodies as “a means of speaking” to a particular audience (*ibid*). Translation is therefore not a neutral act of linguistic transfer, but a regulated communicative practice shaped by institutional aims, authority, and ideology. Similarly, Kang (2009: 141) argues that institutional translation concerns the “organizational, structural, relational, ideological or historical aspects” of a translating institution and their impact on translators, translation processes, and translation products.

Closely related to institutional translation is the notion of “translation policy.” As Meylaerts (2011: 163) notes, almost all institutions, whether official or informal, have a “policy” dimension. She defines translation policy as “a set of legal rules

that regulate translation in the public domain” (ibid: 165). This conception is further advanced by González Núñez (2016), who proposes a more comprehensive model for translation policy, which comprises “translation management,” “translation practice,” and “translation beliefs.” This tripartite model is neither too narrow nor too diffuse, and it allows for a systematic exploration of how translation is carried out within specific institutional settings.

According to González Núñez (2016: 54–55), “translation management” refers to the decisions made by those in authority regarding the use, organization, and regulation of translation within a given domain. These decisions may concern such matters as whether translation is undertaken at all, which texts are selected, who is authorized to translate, and how translation is supervised or funded. Because such decisions are often codified in written documents, translation management is usually the most visible and overt dimension of translation policy.

“Translation practice” concerns what happe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t may involve such questions as “what texts get translated, what modes of interpreting are used, into and out of what languages, and where it takes place” (ibid: 55). In this sense, translation practice may reveal implicit policies that are not formally stated but can be observed in pragmatic problem-solving processes.

Finally, “translation beliefs” refers to the beliefs held by members of a community about the value, purpose, and proper form of translation (ibid). These beliefs may be explicitly articulated in prefaces, guidelines, public statements, or institutional narratives, but they may also remain unspoken and must be inferred from institutional choices and translational behavior.

Taken together, these three dimensions provide a methodologically useful framework for the present study. By investigating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project, we hope to unravel more intricate layers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practice and contribute to broader discussions of Buddhist translation in the modern age.

3. Buddhist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Project

Since its inception in the early 1980s, BDK has gradually developed a relatively clear translation policy governing the selection of texts, the recruitment of translators, and editorial procedures. In 1983, two steering committees, the Editorial Committee and the Publication Committee, were established to oversee the project. The former is based in Tokyo, Japan and composed of nine Japanese scholars. The latter is based in Berkeley, the United States and consists of six scholars working at American academic institutions. The composition of its two steering committees suggests that BDK has a strong academic orientation. In what follows, its translation policy will be examined through three dimensions: translation management, translation practice, and translation beliefs.

3.1. Translation management

BDK's translation management is most clearly articulated in its guideline for English translation of the Chinese Buddhist canon. The guideline was first formulated in 1982 by its editorial committee, with the latest revision released in 2023 (BDK 2023: 6–8). This brief document contains sixteen items covering the selection of source texts, the execution of translation, and the duties and rights of translators.

3.1.1. *Selection of source Buddhist texts*

First, BDK stipulates that the primary textual basis for translation is the Taishō Tripiṭaka, the standard modern edition of the Chinese Buddhist canon edited by Takakusu and Watanabe (1990). Yet the project does not aim to translate the canon in a sequential or comprehensive manner. Instead, it follows a selective and curated model, prioritizing certain texts over others. By the end of 2025, BDK had translated and published 114 Buddhist texts in 57 volumes. To examine its pattern of selection, we have grouped its published translations into different categories (see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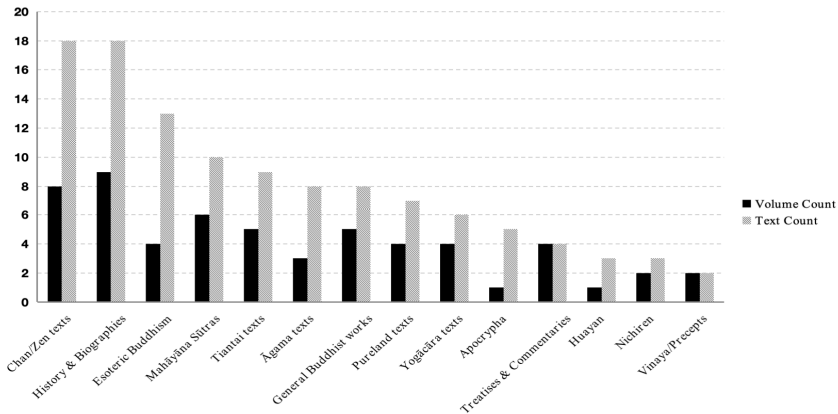


Figure 1. The distribution of BDK's published Buddhist texts across different categories

As shown in Figure 1, BDK gives priority to influential works in East Asian Buddhism, especially Zen texts (Chn. Chan; Kor. Seon). The prominence of Zen is significant since it i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symbols of Japanese Buddhist culture. Associated with meditation, simplicity, and spiritual liberation, Zen has occupied a privileged position in the Western imagination of Asian Buddhism (Dumoulin 1992: ix). In addition to Zen works, BDK also includes major Mahāyāna scriptures such as the *Lotus Sutra* and the *Vimalakīrti Sutra* (see Paul and McRae 2004; Kubo and Yuyama 2007). This further suggests its preference for classical texts with doctrinal centrality and broad prestige within Buddhist traditions.

Beyond “scriptures” in the narrow sense, BDK has also published translations across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commentaries, treatises, monastic regulations, biographies, and travel records. This generic diversity suggests that the project seeks not only to transmit Buddhist teachings, but also to represent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Buddhism. For instance, BDK shows a strong interest in the life and legacy of Xuanzang (ca. 602–664), an eminent Chinese monk and translator. Both Xuanzang’s biography and his travel record to the Western Regions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Li 1995, 1996). This case illustrates that, for BDK, the Buddhist canon is understood not merely

as a repository of sacred sermons, but also as a broader cultural and institutional archive.

3.1.2. *Selection of Buddhist translators*

With respect to translator recruitment, the collected data on BDK translators shows that the project’s translator pool is relatively concentrated and dominated by scholars from Japan (39%) and North America (37%). Much smaller representation comes from Europe, Australia, New Zealand, Chinese mainland, and Taiwan (see Figure 2). Most of the translators are trained in Buddhist Studies, while very few identify themselves as professional translators. This pattern is also reflected in BDK’s translator recruitment. For instance, Kenneth Tanaka, the chair of the BDK Editorial Committee, once posted a call for translators on the academic portal of H-Buddhism, requiring applicants to submit a statement of qualifications, an academic curriculum vitae, and two letters of reference (Tanaka 2016). This procedure clearly shows its emphasis on institutional credentials and scholarly expertise. Yet practical translation experience or formal translation training is not explicitly required. Thus, the ideal BDK translator is conceived more as a specialist in Buddhist Studies than as a professionally trained trans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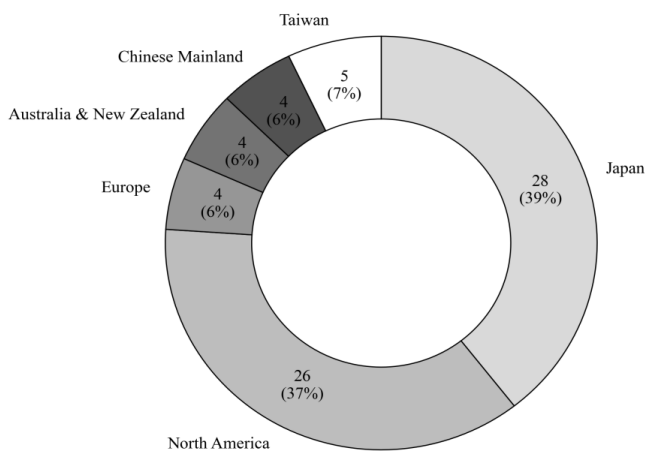


Figure 2.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BDK translators

As for remuneration, BDK pays translators 350 US dollars per Taishō page. One Taishō page is estimated to have 1,500 Chinese characters. This amounts to 0.23 US dollars per Chinese character. In nominal terms, this rate is not low compared with the literary translation rates reported by PEN America (2026), according to which translators are commonly paid 0.12 to 0.16 US dollars per word. However, given the highly specialized expertise required for Buddhist translation, BDK's remuneration level remains modest. A useful comparison can be made with the Buddhist translation project organized by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2). According to Muller (2014: 3), the Jogye project paid translators approximately four times BDK's per-page rate. This more generous remuneration enabled the project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leading experts in the field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A further observation is that BDK relies on a relatively older translator base, which is largely composed of senior scholars in Buddhist Studies. Among the eight most productive BDK translators, six have already passed away while the remaining two are senior scholars.¹⁾ This raises concerns about the project's long-term sustainability, since senior scholars usually have heavier academic responsibilities. If BDK is to remain sustainable, it needs to cultivate a younger and more diverse translator base, including professionally trained translators and scholars in Translation Studies, literature, Asian Studies, and even digital humanities. Such diversification would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and enrich the interpretive horizons through which Buddhist texts are read and translated.

3.2. Translation practice

In terms of translation practice, BDK aims to balance translation reliability with reader accessibility. On the one hand, the project implements strict quality control. As illustrated in Figure 3,²⁾ the editorial committee usually commissions one text

1) The eight most productive BDK translators are Rolf W. Giebel (10 translated works), Li Rongxi* (8), John R. McRae* (5), Charles Willemen* (4), Harumi Hirano Ziegler* (4), Shohei Ichimura* (4), John P. Keenan* (4), and Paul L. Swanson (4). Asterisks indicate deceased translators.

2) Source: Kenneth Tanaka's presentation at the "BDK Symposium: Translating the Abhidharmakośa,"

to one translator (in rare cases, two co-translators), who prepares the draft independently. The completed translation will undergo three rounds of review before going into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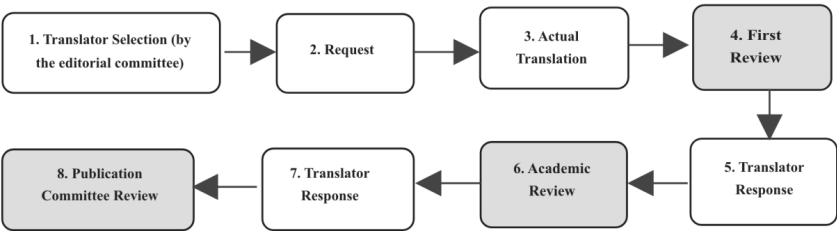


Figure 3. Current workflow of the BDK translation project

In addition to implementing strict quality control, BDK requires translators to provide an introduction explaining the historical and doctrinal background of the source text (BDK 2023: 6). *Zuochan sanmei jing* 坐禪三昧經 (*The Sutra on the Concentration of Sitting Meditation*, T 614), for example, is an important early meditation scripture composed by Kumārajīva (ca. 350–410). Since it teaches both traditional and Mahāyāna meditation methods, readers may find it difficult to navigate its complex doctrinal system. In their introduction, Yamabe and Sueki (2009: xiv–xviii) clarify its structure and doctrinal composition, offering an analysis indispensable for further scholarly investigation.

Although translators are required to contextualize the source text in their introductions, annotations are expected to be kept to a minimum so that they do not distract readers from the main text (BDK 2023: 6). This policy reflects the project’s dissemination-oriented aim. As former committee chair Mayeda Sengaku explains, BDK’s primary goal is not to promote academic scholarship in the narrow sense, but to make Buddhist teachings accessible to a wider readership (see Paul and McRae 2004: vii). This minimal-annotation policy also encourages an explanatory translation method, in which doctrinal or contextual clarification is

UBC, 15 October 2022. For the recording of this symposium, visit <https://www.youtube.com/watch?v=sXEGrHeC-Ao>.

embedded in the translation itself rather than presented in notes. Example (1), drawn from *The Sutra on the Concentration of Sitting Meditation*, illustrates this tendency. The passage explains how meditation may be used to treat practitioners' mental disorders.

(1)

ST: 第五法門治等分行，及重罪人求索佛，如是人等當教一心念佛三昧。
(《坐禪三昧經》 T614, p. 276a07)³⁾

[The fifth method is for treating those of equal disposition, and also for persons burdened with grave offenses who seek out the Buddha; such persons should be taught single-minded Buddha-recollection samādhi.]

TT: The fifth method is a practice [designed] to cure people equally [troubled with multiple problems]. [The method is also intended for] people who have committed grave transgressions and who seek for [help from] the Buddha. [The master] should teach such people the single-minded concentration on calling the Buddha to mind. (Yamabe and Sueki 2009: 33).

In Example (1), the main translation difficulty lies in the phrase *zhì děng fēn xíng* 治等分行, which can be literally translated as “treating those of equal disposition.” However, such a rendering would make little sense in context. To clarify its meaning, the translators added bracketed explanations, indicating that this meditation method is intended for practitioners equally afflicted by multiple mental defilements, such as hatred, lust, and anger. Likewise, *qiú suǒ fó* 求索佛 in this context does not simply mean “seeking out the Buddha” but rather “seeking help from the Buddha.”

This example illustrates how BDK's minimal annotation policy can shape translation practice. Since translators cannot rely on footnotes to explain doctrinal or textual difficulties, they may need to incorporate explanation into the main translation. This strategy can make the translation more readable and accessible, but it also entails a trade-off: the more explanation is absorbed into the main text, the

3) In Taishō Buddhist canon, texts are indicated by volume, page, register and line number(s). For instance, “T 614, p. 276a07” here refers to the text in Vol. 614, Page 276, Register a and Line 7.

more transparent and self-contained the translation appears. Such transparency, however, may obscure the text's multiple voices and interpretive complexity.

3.3. Translation belief

The third dimension of translation policy is “translation belief,” which refers to the collective beliefs held by a community regarding the value of translation (González Núñez 2016: 56). In the case of BDK, the value of translating Buddhist texts is clearly affirmed since the project is devoted to transmitting Buddhist teachings to English-language readers. Meanwhile, the specific form of this belief is shaped by the background of translators. Because most BDK translators are trained Buddhist scholars, the project tends to place greater value on doctrinal fidelity and philological reliability. Charles Muller (2014: 1), the current chair of the BDK Publication Committee, makes this point clearly:

“One basic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in the field of Buddhist Studies the art of translation has never been taken as the primary focus of training or scholarship. Linguistic training is of course important, but graduate school courses generally do not take on the role of judging the best rendering of a text into modern vernacular languages. And scholarly translations usually take place as a detailed philological study of a particular text, without an emphasis on the readability of the translation itself.”

Muller's observation suggests that, in Buddhist Studies, translation is often treated as an extension of philological research. The primary concern is whether a rendering accurately conveys the semantic, doctrinal,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source text. Questions such as translation strategy, target-text readability, and stylistic coherence usually receive less attention. This helps explain why BDK translations are often strong in textual accuracy and interpretive depth, while sometimes appearing less self-conscious about translation as a communicative and literary practice.

That notwithstanding, the BDK project has also involved a smaller number of

translators whose orientation extends beyond Buddhist scholarship. Thomas Cleary (1949–2021) is a notable example. After earning a doctorate in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from Harvard University, Cleary became a professional translator of Asian classics and grew into one of the most prolific translators of East Asia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exts. His BDK translation—*The Blue Cliff Record* appeared in 1998 (Cleary 1998). Unlike many scholar-translators who approach translation primarily as a philological exercise, Cleary emphasized accessibility for a wider readership. In an interview, he argued that translation should convey not only the semantic meaning, but also the original text’s intention, experiential force, and practical significance (Burton-Rose 2004). This approach suggests a broader view of translation as an ethical and communicative practice, one that makes classical knowledge publicly available, counters ignorance, and opens classical texts to contemporary readers.

In summary, the BDK project is shaped by a dual translation belief that values both academic rigor and broader dissemination of Buddhist teachings. This dual orientation underlies its scholar-led, dissemination-oriented translation model. On the one hand, BDK is governed by committees composed largely of Japanese and American academics, relies on a relatively concentrated translator base dominated by Buddhist Studies scholars, and implements a strict review procedure to ensure doctrinal and philological reliability. On the other hand, it favors readable and minimally annotated translations intended for both practitioners and general readers. In this sense, BDK has made an important attempt to mediate between translation accuracy and accessibility.

4. Recalibrating the Buddhist Translation Policy in an AI Age

In recent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has placed new pressure on the BDK translation model. When AI tools can rapidly generate fluent translations, the key question is no longer how Buddhist translation should be institutionally organized, but how to redefine the role of human

translators in the new technological context. This section therefore compar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BDK model in relation to AI translation, before proposing directions for revising its Buddhist translation policy.

The comparison that follows examines selected Chinese Buddhist passages by comparing AI translation with BDK's human translation. Due to space constraints, only four examples are discussed. They were selected because they illustrate recurrent challenges in translating ancient Chinese Buddhist texts into English, particularly in terms of doctrinal terminology, genre-specific rhetoric, Buddhist compounds, compressed syntax, and practice-oriented instructions.

The AI translations cited below were generated in March 2026 using the ChatGPT-5.4 thinking model. For each passage, the source text and its Taishō reference were provided with the same prompt: "Translate the following passage from a classical Chinese Buddhist text into English." No information about genre, doctrinal background, or broader context was supplied. The comparison is necessarily asymmetrical, since BDK translations have undergone human revision and institutional review, whereas ChatGPT's outputs are immediate responses to a single prompt. That said, this asymmetry does not invalidate the comparison because our aim is not to evaluate AI translation under ideal conditions, but to identify what human scholarly translation still contributes when AI can already produce fluent and rapid first drafts.

4.1. The continuing strengths of the BDK model

4.1.1. Interpretive depth

A key strength of the BDK model lies in its interpretive depth, namely the translator's ability to reconstruct the doctrinal, contextual, and genre-specific implications of a passage beyond its surface lexical meaning. This competence is crucial in Buddhist translation, since Buddhist texts often contain "dense philosophical concepts" and employ "layered language, metaphor, or even intentional ambiguity" (Vasylieva 2026: 8). Translating them therefore requires not only linguistic knowledge, but also interpretive judgment and deep familiarity with

Buddhist doctrine. Recent studies suggest that AI translation tools still lack sufficient knowledge of Chinese religions and history and often render religious terms literally without adequate contextual awareness (Wei 2024; Rousan et al. 2025).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e following comparison focuses on how ChatGPT and BDK translations handle doctrinal terminology and genre-specific rhetoric.

(2)

ST: 佛身無漏, 諸漏已盡。 (《維摩詰所說經》 T 475, p. 542a17)

TT1: The Buddha's body is free from all outflows; all defilements have already been exhausted. (Produced by ChatGPT-5.4)

TT2: The Buddha's body is without flaws, the flaws having been extinguished. (Translated by John McRae; Paul and McRae 2004: 95)

Example (2) is drawn from the *Vimalakīrti Sutra*, where the layman Bodhisattva Vimalakīrti expounds the extraordinary qualities of the Buddha's body. The main difficulty here is the term *wulou* 無漏 (literally, "without outflows"). In Buddhism, it refers to an untainted or unflawed state in contrast to *youlou* 有漏 (Skt. āsrava), a flawed state tainted by intentional thoughts.⁴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that the Buddha's body is free from taint. In this sense, McRae's translation "without flaws" better conveys this doctrinal nuance, while ChatGPT's translation "free from all outflows" is seemingly fluent but doctrinally inaccurate. This example shows that AI-generated fluency can conceal its weakness in handling abstract terminology that requires deeper doctrinal interpretation.

(3)

ST: 至道無難 (非難非易) 唯嫌揀擇 (眼前是什麼。三祖猶在)。 (《碧巖錄》 T 2003, p. 141b27-28)

4) See the entry for "無漏" in the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accessed December 1, 2025, from <http://www.buddhism-dict.net/cgi-bin/xpr-ddb.pl?q=無漏>.

TT1: “The supreme Way is not difficult;” (Neither difficult nor easy.) “It only rejects picking and choosing.” (What is right before your eyes? The third patriarch is still here). (Produced by ChatGPT-5.4)

TT2: “The ultimate Way is without difficulty;” (It is neither difficult nor easy.) “just avoid discrimination.” (What is in front of your eyes? The third patriarch is still alive.) (Translated by Thomas Cleary; Cleary 1998: 19)

Example (3) is drawn from *The Blue Cliff Record*, a classic collection of Chan koans compiled by Chan master Yuanwu Keqin (1063–1135 C.E.). Usually taking the form of sayings or encounter dialogues between Chan masters and disciples, koans (Chn. *gong'an* 公案) constitute a distinctive genre of Chan Buddhist literature (Cleary 1998: 3). The language of koans tends to be symbolic and enigmatic, full of poetry, idioms, paradoxes, and highly perplexing expressions (Zhu 2011: 377–378). Such language aims to unsettle habitual conceptual thinking and perform pedagogical functions.

The main difficulty in translating this passage lies in the phrase *wéi xián jiǎnzé* 唯嫌揀擇, which ChatGPT rendered literally as “it only rejects picking and choosing.” This translation is problematic in two ways. First, it introduces an ambiguous, inanimate subject “it.” Second, it fails to capture the contextual meaning of *jianze* 揀擇 (literally “pick and choose”), which in this context refers to “a discriminative mind.” In Chan koan literature, the discriminative mind is often treated as the source of delusive attachment to binary distinctions such as sacred and profane, right and wrong, or difficult and easy. As Zhu (2011: 377) suggests, the purpose of koan dialogues is to trigger awakening to the original, non-discriminating state of human mind. In this sense, Cleary’s translation “just avoid discrimination” better conveys the Chan critique of dualistic discrimination than ChatGPT’s literal translation.

It is noteworthy that this sentence is also the opening line of *Xinxin ming* 信心銘 (Verses on faith in mind), traditionally attributed to Sengcan (d. 606 C.E.), the third patriarch of Chan Buddhism. This explains Yuanwu’s parenthetical remarks – *sānzǔ*

yóuzài 三祖猶在 (literally, “the third patriarch is still present”). Here *youzai* 猶在 (literally, “still present”) carries a Chan-style rhetorical force: The third patriarch’s insight is still alive in the present koan scene. From this perspective, Cleary’s “the third patriarch is still alive” better conveys the living presence implied by Yuanwu’s comment than ChatGPT’s “the third patriarch is still here.”

The above two examples illustrate the limitations of AI translation systems in capturing doctrinal nuances and genre-specific connotations in Buddhist texts. As Cultrera and Basalamah (2026: 2) point out, AI systems remain weak in handling contextual meaning because “they generate word sequences based on statistical probabilities from extensive datasets.” While the output of AI translation systems may appear fluent and accurate, they lack the interpretive judgment to navigate the semantic ambiguity, doctrinal complexity, and genre-specific rhetoric. These are precisely the areas where human scholarly expertise remains indispensable.

4.1.2. *Philological accuracy*

If interpretive depth concerns the doctrinal and genre-specific implications of a passage, philological accuracy concerns the textual and linguistic basis on which such interpretation rest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ancient Chinese Buddhist texts, whose language is often called the “Buddhist hybrid Chinese.” Unlike “monosyllabic” classical Chinese (each character constitutes one word), the Buddhist hybrid Chinese contains many disyllabic and multisyllabic words introduced through translation of Sanskrit words, such as *zhìhuì* 智慧 (“wisdom”), *fāngbiàn* 方便 (“expedient means”), and *fānnáo* 煩惱 (“afflictions”) (Zhu 2017). To facilitate recitation and preserve rhythmic elegance, ancient Buddhist translators also frequently adopted compressed syntactic patterns such as four-character phrases in translated Chinese texts (Zhu 2003). These linguistic features can easily cause translation errors. As Muller (2014: 4) notes, translators may be misled by the modern meaning of Chinese words or wrongly break Buddhist compounds that in fact function as single conceptual units. Example (4), drawn from *The Sutra on the Concentration of Sitting Meditation*, illustrates the limitations of ChatGPT in identifying Buddhist compounds and parsing compressed Chinese syntax.

(4)

ST: 「未得道者結使未斷，六思覺強從心生亂，云何能除？」（《坐禪三昧經》 T 614, p. 273b4-6)

TT1: “For those who have not yet attained the Way, the fetters and defilements remain unsevered, and the six kinds of discursive thought arise forcefully from the mind, causing disturbance. How can they be eliminated?” (Produced by ChatGPT-5.4)

TT2: “One who has not attained awakening has not severed binding defilements. These six types of thoughts are powerful and disturb people at will. How can one sever them?” (Yamabe and Sueki 2009: 10).

The first difficulty lies in the Buddhist compound *jieshi* 結使 (literally, “binding and driving”), which functions as a single technical term meaning afflictions or defilement in Buddhist usage.⁵⁾ ChatGPT breaks this compound into two separate nouns, “fetters and defilements,” while Yamabe and Sueki’s translation “binding defilements” better preserves its status as one conceptual unit.

The second difficulty concerns the compressed syntax of *liù sījué qiáng cóngxīn shēngluàn* 六思覺強從心生亂. The line can be parsed into two four-character units: “The six kinds of thoughts are powerful” and “they cause disturbances in mind.” Yamabe and Sueki’s translation follows this structure: “The six types of thoughts are powerful and disturb people at will.” By contrast, ChatGPT appears to read the line through modern Chinese syntax, taking *qiang* 強 adverbially as “forcefully” and linking it to “arise from the mind.” As a result, it produces “the six kinds of discursive thought arise forcefully from the mind, causing disturbance,” a fluent but less precise rendering.

This example shows that philological accuracy requires more than general competence in classical Chinese. It demands sensitivity to Buddhist Chinese as a layered translation language shaped by Sanskrit terms, Chinese literary conventions, and specialized doctrinal vocabularies. BDK’s human translation is stronger here

5) See the entry for “結使” in the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accessed December 1, 2025, from <http://www.buddhism-dict.net/cgi-bin/xpr-ddb.pl?q=結使>.

because it more accurately identifies the lexical units and syntactic structure on which interpretation depends.

4.1.3. *Ethical accountability*

The third strength of the BDK model lies in its ethical accountability. Buddhist texts not only serve as objects of intellectual study, but also provide guidance for spiritual practices (Vasylieva 2026: 3). In other words, translated scriptures are not only texts to be read or interpreted, but also enacted through embodied practices, such as meditation, rituals, observance of precepts, and other devotional practices. Buddhist translators thus bear responsibilities toward practitioner communities. If their work is outsourced to disembodied machine translation systems, questions of responsibility, trust, and practical reliability will inevitably arise.

(5)

ST: 「若久習行，當教言身中一寸心却皮肉，繫意五處：頂、額、眉間、鼻端、心處。」 (《坐禪三昧經》 T 614, p. 272a12-14)

TT1: If one has practiced for a long time, one should be instructed to say: within the body, at a point one inch beneath the skin and flesh, fix the mind on five locations: the crown of the head, the forehead, the space between the eyebrows, the tip of the nose, and the region of the heart. (Produced by ChatGPT-5.4)

TT2: If [the practitioner] is at the advanced level, [the master] should teach him as follows: “[First, mentally] remove the skin and flesh [and reveal] the heart of ‘one inch’ in the body, and [then] fix your mind to five spots: head, forehead, the area between the brows, the tip of the nose, and the heart.” (Yamabe and Sueki 2009: 33).

Example (5), also taken from *The Sutra on the Concentration of Sitting Meditation*, explains a contemplative practice for overcoming lust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bodily impurities. ChatGPT rendered the instruction as “within the body, at a point one inch beneath the skin and flesh,” producing an ambiguous description. By contrast, Yamabe and Sueki translated the passage as a sequence

of meditative actions: “mentally remove the skin and flesh and reveal the heart of ‘one inch’ in the body.” Their version is more coherent as practical instruction because it recognizes the passage as describing a contemplation exercise rather than a physical location. This difference points to a broader limitation of AI translation. Although large language models can process linguistic patterns, they cannot engage with meditation as a lived or embodied practice. In texts intended to guide religious cultivation, such ambiguity is not merely stylistic, but also affects how practitioners understand and perform the practice.

In summary, Buddhist translation does not simply transmit semantic meaning. It also mediates norms, obligations, and communal practices. Ethical accountability is therefore central to Buddhist translation practice. While the BDK model does not guarantee perfect translations, it provides a visible structure in which translations can be attributed, reviewed, questioned, and revised.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translation of sacred texts, which can shape both scholarly understanding and religious practice. AI should therefore be understood not as a replacement for human translators, but as a tool whose outputs still require human philological scrutiny, interpretive judgment, and ethical responsibility.

4.2. AI as a stress test for the existing BDK policy

In June 2022, Bingenheimer (2022) announced on H-Buddhism that the entire Taishō Buddhist canon had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help of two AI translation systems trained on Chinese Buddhist texts: DeepL and Linguae Dharmae. As he noted, this meant that human translators might become “gleaners and cleaners following behind the translating machines.” Whether or not one accepts this view, AI translation has indeed changed the landscape of translation. What previously required decades of human effort can now be approximated, at least at the level of draft production, within a radically compressed time frame. For the BDK project, the emergence of AI translation also intensifies the limitations of its existing translation policy.

First, AI exposes the need for a clear policy on AI-assisted translation. In the

current model, the editorial committee usually assigns one text to an individual translator. This model has helped ensure scholarly responsibility and philological accuracy. In the AI age, however, it is no longer necessary or efficient for all stages of translation to depend on the solitary labor of one specialist. AI systems can assist with draft production, terminology retrieval, parallel passage identification, consistency checking, and other repetitive task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BDK should entrust translation to AI for the sake of speed. The key issue is that its current translation policy has not yet defined which tasks require human interpretive authority and which tasks can be technically assisted. The rise of AI translation calls for a more differentiated workflow that allows translators to concentrate on the most valuable aspects of their work.

Second, AI foregrounds the problem of limited collaboration in the current model. Earlier in this paper, this limitation was discussed mainly in relation to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ts potential effects on translation readability and expressive quality. In the context of AI,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becomes more necessary. As Siu (2023a: 20) argues, LLMs like ChatGPT demonstrate remarkable “versatility” in handling translation-related tasks, such as analyzing source texts, explaining terminologies, generating translation drafts, detecting errors, and polishing translation style. While AI cannot replace human experts in doctrinal judgment or ethical responsibility, it can surpass any single human specialist in functional versatility and task integration. Under these conditions, the main bottleneck is no longer the shortage of qualified individual translators, but the lack of a collaborative workflow capable of integrating Buddhist textual expertise, translation craft, editorial judgment, and digital competence into a form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ird, AI also transforms the relevance of BDK’s minimalist annotation policy. In the print-based context, minimal annotation could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strategy to preserve readability and avoid distracting readers. However, AI changes the meaning of readability itself. AI-generated translations often appear smooth, coherent, and self-evident even when they misread doctrinal terms, flatten ambiguity, or ignore genre-specific features. If human translations also minimize

notes and absorb interpretive decisions silently into the body of translation, readers may not be able to distinguish a responsible Buddhist translation from a fluent machine-generated version. The new challenge today, therefore, is not to make translations merely readable and accessible, but also to make translators’ interpretive labor more visible and accountable.

In short, AI puts the BDK model under a stress test. While its scholar-led orientation and commitment to translation accuracy remain important strengths, some of its limitations become more visible, such as the absence of a clear AI-use policy, insufficient collaboration and task differentiation, and overemphasis on minimal annotation. BDK therefore needs to recalibrate its translation policy so that human translators can work more visibly, collaboratively, and critically within an AI-assisted translation ecology.

4.3. Toward a revised Buddhist translation policy

The above discussion illustrates that human translators and AI can achieve more together than either could accomplish alone. We suggest that BDK could consider moving toward a human-centered, AI-assisted workflow, in which digital tools are integrated into specific stages of translation while interpretive and editorial authority remains with human translators and reviewers. Figure 4 visualizes a tentative human –AI collaborative Buddhist translation work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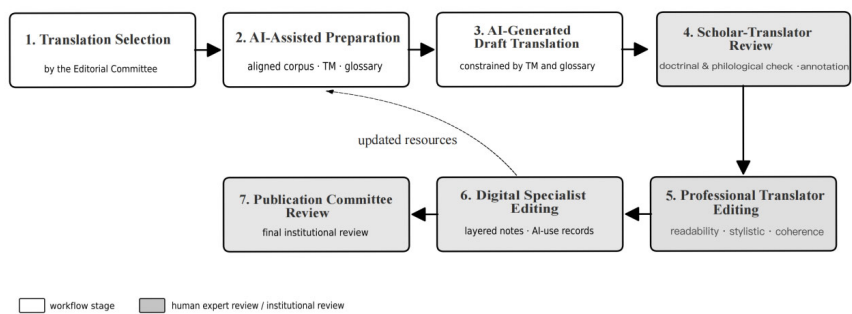


Figure 4. Human-AI collaborative Buddhist translation workflow

First, AI could support the preparation stag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Buddhist translation memory and terminology database. A BDK translation memory could be built by aligning source Buddhist texts with their existing BDK translations and adding metadata on genre, translator, doctrinal context, and historical background. Such a system would allow translators to retrieve key terms, formulaic expressions, parallel passages, and semantically related phrases across different texts. In addition, a terminology management protocol could be developed to help translators distinguish preferred renderings, alternative translations, context-sensitive usages, and contested terms. This would improve consistency and accuracy in the rendering of Buddhist terminology.

The first-stage preparation work could be managed by digital specialists with the assistance of AI tools. In the next stage, translation memory entries, glossaries, and contextual information could be incorporated into AI prompts before producing draft translations. As Siu (2023a: 9–10) suggests, providing terminological, contextual, and other task-specific information can substantially improve the quality of AI translation outputs. This method is also feasible as LLMs develop increasingly larger context windows. For instance, GPT-5.4 can now support a context window of one million tokens in API settings (OpenAI 2026). This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translators can provide in prompts. With appropriate prompting and domain-specific fine-tuning, AI-generated translation drafts would serve as a useful starting point for scholarly review and professional post-editing.

That said, AI should not be treated as an autonomous translator. It should function as a support tool that helps translators retrieve information, identify possible renderings, and reduce repetitive labor. Human review remains indispensable throughout the translation process, especially where decisions involve doctrinal interpretation, philological analysis, stylistic editing, and final quality control. As shown in Figure 4, a revised workflow could therefore involve several complementary forms of human review and post-editing. Buddhist scholars could examine doctrinal and philological accuracy and add annotations for difficult terms and passages. Professional translators could then improve readability, stylistic

consistency, and rhetorical coherence. Digital specialists would support the technical organization of the project by managing digital annotations, documenting AI use, maintaining translation memories, and updating terminology databases. Such a workflow would also require translators and editors to strengthen their digital literacy. They need not become programmers, but they should understand how AI and LLMs work, what their strengths and limitations are,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o translation-related tasks (Siu 2023b: 150; Vasylieva 2026: 16). This knowledge would help them evaluate AI outputs more critically, design better prompts, post-edit drafts more effectively, and decide when human judgment must override machine suggestions.

Finally, BDK could consider developing e-annotation in digital editions while preserving minimal annotation in print. E-annotation refers to optional, expandable, and searchable notes attached to an electronic translation. The main text could remain clean and readable, while readers who need further explanation could access additional layers of information. A basic layer might provide short notes on key figures, places, and terms. A second layer could offer philological and doctrinal explanations. A third layer could include a searchable glossary, Taishō references, parallel passages, and records of major translation decisions, including AI-assisted suggestions where relevant. This model would preserve BDK's commitment to accessibility while making translators' interpretive mediation more transparent. It would also increase the pedagogical, scholarly, and digital value of BDK translations by transforming them from static publications into reusable Buddhist translation resources.

5. Conclusion

This paper has examined the translation policy of the BDK Buddhist Canon Project and considered how it might be recalibrated in the age of AI. It has shown that BDK has developed a scholar-led, dissemination-oriented model that seeks to balance translation accuracy with reader accessibility. Compared with AI translation,

this model retains clear strengths in interpretive depth, philological accuracy, and ethical accountability. At the same time, AI-powered translation intensifies some of its limitations, including the absence of a clear AI-use policy, insufficient collaboration and task differentiation, and an overemphasis on minimal annotation that may obscure interpretive complexity.

For the path forward, this paper suggests that BDK could move toward a human-centered, AI-assisted translation model. In this model, machines would support drafting, checking, retrieval, and technical organization, while interpretive and editorial authority remains with human experts. This shift should be accompanied by fostering more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and cultivating a more diverse, sustainable, and digitally literate translator community. Digital layered annotation could also be adopted to make translators' interpretive labor more visible while preserving the readability of the main text.

Finally,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is study is limited by its reliance on publicly available BDK materials and selected translation examples. Future research could supplement this analysis with interviews with Buddhist translators, editors, and committee members, or with a larger corpus-based comparison of human and AI translations of Buddhist texts. Comparative studies of other Buddhist translation initiatives, such as the Korean Jogye Order's translation project and 84000: Translating the Words of the Buddha, could also reveal different layers of institutional Buddhist translation. Even so, the BDK case offers useful insights for rethinking translator competence, institutional translation management, and translators' ethical accountability in an increasingly AI-assisted translation ecology.

References

- Beal, S. (1871). *A Catena of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Chinese*. London: Trübner.
- BDK. (2023). Revised guideline for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Chinese Buddhist canon. *Newsletter Mahāpiṭaka* (online). Retrieved from <https://bdk-seiten.com/pdf/translation/Mahapitaka2023.pdf> on 4 May 2025.
- Bingenheimer, M. (2022). Machine translations of the CBETA corpus (online). Retrieved from <https://networks.h-net.org/node/6060/discussions/10365735/machine-translations-cbeta-corpus> on 4 May 2025.
- Burton-Rose, D. (2004). Thomas Cleary: An Oakland author and translator ranges through the many worlds of spiritual life (online). *San Francisco Bay Guardian Literary Supplement*. Retrieved from <https://healingtaousa.com/topic/thomas-cleary-interviews/> on 1 May 2025.
- Cleary, T. (Trans.). (1998). *The Blue Cliff Record*.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 Cultrera, I. and Basalamah, S. (2026). Deconstructing the bubble of AI translation: translation as embodied creativity. *Philosophy of Translation*: 1–23. <https://doi.org/10.1080/29984750.2026.2619748>.
- Dumoulin, H. (1992). *Zen Buddhism in the 20th Century* (J. S. O'leary, Trans.). New York: Weatherhill.
- Funayama, T. (2013). *Making Sutras into 'Classics' (jingdian): How Buddhist Scripture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Tokyo: Iwanami Shoten Publishers.
- González Núñez, G. (2016). *Translating in Linguistically Diverse Societies: Transl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ung, E. (2005). *Rewriting Chinese Translation History*.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 Jiang, P. (2021). A study on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Buddhist scriptures in the United States.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02): 46–51.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2). *The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Seoul: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 Kang, J. (2009).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Baker, M., and G.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n.). London: Routledge, 141–145.
- Koskinen, K.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An Ethnographic Study of EU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Kubo, T. and Yuyama, A. (Trans.). (2007). *The Lotus Sutra*.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 Li, R. (Trans.). (1995). *A Biography of the Tripiṭaka Master of the Great Ci'en Monastery of the Great Tang Dynasty*.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 Li, R. (Trans.). (1996). *The Great Tang Dynasty Record of the Western Regions*. Berkeley: BDK America.
- Meylaerts, R. (2011). Translation policy. In Gambier, Y., and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163–168.

- Mossop, B. (1988). Translating institutions: A missing factor in translation theory.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1(2): 65–71.
- Muller, C. (2014, May). The making of an ‘outstanding’ translation: Obstacles and solutions. Paper presented at the 5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ern Studies (Tōhō Gakkai), Retrieved from <http://www.acmuller.net/articles/2014-ices.docx> on 12 February 2024.
- Müller, F. M. (ed.) (1879–1910).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Oxford: Clarendon Press.
- Nattier, J. (2008). *A Guide to the Earliest Chinese Buddhist Translations: Texts from the East Han [dong han] and Three Kingdoms [san guo] Periods*. Tokyo: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 OpenAI. (2026). OpenAI API Documentation (online). Retrieved from <https://developers.openai.com/api/docs/models/gpt-5.4> on 1 June 2026.
- Pan, L. (2021). A brief English translation history of Chinese Buddhist texts: A survey based on the “Bibliography of Translations from the Chinese Buddhist Canon into Western Languages” in Taishō Shinshū Daizōkyō. *Journal of Translation History* (1): 55–68.
- Paul, D. Y. and McRae, J. (Trans.). (2004). *The Sutra of Queen Śrīmālā of the Lion’s Roar; The Vimalakīrti Sutra*.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 PEN America. (2026). Fairness in publishing (online). Retrieved from <https://pen.org/report/fairness-in-publishing/> on 3 April 2026.
- Richard, T. (Trans.). (1907).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Doctrine: The New Buddhism*.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Rousan, R., Jaradat, R. and Malkawi, M. (2025). ChatGPT translation vs. human translation: An examination of a literary Text. *Cogent Social Sciences* (11): 1–21.
- Siu, S. C. (2023a). ChatGPT and GPT-4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Exploring the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 in translation. *Computational Linguistic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Journal* 5(24). <https://doi.org/10.2139/ssrn.4448091>.
- Siu, S. C. (2023b). Navigating the world of Large Language Models: Inspiration for AI-assisted Buddhist translation—A review of *Foundation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lation Quarterly* (108): 149–158.
- Takakusu, J. and Watanabe, K. (1990). *Taishō Shinshū Buddhist Canon*, Taibei: Shihua Publishing House. Reprint of Tokyo: Taishō issaikyō kankōkai, 1924–1932.
- Tanaka, K. (2016). Searching for translators of Chinese Buddhist texts (online). Retrieved from <https://networks.h-net.org/node/6060/discussions/109901/searching-translators-chinese-buddhist-texts> on 4 May 2025.
- Toury, G. (2012).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John Benjamins.
- Vasylieva, M. (2026). The vanishing “untranslated” in the age of AI: Challenges for translator training in Buddhist Studies. *Contemporary Buddhism* 26(1): 71–92.
- Wei, X. (2024). The use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translating Buddhist texts from classical Chinese to modern English: An analysis and evaluation with ChatGPT 4, ERNIE Bot 4, and Gemini Advanced. *Religions* 15(12): 1–33.
- Yamabe, N. and Sueki, F. (Trans.). (2009). *The Sutra on the Concentration of Sitting Meditation*. Berkeley: BDK America.
- Zhu, C. (2011). The hermeneutics of Chan Buddhism: Reading koans from *The Blue Cliff Record*. *Asian*

- Philosophy* 21(4): 373–393.
- Zhu, Q. (2003). The impact of Buddhism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vocabulary. *Pumen Magazine* (15): 1–41.
- Zhu, Q. (2017). Buddhist Chinese (Buddhist Hybrid Chinese). In Behr, W., Y. Gu, Z. Handel, C. T. J. Huang, and J. Myers (eds.), *Encyclopedia of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Leiden and Boston: Brill, 318–330.

This paper was received on 6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sophiezhao1994@qq.com

mahuijuan@bfsu.edu.cn

About the authors

Yanfei Zhao (first author) is a PhD candidate in Translation Studies at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and a visiting student in Religious Studies at Yale University (2025~2026). Her research interests mainly include translation theory, Chinese Buddhist translation history and literature.

Huijuan Ma (Co-author) is a professor of Translation Studies and doctoral supervisor at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Her research fields include translation history, translation teaching, and cross-cultural translation studies. She has published widely in prestigious international translation journals, including *Perspectives*, *Meta*, and *Babel*.

Revisiting Eco-Translatology: An Exploration of “Dynamic Priority” with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in Translation*

Changyu Guo and Ruichen Zhou*****

This article presents a conceptual exploration aimed at enrich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within Eco-Translatolog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ynamic priority” as an extension. It begins by examining empirical studies grounded 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Through a re-evaluation of the analytical methods of the said stud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further discussions on the interplay among various dimensions. The study posits two hypotheses: (1) a priority dimension typically exists in the multidimensional adaptation; (2) the priority is inherently dynamic rather than static. Engaging with established theoretical perspectives of translation studies, it elucidates on the uneven prioritization of dimensions and how this priority can shif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illustrated with examples from the English-Chinese context. By delineating the fluid and complex nature of prioritization across the diverse dimensions of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study seeks to refine and expan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Eco-Translatology.

* This article is revised and expanded from a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3rd UK-China Symposium on Translation Studies The Human Touch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the Age of AI”, 11 April 2025, Zhuhai, Guangzhou province.

** Shandong University

*** 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Keywords: translation theory, Eco-Translatology, adaptation and selectio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dynamic priority

1. Introduction

This article presents a conceptual exploration aimed at enrich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within Eco-Translatology (Hu 2013). Section 1 provides a critical review of Eco-Translatology and its application in current empirical studies. Through a re-evaluation of the analytical methodologies underpinning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this sec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ng the interplay among various dimensions, while postulating two hypotheses concerning the new concept of “dynamic priority”. Section 2 expands on the first hypothesis by engaging with the established Skopos Theory literature and presen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ree English-Chinese translation cases studies. Section 3 develops the second hypothesis, examining how the priorities can shift across diverse dimensions in response to fluctuations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hereby elucidating the fluid and complex nature of prioritization throughout the translation process.

1.1. An Overview of Eco-Translatology and its Application in Empirical Studies

The Eco-Translatology, conceptualized by Hu Gengshen (2008a) and subsequently expanded by diverse Chinese academics,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utonomous and innovative paradigm within Chinese Translation Studies. This framework has garnered considerable international and domestic attention (Fu 2023: 26) and becoming the most frequently cited and academically influential Chinese translation theory (Fang 2024: 3). As Valdeón (2020: 651) notes, Eco-Translatology reflects a concerted effort by Chinese scholarship to bridge the gap between Eastern and Western translation research. Nonetheless, it calls for in-depth development of

research and further exploration of its theoretical framework, as acknowledged by Hu and other prominent Chinese scholars (Hu 2008a, 2020; J. Wang 2021a, 2021b; N. Wang 2011; Fu 2023; Fang 2024).

Developed upon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translation as adaptation and selection” (Hu 2003), Eco-Translatology steers translation studies towards an “ecological approach” (Hu 2020; Gu and Huang 2023). Utilizing a conceptual metaphor that aligns the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with ecology, this framework defines the “translational environment” as a concept encompassing all the linguistic, cultural, natur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of the source text (ST),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and the individuals involved (Hu 2003; Fang 2011, 2020). Furthermore, it positions the translator at the center of the translation ecosystem, tasking them with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textual strategies to adapt to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driven by the imperative of survival (Hu 2003).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new paradigm has sparked rigorous debate among Chinese academics (Wang Ning 2011; Chen 2014; Tan 2022; Gu and Huang 2023; Fu 2023; Fang 2024). Indeed, analysis by Han Ziman and Qian Hong (2021) of 14 international journals indexed in the Web of Science database indicates that Hu Gengshen’s work had garnered 25 international citations by 2020, accounting for over half of the citations received by Chinese translation studies within international journals.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represents a pivotal methodological approach within the Eco-Translatology (Hu 2020: 72), characterized on certain occasions as a “translation doctrine” (Hu 2020: 158). In essence, it serves as the foundational guiding principle to which translators are expected to adhere. Within Hu’s theorization, the operational focus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is encapsulated in the “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 which addresses the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dimensions. These specific dimensions align with established research foci among translation theorists and correspond to the inherent logic of translation (Hu 2020: 72-73). Hu (2011: 8)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se three planes: linguistic dimension encompasses various facets and levels of linguistic form; cultural adaptation

emphasizes the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connotations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meanwhile, communicative adaptation focuses on the selective transformation of communicative intent in the target language, extending beyond mere cultural conversion. Viewing the translated text as the culmination of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and finalization, Eco-Translatology suggests that the translator bears the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transform,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ecologies of the ST, ensuring the best “survival” and “longevity” of these ecologies within the target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Hu 2020: 73).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duce a translation that achieves a high degree of holistic adaptation and selection, thereby attaining a state of “balance and harmony” across these dimensions (Hu 2020: 72-73). Importantly, these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elements are constantly interconnected and rarely to isolate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Hu 2013: 236). By integrating the diverse dimensions inherent to translation, this method reflects a systemic nature that embodies the holistic perspective of Oriental philosophy (Hu 2021: 13).

Numerous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cross various domains—encompassing both literary and applied translation—utilizing “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 as the analytical framework (Jiao 2010; Bo 2014; Yu 2017; Wang and Yang 2018; Guo and Liu 2022; Chen 2023; Zhou and Guo 2025). Within the linguistic dimension, applied scholarships have examined translators' transformation in writing style (Jiao 2010; Guo and Liu 2022), word usage (Bo 2014; Yu 2017; Chen 2023), grammatical structures (Bo 2014), and register (Wang and Yang 2018; Zhou and Guo 2025), reflecting and underlying concern with the divergent characteristics of both languages. In the cultural dimension,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terms (Guo and Liu 2022; Chen 2023; Zhou and Guo 2025), alongside translation shifts involving religious content (Bo 2014) and sexually sensitive materials (Yu 2017). Regarding the communicative dimension, these investigations have focused o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ve purpose of the ST and the effect of the translated text on its audience (Jiao 2010; Bo 2014; Yu 2017; Guo and Liu 2022; Chen 2023; Zhou and

Guo 2025). However, existing empirical literature have typically analyzed these dimensions in isolation, and, at times, arbitrarily for the sake of convenience, with minimal attention paid to the interactions among them.

This methodological simplification reveals a conceptual divergence from underlying philosophy of Eco-Translatology stands for. As Hu (2020: 240) notes, among the applied studies guided by this paradigm, there is a problem of “a mixed bag,” and “some of them are superficial and that the phenomenon of an isola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theories of Eco-Translatology exists.” By overlooking the intricate interdependencies among these dimensions, such simplification results in subjective idealizations, thereby compromising the objectivity and robustnes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Crucially, Hu (2008b: 4) acknowledged, albeit without further theoretical elaboration, that ‘translators frequently engage in adaptiv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sequence or precedence of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o date, however, this observation remains largely an implicit assumption, lacking systematic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investigation. The present study therefore seeks to examine this issue explicitly by proposing that the components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are not uniformly distributed but may exhibit hierarchical relations that are dynamically shaped by contextual factors. In other words, with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a dimension may subsume others depending o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and the dynamic interplay among all dimensions consider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Levý (1967) conceptualized translation as a sequence of decisions where the translator chooses from available alternatives. Similarly, Vermeer (1972) posited that, like any other action, translation is intentional behavior in a given situation. In the process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translators do not simply operate heuristically; rather, they engage in thoughtful decision-making driven by considerations of given circumstances. As rational agents, translators methodically evaluate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and identify the dimension they deem paramount most significant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Consequently, this study conceptualizes and operationalizes this dominant dimension as the “priority dimension.”

1.2. Analyzing “Dynamic Priority” to Enrich the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In light of the foregoing analysis, this article aims to delineate a theoretical extension to the analytical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within which translators execute adaptive selections to achieve optimal viability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o this end, two central hypotheses are postulated:

- (1) A priority dimension predominates in multidimensional adaptation and adaptive selection, rendering alternative dimensions secondary in hierarchy;
- (2) The priority dimension is dynamic rather than static, contingent upon the translator's strategic choices influenced as modulated by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As Tan (2009) underscored, the Chinese scholarship can only benefit from interacting with external academic traditions, nothing that Sinocentrism poses as significant a threat to the evolution of translation studies as Eurocentrism. For Eco-Translatology to thrive, it must draw sustenance symbiotically from both Chinese traditions and Western translation studies. Aligned with this principle, this study fosters a dialogue with established international scholarship on decision-making theory to enrich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dditionally, the article includes an empirical study, presenting representative examples from English-Chinese context to illustrate our hypotheses. Additionally,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operationalized through an empirical component, utilizing purposive examples from the English-Chinese translation context to validate the proposed hypotheses.

2. The Priority Dimension in a Hierarchical System

In the execution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s, prevailing theoretical assumptions dictate that it is optimal for translators, leveraging their expertise and creativity, to adapt the ST to the translational ecology of the TT across as many dimensions as possible. Hu (2006: 50) asserted that “the more dimensions of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he translator adapts to, and the more appropriate the adaptive choices made, the higher the degree of holistic adaptation and selection.”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a balance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encompasses within the translational process.

Nevertheless, there are inherent gains and losses in these adaptive dimensions. Even among translations executed by highly experienced translators, attaining a flawless equilibrium across different dimensions and elements remains atypical. Empirical observations reveal pervasive asymmetries in the distribution of priority across various levels and dimensions, this frequently culminates in adaptive transformations that accentuate specific aspects while relegating others deemed less contextually salient. Seidensticker, the English translator of *The Tale of Genji* (1021), conceptualizes this tension as a “dilemma between balance and compromise,” posting the necessity of sacrificing certain details or cultural nuances of the ST to preserve its linguistic beauty and emotional impact (Shikibu 1993). Similarly, Alicia Relinque, the Spanish translator of *The Peony's Pavilion* (1617), highlights the friction of balancing musicality with cultural elements, observing that “sometimes some element necessarily affects the elegance of the compositions” (Tang 2016: 16-17).

This dilemma accentuates the pivotal role of the translator's agency, requiring a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o execute a series of deliberate choices that ensure the evolutionary viability of the translated text. Existing scholarship has extensively scrutinized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process (Levy 1967; Vermeer 1972; Reiss 1981; Robinson 1991; Venuti 1995). Among these contributions, the Skopos theory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macroscopic frameworks, offering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governing translational choice. By formulating the Skopos Theory, Vermeer (1972) and Reiss (1981) transcended the previously dominant paradigm of functional equivalence, which emphasized the linguistic approach and the ST-based translation at the micro level. According to this theory:

Each text is produced for a given purpose and should serve this purpose...The Skopos Rule thus reads as follows: translate/interpret/speak/write in a way that enables your text/translation to function in the situation it is used and with the people who want to use it and precisely in the way they want it to function (Nord 1997).

To further delimit the concept of “purpose,” Reiss (1981) conceptualized translation as a communication action, emphasizing that every written text harbors single or multiple intentions; however, in most cases, a primary intention (referred to as the “text’s dominant function”) generally prevails. Based on this premise, Reiss (1981) proposed the Functional Category Modal (FCM), which classifies texts according to their predominant communicative function into three types—informative, expressive—while prescribing specific translation strategies for each.

Skopos Theory and FCM offer valuable insights for refining the framework of “the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First, their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functional equivalence theory challenges the long-held myth of attaining a perfectly balanced translation. By broadening the focus beyond the ST to include the TT and other agent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integration foster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changes” (Reiss 1981: 121-122) introduced by translators.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text types based on their dominant communicative function sheds light on the prioritization and sequencing of various factors within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process. This approach reveals a hierarchical structure among different dimensions within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system. Importantly, the concept of “priority dimension” should not be equated with the notion of skopos. Skopos primarily refers to the intended purpose or function of a translation and is typically established prior to the translation process. By contrast, a priority dimension

describes the relative prominence of linguistic, cultural, or communicative adaptation within the translator's ongoing decision-making system. While translational purposes may influence the emergence of a priority dimension, the latter is not predetermined but dynamically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multiple factors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In this sense, priority dimension concerns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adaptive translational choices rather than the external purpose of translation itself.

However, two significant issues remain unresolved. First, while the means-end linear logic of Skopos Theory offers a practical approach for analyzing translations in real-world contexts, the elements that define the purpose of a translation are insufficiently operationalized in Vermeer's Skopos rule. Conversely, within the FCM, these elements are often reduced solely to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the ST;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such a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S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both languages, and external stakeholders (including commissioners, revisors, editors and readers)—is either insufficiently addressed or merely conceptualized in general terms. Second, the Skopos Theory's emphasis on the TT renders it less applicable to texts intended primarily to exist autonomously. Nord (2012) argues that, as a functionalist theory, it inherently oversimplifies the linguistic situation of a text, thereby complicating a comprehensive contextual survey. For example, scholars have demonstrated its limitations in addressing literary works characterized by highly stylized languages (Snell-Hornby 1990; Schäffner 1998; Du 2012).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priority dimens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This concept should simultaneously reflect the hierarchic nature of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system while comprehensively accounting for all elements influencing this process. Accordingly, the "priority dimens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 (1) Translators generally designate a specific dimension as the priority dimension when engaging 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while relegating alternative dimensions to a secondary status;
- (2) The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dimension is informed by a multitude of factors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encompassing the textual the

ecologies of both the ST and TT, boarder socio-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longside the roles of all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 (3) Once the priority dimension is identified, translational dispositions are formulated to ensure optimal adaptation withing that specific dimension, while adaptations in alternative dimensions may be compromised when necessary.

The following sections present three cases studies in which the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dimensions precede as the primary focus. These cases demonstrate how translators identify the priority dimension during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and how this subsequently dictates the translational dispositions.

2.1. Linguistic Dimension as the Priority Dimension

The first cases study analyzes the Chinese translations of Percy Bysshe Shelley's poem *Ode to the West Wind*. As Wang Dongfeng (2022: 82) observes, "many metrical poems, both Chinese and foreign, are celebrated not for their content but for their form—the artistic impact of their poetic structure." This literary piece exemplifies the aesthetics principle of "art for art's sake". Aligning with this perspective, Reiss (1981: 124-128) posits that the primary challenge in translating a highly expressive text—where the poetic function predominates—requires the creation of an "analogy of artistic form."

Since the poem's introduction to China in the 1920s, translators have consistently strived to achieve adaptive transformations at the linguistic level, employing various techniques to replicate the auditory effects of iambic pentameter inherent in the ST (Shelley 1990, 1996, 2010). In his 1996 translation, Bian Zhilin employed the concept of "replacing foot with dun" (Bian et al. 1959), which accentuates rhythm based on the semantic units of the Chinese language. More recently, Wang (2022) proposed "ping-ze for foot," a method leveraging ping-ze (平仄, the flat-oblique tone sequence in Chinese) to represent the metrical foot characteristic of English poetry. These versions highlight the persistent focus on linguistic adaptation among

Chinese translators, who continuously refine their methods to enhance adaptability in this dimension, thereby aligning the translation with the linguistic patterns of the target language.

Preserving the artistic form often necessitates sacrificing certain cultural details from the ST, as adaptations in these peripheral dimensions are typically deemed less critical in the translation of poetic texts. In the realm of poetry translation, Benjamin (2004: 75) argues that the essence of a poem “is not statement or the imparting of information, hence, something inessential”, asserting that any effort to preserve what a literary work explicitly states “is the hallmark of bad translations.” For example, in Wang Dongfeng’s 2022 translation, some details are minimally aligned with the ST to achieve the desired metrical effect: the “clarion” of the West Wind and the “lyre” are replaced by 螺号 [shell trumpet] and 竖琴 [harp], respectively (Wang 2022: 89-90), thereby generating disyllabic words that fit the ping-ze metrical structure of the TT.

2.2. Cultural Dimension as the Priority Dimension

A comparable case is found in Fu Donghua’s 1940 translation of *Gone with the Wind* (Mitchell 2008). This translation prioritizes the social-political context of the era and reflects the translator’s agency, having been produced in Shanghai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1-1945). This historical period was characterized by stringent censorship policies that targeted serious anti-war novels, while demonstrating relative leniency towards popular literature (Zhou and Xu 2015: 41). Within this restrictive environment, Fu intended to introduce *Gone with the Wind*, which depicts the protagonist’s struggle for survival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Despite the geopolitical constraints impos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the translation aimed to inspire hope among Chinese readers.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limited influx of Western literature translations into Chinese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s among Chinese readers (Yang 2016: 137). Consequently, extensive cultural adaptation was imperative to facilitate the

comprehension and acceptance of the novel by the Chinese audience.

Fu's translation strategy prominently featured the domestication of foreign cultural elements to enhance comprehension among target-text readers. For instance, socio-cultural terms such as "chamberlain," "king and queen," and "maid"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equivalents with similar social functions 头等的太监 [chief eunuch], 皇帝皇后 [emperor and empress consort], and 丫头 [young domestic servant]. In this version, the exotic attributes of the ST were minimized, thereby portraying the protagonist, Scarlett, as a Chinese woman who contents with love, life, and freedom. This approach aimed to foster greater empathy among Chinese readers, encouraging resilience in the face of their own adversities.

However, this domesticating strategy exemplifies what Venuti (1995: 20) describes as an "ethnocentric reduction of the foreign text to target-language cultural values," which frequently induces a loss of information from the ST (Gile 2002: 251). Consequently, adaptation within the informative dimension is often marginalized to prioritize socio-cultural alignment. For example, Christian religious concepts such as "shrine," "convent," and "God" were replaced with Buddhist analogues: 神龛 [Buddhist niche], 尼姑庵 [nunnery], and 天 [Heaven]. At the textual level, descriptions of the Civil War, alongside specific geographical and character backgrounds, were omitted. As Fu notes in the preface, "the American Civil War as depicted in this book is 80 years and tens of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us, so what relevance does it have to our own affairs?" (Mitchell 2008). Thus,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from the ST is strategically employed to achieve optimal transformation within the cultural dimension.

2.3. Communicative Dimension as the Priority Dimension

Yan Fu (1854-1921)'s 1898 translation of *Evolution and Ethics* (Huxley 1947) represents a pivotal intersection of intellectual endeavor during a transformative period in Chinese history. Following the end of the First Opium War (1840-1842), which terminated the Qing Dynasty's isolation, China entered a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foreign encroachment. By the 1860s, reform-minded officials

spearheaded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1861-1895). This initiative, symbolized by the slogan “Learn the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from the foreigners to counter their invasion” (師夷長技以制夷), sought to modernize China’s military and industrial capabilities. However, the disastrous defeat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甲午戰爭) necessitated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prevailing policy “Chinese Learning as Substance, Western Learning for Application” (中體西用). This military failure prompted reforms to advocate for systemic socio-political reforms aimed at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monarchy. In response to simultaneous external threats and internal instability, Yan Fu engaged with Western thought, aiming to “reinforce Chinese nationality and preserve the nation” (Huxley 1947: 3). Crucially, that intellectual stance was not merely a subjective choice but rather a direct manifestation of dialectical influences between the individual agency and the boarder socio-political milieu. Furthermore, the sociological adaptation of natural concepts in Huxley’s work is not an isolated phenomenon in China; it paralleled similar developments in Japan and South Korea, profoundly shaping respective histories of modernization (Yu 2014).

In Yan Fu’s adaptation, an essay originally focused on the natural laws of biological evolution was reinterpreted as a discourse on social evolution, and the title was translated as *On the Evolution of Tian* (1898). Within Chinese cosmology, 天 denotes a supreme objective entity governing both the natural and human realms. Through this title, Yan Fu implied that social reform was not only necessary but mandated by a higher, quasi-divine will. Consequently, he extended the discussion of natural evolution to include human societies:

(1)

ST: [...] not merely the world of plants, but that of animals; not merely living things, but the whole fabric of the earth; not merely our planet, but the whole solar system; not merely our star and its satellites, but the millions of similar bodies which bear witness to the order which pervades boundless space, and has endured through boundless time, are all working out their predestined courses of evolution. (Huxley 1894: 7)

TT: 凡兹运行之理，乃化机所以不息之精，苟能静观，随在可察；小之极于行倒生，大之放乎日星天地，隐之则神思智识之所以圣狂，显之则政俗文章之所以沿革，言其要道，皆可一言蔽之，曰天演是已。(Huxley 1947: 5)

[All things are in constant flux. If you can observe carefully, it is everywhere. From the smallest organism to the largest sun, stars and the heavens, this law is universally applicable. When this law is obscured, it induces intellectual turmoil; when it is revealed, it calls for reforms in political essays. In essence, it embodies the evolution of Tian.]

Through a significant translation shift, descriptions originally detailing the biological laws affecting “animals and plants” were broadened to articulate a universal principle applicable universally. Furthermore, the translator introduced a political dimension, positing that social transformation was preordained. This adaptation underscores his communicative intent to persuade the populace to support transformative actions aimed at preserving the Qing dynasty (1644-1911).

Culturally, however, Yan Fu omitted most religious concepts from the ST, while political terms associated with Western democracies, such as “laws”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were translated into Qing terminology as 刑与礼 [laws and rites] and 君 [emperor], without further distinction. This strategy was designed to make the text more accessible to Chinese readers, who were largely unfamiliar with western political contexts, thereby reducing cultural barriers and more and potentially fostering support for social reform.

Upon its release, Yan Fu’s translation profoundly impacted Chinese society. The Darwinian principl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resonated widely and influenced key reformers during the Hundred Days’ Reform (1898), with Kang Youwei (1858-1927) notably hailing Yan Fu as “the first Chinese scholar of Western studies.” Concurrently, Yan Fu’s translation philosophy, encapsulated in his preface through the criteria of “faithfulness, expressiveness, and elegance” (信达雅), became seminal in modern Chinese translation theory. Huang Zhonglian (2009: 7-8) attributes the success of this work of the Yan Fu’s translation profound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ociopolitical needs and his adept adaptation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of his era. Firm in his belief that translation

should catalyze social reform, Yan Fu prioritized th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of his work, whereby cultural adaptation served a secondary role in fulfilling his primary communicative objectives.

The three cases discussed above constitute quintessential examples of how English literary and academic genres—specifically poetry, prose fiction, and scientific treatises—are successfully translated into Chinese. An analysis of these examples demonstrates that the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possesses a robust explanatory power regarding the mechanisms and rationales underlying translator’s engagement in adaptive transformation across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dimensions. However, the analysis also reveals that withing this transformation, a specific dimension is frequently prioritized, governed by the translator’s assessment of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In empirical studies, the prioritized dimension may be identified through translators’ prefaces, commentaries, and other paratextual materials, or inferred inductively from recurring translation features and strategic patterns throughout the translated text. In the pursuit of optimizing adaptation within this priority dimension, adjustments in other dimensions are either strategically implemented or compromised. Importantly, no dimension operates in isolation; instead, they interact dynamically withing a unified system.

3. The Priority Dimension in Dynamic Shift

Rather than being static, the priority dimension is inherently dynamic. This inherent dynamicity manifests at both the macro and micro levels.

On a macro level, the priority dimension fluctuates across different texts and contexts, conditioned by shifts within the broader constituents of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hese include the linguistic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ST, the cultural distance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the socio-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surrounding the translation, as well as the ideologies, economic interests, and intellectual backgrounds of the agents involved.

This dynamicity is thoroughly documented within existing scholarship on the factors shaping the translation process. For instance, the lingu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theory delineate distinct methodologies or criteria predicated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ST (Reiss 1981; Newmark 1988). Since the cultural turn of the 1990s, scholars have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of cultural distance between languages and the power relations embedded withi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of translation (Bassnett and Lefevere 1996). Furthermore, constructivist perspectives adopt a sociological lens, incorporating the roles of various agent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Bourdieu 1977). Recent case studies on retranslation demonstrate that identical source texts can yield divergent translational dispositions across varying spatiotemporal contexts. This variability is exemplified by contrasting Yan Fu's translation of *Evolution and Ethics* with the 1971 version published by Science Press (Huxley 1971). Yan Fu's rendition tends to omit or domesticate most foreign religious and political concepts, whereas the 1971 translation employs a foreignization strategy, preserving these terms in their original form. This shift can be contextualized with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milieu of the era, which saw Chinese authorities promoting the assimilation of Enlightenment-era culture from capitalist countries. As noted in the translator's preface of the 1971 edition, drawing from *Quotations from Chairman Mao Tse-tung* (1893-1976), "The culture of the Age of Enlightenment of the capitalist countries should be absorbed, as much as we can use it today" (资本主义国家启蒙时代的文化, 凡属我们今天用得着的东西, 都应该吸收) (Huxley 1971: 1-2). Consequentl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adaptations elucidates how the prioritization of specific dimensions during the adaptation and selection processes fluctuates in response to shifts 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s.

However, micro-level shifts translational strategies remain comparatively under-researched. Within a single text, the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dimension is not monolithic; the priority dimension initially established at the textual level does not necessarily dictate adaptive transformations throughout the entire corpus and may undergo dynamic shifts at various linguistics strata. This notion aligns with Bassnett's opposition to "absolute and inflexible translation" (Bassnett 2002: 96).

Similarly, Grimm's analogy, as quoted by Reiss (1981), illustrates this viewpoint by likening translation to navigating a ship across diverse maritime conditions. In this analogy, the translator is compared to a seasoned captain who adeptly steers the vessel through varied environments such as shoals, lakes, and seas, implying the lack of flexibility jeopardizes the translational endeavor. Complementing this view, Reiss (1981: 123) posits that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follow a three-stage procedure, starting with the text as a whole and concluding with the smallest textual units. This approach underscores a dynamic and integrative perspective on translation. Accordingly, while a priority dimension may be established at a macroscopic level—determined by the translator's negotiation within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and guided by teleological purpose of the translation—this priority may shift continuously across chapters, paragraphs, and even sentences or words, necessitating the strategic recalibration of other dimensions.

Consequently, the priority dimension in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undergoes dynamic shifts at both the macro and micro levels. In the following sections, three examples of such shift within the translations introduced in Section 2 are analyzed in order to elucidate the dynamic nature of this phenomenon.

3.1. Cultural Adaptation Prevails over Linguistic Adaptation

An examination of Wang's 2022 translation of *Ode to the West Wind* demonstrates that the linguistic dimension is prioritized, owing to the expressive nature of the ST's artistic form and the translator's overriding purpose. However, significant cultural adaptation remains evident, particularly in the second stanza.

(2)

ST: Angels of rain and lightning: there are spread / On the blue surface of thine
aery surge, / Like the bright hair uplifted from the head / Of some fierce
Maenad, even from the dim verge / Of the horizon to the zenith's height,
/ The locks of the approaching storm. (Shelley 1820: 180)

TT: 疑是雷雨天使：延亘千里， / 风染蓝韵如有天纵神遣， / 雷暴将至，天上云
卷风起， / 浑若司酒狂女身隐天边 / 昏暗深处高据九霄之最， / 撩起额上
云发，豪放无限。(Wang 2022: 88-89)

[The angel of the thunderstorm and rain: it stretches for thousands of kilometers,
/ the wind stains the blue rhyme as if gods were sent by Tian, / the thunderstorm
is approaching, the sky is swirling with clouds and the wind is rising, / the fierce
woman in charge of wine is hidden in the sky, / in the dark top of nine levels
of the sky, / lifting up the cloudy hair on her forehead, with unlimited boldness
and freedom.]

This section underscores the dominion of the wind over the sky through a series of allusions to Greek mythology. The storm is metaphorically conceptualized as the Maenads—the frenzied worshipped of Dionysus renowned for their ecstatic cries and disheveled hair during ritualistic intoxication (Wilcox 1950: 640). This metaphor not only visualizes the potency of the west wind but also highlights the intricate connection between the human and supernatural realms within a sacred universe, a connection mediated through the recitation of verse. Thus, the poet capitalizes on a motif of witchcraft, assuming the tripartite identity of poet, witch, and prophet (Zhang 1993: 84). Hence, decoding the aesthetic value and creative intent of this stanza necessitates a comprehensive grasp of the cultural background underlying these mythic figures, which typically lie outside the cultural repertoire of the target-text audience. Cultural adaptation, however, becomes a semiotic necessity in the translation of this passage.

In Wang’s rendition, rather than opting for a literal transfer, cultural adaptations are employed to achieve “dynamic equivalence”—a translational benchmark wherein the message of the ST is so effectively conveyed into the receptor language that the response of the target receptor closely mirrors that of the original audience (Nida 1969: 200). Specifically, the phrase “some fierce Maenad” is translated as 司酒狂女 [the fierce woman in charge of wine], which clarifies her identity while explicitly linking it to her irrational nature. Furthermore, the concept of 九霄 [nine levels of the sky], which denotes the highest heaven in tradition Han cosmology

汉族, is integrated into the text. The stormy blue sky is depicted as a locale for mythic figures dispatched by 天—the supreme deity in Chinese cosmology who serves as an analogue to the concept of “God” in Christian traditions. This cultural adaptation enables target language readers to perceive the mythic tone of the piece, thereby eliciting a similar aesthetic impact and receptive response.

3.2. Communicative Adaptation Prevails over Cultural Adaptation

In a similar vein, within Fu Donghua’s translation of *Gone with the Wind*, although cultural adaptation remains the predominant strategy, alterations in other dimensions are equally apparent. One such instance occurs during Rhett’s inquiry:

(3)

ST: “You are well enough, I see. Then, tell me this. Was I the only iron you had in the fire?” His eyes were keen and alert, watching every change in her face. (Mitchell 1947: 571)

TT: “我看是可以的了。那么，请你告诉我一句话，你所钓的鱼儿是不是只有我一条？”他一面问，一面尖着眼睛，注意观察着她脸上的变化。
(Mitchell 2008: 587)

[“I think it’s OK. So, tell me one thing. Am I the only fish you’ve caught?” He asked with his keen eyes and attentive to the change in her face.]

Within this context, by questioning whether he is “the only iron in the fire,” Rhett probes Scarlett’s sincerity, thereby exposing his jealousy. In English, the phrase “iron in the fire” metaphorically denotes having multiple options or alternatives; consequently, an individual with “many irons in the fire” possesses a multitude of plans or opportunities. Rhett employs this idiomatic expression to subtly ascertain if he is the exclusive object of Scarlett’s flirtation, adopting a playful tone. In this dialogue, the communicative purpose—which cente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behaviors—is paramount. Instead of utilizing a

cultural adaptation—such as providing a literal translation of the metaphor accompanied by an explanatory footnote, which constituted a viable alternative—Fu replaces it with the domestic metaphor 所钓的鱼儿 [caught fish]. This substitution effectively captures the communicative intent and the playful tone inherent in the ST.

3.3. Linguistic Adaptation Prevails over Communicative Dimension

The dynamic nature of translational priorities is further exemplified in Yan Fu's translation of *Evolution and Ethics*. In textual segments not directly pertaining to the laws of evolutio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ve fidelity diminishes, while linguistic considerations assume precedence. Consider the following case:

(4)

ST: In other words, let sympathy be your guide; put yourself in the place of the man towards whom your action is directed; and do to him what you would like to have done to yourself under the circumstances. (Huxley 1894: 31)

TT: 泰西者曰：施人如己所欲受。又曰：设身处地，待人如己之期人。
(Huxley 1947: 34)

[A famous Western scholar said: "Treat others as you would expect to be treated." He also says: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and treat them as you would expect to be treated."]

The ST features highly concise, scientific language, nevertheless Yan metamorphoses the linguistic style to align with that of the Tongcheng School (桐城派), a prominent Qing dynasty (1644-1912) literary movement that advocated Neo-Confucian (新儒學) values and emulated the prose styles of the Pre-Qin period (221 BC). This classical style is characterized by its syntactic conciseness, adherence to the metrical conventions of ancient Chinese, and the employment of archaic vocabulary (Han 2006). Yan's stylistic shift, motivated by both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ST and the ideological and aesthetic preferences of contemporary Chinese scholars, was so masterfully executed that the renowned Chinese writer Lu Xun (1881-1936) (1973: 375) lauded the translation for its conceptual lucidity and aesthetic beauty.

These case studies illustrate the intricate interplay inherent in translational adaptations, where various dimensions interact within a system characterized by a fluid hierarchy, subject to the perpetual fluctuations of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First, the priority assigned to specific dimensions varies across different texts. Second, even within the translation of a singular source text, the prioritized dimension may shift across different contexts, as demonstrated in the comparison of the two versions of *Evolution and Ethics*. Third, the preeminence of a priority dimension does not preclude adaptations in other dimensions; on the contrary, these subordinate adaptations enhance the overall translation by subserving the needs of the prioritized dimension. The three core dimension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xed hierarchical structure. Rather, their relative prominence is dynamically generated by contextual conditions, and the dominant dimension may vary according to specific translational eco-environments. In some instances, significant adaptations in other dimensions may be undertaken when deemed necessary by the translator, thereby underscor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priority dimension.

4. Conclusion

Drawing upon a critical overview of the widely applied analytical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within Eco-Translatology, and engaging with relevant scholarship on the translator’s decision-making proces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dispelling the myth of balanced adaptation and further explores the interplay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in which the translator adapts to the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Consequently, the concept of “dynamic priority” is proposed as an extension of this framework, underpinned by three key

principles:

- (1) The various dimensions in adaptive transformation must be examined as an interconnected whole rather than in isolated entities;
- (2) Among these dimensions, a priority dimension is permanently operative, delineated by the translato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This dimension assumes precedence in adaptive process, while others may be strategically compromised to accommodate situational demands;
- (3) The priority dimension is inherently dynamic, shifting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in response to the fluctuations of the specific translational eco-environment.

As Richards posited, translation “is probably the most complex type of event in the history of the cosmos” (Nida 1993: 1). Addressing this inherent complexity requires an interactive and dynamic analytical approach. This refined framework harmonizes the *systemic* and *focused* aspects of the “multidimensional transformation”, where the system is both comprehensive and centralized, and the focus is an integral part of the system. This enhancement fortifies the theoretical robustness of the framework and expands its explanatory power, thereby facilitating more rigorous and integrative empirical inquiries.

As Popper (1963) asserted, every scientific theory is fundamentally provisional and open to revision in the light of new evidence. The incompleteness of theoretical research is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scientific progress and serves as an enduring driving force for academic inquiry. Due to the spatial constraints, this article leaves unaddressed the application of the refined framework to additional textual genres beyond those examined herein. Acknowledging the framework’s current limitations, future theoretical discourse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are invited to continue to refine and expand this promising analytical model.

References

- Bassnett, S. and Lefevere, A. (1996).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Continuum-3PL.
-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 Routledge.
- Benjamin, W. (2004). The task of the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ledge, 75-83.
- Bian, Z., Ye, S., Yuan K. and Chen S. (1959). Ten years of translation and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Foreign Literature Review* 5: 41-77.
- Bo, T. (2014). A study on advertisement translation based on the theory of Eco-Translatology.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5(3): 708-713.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S. (2014). The paradox of Eco-Translatology: discussion with Professor Hu Gengshen. *Chinese Translators Journal* 35(2): 68-73.
- Chen, Y-C. (2023). An Eco-Translatology approach to investigating the translation of comics: case study of *The Sayings of Zhuangzi*. *Meta* 68(2): 224-244.
- Du, X. (2012). A brief introduction of Skopos Theory.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2(10): 2189-2193.
- Fang, M. (2011). On translation eco-environment.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1: 1-5.
- Fang, M. (2020). Further thoughts on Eco-translation environment. *Chinese Translators Journal* 41(5): 20-27.
- Fang, M. (2024). Eco-Translatology going out to the world. *Technology Enhanc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1: 3-8.
- Fu, J. (2023). Action/system/function: a sociological approach to Eco-Translatology. *Chinese Translators Journal* 44(5): 26-34.
- Gile, D. (2002).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John Benjamins.
- Gu, J. and Huang, Z. (2023). On the generation of translation thoughts of Hu Gengshen. *Foreign Languages Research* 40(6): 103-107.
- Guo, C. and Liu, R. (2022). A study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from the perspectives of Eco-Translatology.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74: 255-273.
- Han J. (2006). *Yan Fu's discourse system and cultural transformation in modern China*. Shanghai Translation Publishing House.
- Han, Z. and Qian, H. (2021).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translation theories: present status and prospect. *Chinese Translators Journal* 6: 103-110.
- Hu, G. (2020). *Eco-Translatology: towards an eco-paradigm of translation studies*. Springer.
- Hu, G. (2003). Translation as adaptation and selectio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1(4): 283-291.
- Hu, G. (2006). Exemplifying the translation principle and translation methods of "adaptation and selection theory". *Foreign Languages and Their Teaching* 3: 49-52.
- Hu, G. (2008a). Eco-Translatology: a primer. *Chinese Translators Journal* 6: 11-15.

- Hu, G. (2008b). Interpreting the theory through its terminologies. An overview of the adaptation and selection theory.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2: 1-5.
- Hu, G. (2011). Eco-Translatology: research foci and theoretical tenets. *China Translators Journal* 2: 5-9.
- Hu, G. (2013). *Eco-Translatology: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The Commercial Press.
- Hu, G. (2021). The Dao of “eco-life” oriented translation: tracking three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Eco-Translatology. *Chinese Translators Journal* 42(6): 5-14.
- Huang, Z. (2009). Adaptation and choice: exploring Yan Fu’s translation thought.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4: 7-11.
- Jiao, W. (2010). Yan Fu’s translation of *Evolution and ethics* revisited: an Eco-translatological perspective.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4: 6-10.
- Levy, J. (1967). Translation as a decision process. In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70. birthday, 11. October 1966*. De Gruyter Mouton, 1171-1182.
- Lu, X. (1973). *Selected Works of Lu Xun. Vol. 4*.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 Nida, E. A.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E.J. Brill.
- Nida, E. A. (1993). *Language, culture, and translating*.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 Nord, C.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St. Jerome Publishing.
- Nord, C. (2012). Quo vadis, functional translatology?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4(1): 26-42.
- Popper, K.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Routledge.
- Reiss, K. (1981). Type, kind and individuality of text: decision making in translation. *Poetics Today* 2(4): 121-131.
- Robinson, D. (1991). *The translator’s tur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chäffner, C. (1997). Skopos Theory. In M. Baker, and G.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235-238.
- Shikibu, M. (1993). *The Tale of Genji* (E. Seidensticker, Trans.). Everyman’s Library.
- Snell-Hornby, M. (1990).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In S. Bassnett, and A. Lefevere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edited by Susan Bassnett, and Andre Lefevere. Pinter, 79-86.
- Tan, H. (2022). Eco-Translatology: towards an eco-paradigm of translation studies. (Hugs) Gengshen Hu, Singapore, Springer, 2020, XXIV, 312 pp., (hardcover), ISBN 978-981-15-2259-8, (e-book), ISBN 978-981-15-2260-4, (softcover), ISBN 978-981-15-2262-8. *Studia Neophilologica* 94(1): 133-137.
- Tan, Z. (2009). The “Chineseness” vs. “Non-Chineseness” of Chinese translation theory. *The Translator* 15(2): 283-304.
- Valdeón, R. A. (2020). Literary translation research in China.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8(5): 645-658.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 Vermeer, H. (1972).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Eine einföhrung*. Rombach.
- Wang, C. and Yang, Y. (2018). A study of English translation of public notices of TCM hospitals from

- the perspective of Eco-Translatology.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4: 39-43.
- Wang, D. (2022). A new approach to rhythmic translation of English poems: with a retranslation of *Ode to the west wind* as an illustration. *Chinese Translators Journal* 4: 82-91.
- Wang, J. (2021a).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f Eco-Translat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pure” translation studies. *Journal of Foreign Languages* 44(4): 85-93.
- Wang, J. (2021b). Philosophical contradictions and misuse of metaphors: an analysis of “translation as adaptation and selection”. *Chinese Translators Journal* 42(3): 133-141.
- Wang, N. (2011). Eco-literature and Eco-Translatology: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Chinese Translators Journal* 32(2): 10-15.
- Wang, D. and Shen, D. (1999).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translating. *Meta* 44(1): 78-100.
- Wilcox, S. C. (1950). Imagery, ideas and design in Shelley’s *Ode to the west wind*. *Studies in Philology* 47(4): 634-649.
- Yang, X. (2016). On Fu Donghua’s transla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taking the translation of the American novel *Gone with the wind* as an example. *Journal of Hubei University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7): 136-137.
- Yoo, B-H. (2014). Acceptance of East Asia social evolution theory and its genealogy: introductory study on the epistemology of social evolution theory of new novel writers. *Korean Studies Research* 32: 177-207.
- Yu, Z. (2017). Translation as adaptation and selection: a feminist case. *Perspectives* : 25(1): 49-65.
- Zhang, D. (1993). The witchcraft motive of *Ode to the west wind*. *Foreign Literature Review* 4: 83-89.
- Zhou, R. and Guo, C. (2025). How Translation Survives? Adaptation and Selection in the Spanish Version of *The Peony Pavilion*. *T&I Review* 15(2): 113-145.
- Zhou, W. and Xu, J. (2015). Analysis of Fu Donghua’s translation of *Gone with the wind* from the perspective of Eco-Translatology. *Masterpieces Review* 35: 40-42.

[Analyzed Texts]

- Mitchell, M. 1947. *Gone with the wind*. Penguin Books.
- Mitchell, M. (2008). *Gone with the wind* (D. Fu, Trans.). Zhejiang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 Huxley, T. H. (1894).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 Macmillan.
- Huxley, T. H. (1947). *Evolution and ethics* (F. Yan, Trans.). The Commercial Press.
- Huxley, T. H. (1971). *Evolution and ethics* (Anonymous, Trans.). Science Press.
- Shelly, P. (1820). Ode to the west wind. In P. Shelly (ed.), *Prometheus unbound, a lyrical drama in four acts*. C. And Ollier Vere Street Bond Street: 188-192.
- Shelly, P. (1990). *Selected lyric poems of Shelley* (L. Cha, Trans.).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 Shelly, Percy. (1996). Ode to the west wind (Z. Bian, Trans.). In *Selected English poems*. The Commercial Press: 149-155.
- Shelly, P. (2010). *Ode to the west wind* (F. Jiang, Trans.). China Machine Press Co., LTD.
- Tang, X. (2016). *El Pabellón de Las Peonías: o Historia del alma que regresó* (A. Relique Eleta, Trans. and ed.). Editorial Trotta.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guochangyu0520@163.com

ruichen.zhou@hotmail.com

About the authors

Changyu Guo (first author) received his PhD from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postdoctoral researcher at Shandong University. His interests include Eco-Translatology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Chu Ci in South Korea.

Ruichen Zhou (co-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is a PhD candidate at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and an Expert Member of the 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Spanish impersonal structures and the Spanish translation of Chinese literature.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고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히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고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임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와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20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23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bylaws is the regulation of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and their research ethics, whose objectives are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to prevent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and to implement the tasks of identifying, determining and enforcing compliance issues in accordance to Article 14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bylaws shall apply to all wh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the Institute's research activities.

Article 3 (Definitions)

1.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hereinafter “misconduct”) refers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the like in regards to the proposal and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s code of ethics classifies acts that violate research ethics but do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s inappropriate acts in academic research and distinguishes such acts from the classification of misconduct. However, the Committee shall classify all acts of dishonesty as misconduct, setting out the following definitions.

-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data or research findings that do not exist.
-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and the like or arbitrarily changing or deleting data to distort the research contents or findings.

-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copying others’ papers, patents, ideas and other intellectual creation or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without proper consent or citation.
 - ④ “Unfair authorship” refers to the act of either not listing an individual wh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for no justifiable reason, or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the work for reason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or deference.
 - ⑤ The act of proposing to or pressuring another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shall also be considered misconduct.
 - ⑥ Misconduct also refers to any and all acts of serious deviation from the generally accepted extents of the academic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⑦ Misconduct also refers to the act of urging, pressuring or threatening someone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2.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papers has a financial stake or is involved in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ertain paper.
 3.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first notifies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 of the fact that an act of misconduct has come to his or her knowledge or who provides evidence of someone's misconduct.
 4.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suspicions of misconduct that had either been reported or come to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s knowledge, or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have come under investigation because their potential involvement in an act of misconduct was un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investigation. The term does not refer to th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5.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an official investigation needs to be launched on particular allegations of misconduct.
 6.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are true or not.
 7. “Decision” refers to the procedure of conclu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notifying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Article 4 (IRB approval) In the case where research i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and therefore, an approval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is required, the contributor shall obtain approval for research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nd faithfully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an approved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 editor may request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or IRB approval,

if necessary.

Article 5 (Conflict of interest) If the contributor has any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ertain financial benefits, with regard to the topic of a paper, they shall specify this on the title page and notify the editorial board of such matters in a written statement.

Article 6 (Participa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f the co-author(s) of a research paper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minor (under the age of 19), or a family member (e.g., any of relatives within the fourth-degree relationship, such as spouse or offspring),” the principal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disclo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author(s) and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has joined the research as a co-author. Any violation of this rule by the contributor shall be considered misconduct and be subjected to deliberation. In addition, if the explanation for this reason is not stated clear or reasonable, the editorial board may refuse to accept the paper in question. Additionally, when misconduct aroused from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co-author is confirmed, such misconduct shall be informed to affiliated institutions (e.g., college entrance-related institutions or research-related institutes) wher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research. Disclosure of misconduct is based on prior consent obtaine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specified in “Disclosure Form of Research Participation Pla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Pre-release Form of Co-authoring a Publication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provided by the Institute.

Article 7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e Committee shall conduct research ethics edu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uch as an academic conference, email, or an online forum.

Article 8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cademic integrity policies
2. Matters relating to the decision to launch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investigation findings
3.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Matters relating to approval of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5.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6. Matters relating to processing the results of academic integrity validation and the follow-up measures
- 7. Other matters a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Section 2.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Organization, etc.)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editorial board from among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ard and researchers and who are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Article 10 (Members and chairperson)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can also serve as the chairperson and appoint more than three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appoint more than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Institute. However, interested parties to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cannot be included. The terms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rticle 11 (Exclusion, recusal, and eva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1.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applicable, the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member or a chair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the year.
 - ① Anyone who is in a relative relationship defined by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② Anyone who has been in a teacher-pupil relationship or co-authored research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③ Anyone who might comprom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informant of the list of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before the mai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nd accept the informant's petition for recusal of a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f their petition is fil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excus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ed if the informant is unable to be contacted unde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informant. In this case, such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findings report.

3. If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as a conflicting interest in the research under investigation, they shall request for evasion voluntarily.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In cases when necessary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investigation or validation, the Committee can appoint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Article 13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Committe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 meetings.
2.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one-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a resolut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two-thirds of those attending.
3. When the agenda under review is acknowledged by the chairperson to be a minor matter, it can be reviewed in writing.
4. When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to be needed, a related party can be summoned for opinion.

Section 3. Validation of Academic Integrity

Article 14 (Receipt of report) Reports of misconduct shall only be received when using one's real name and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Article 15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Committee shall for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members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2.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but th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3.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30 days of launching an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decision to whether launch a main investig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 ④ Relevant evidence material
- ⑤ Confirmation of wheth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icle 16 (Main investigation)

1. Should the Committee decide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a ma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it shall form a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approving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2.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at least four professional expert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at least two outside members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3.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90 days of launching its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except in cases of anonymous reports)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role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the allegations are true
 - ④ Evidence material and list of witnesses
 - ⑤ Objections or arguments either by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such objections or arguments
 - ⑥ List of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Should the need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ise, the investigation period can be exten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5. Specific guidelines needed for individual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mmittee approval.

6. Records related to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 stored for five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rticle 17 (Measures following investigation findings)

1.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2.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does not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take measur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3. The Committee can recommen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a member of the Institute who, as an informant, had made a report against the truth, disregarding facts that went against his or her statement or testimony, whether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The specific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s mentioned in clauses 1 and 3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n author who is found to be violating research ethics shall not submit their papers to this journal for five years an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as a reviewe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 informant of 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nvestigation findings in writing.

Article 19 (Re-investigation) Should eithe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r the informant appeal the Committee's decision, he or she can request a re-investigation by presenting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Committee 30 days within having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Chapter 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ticle 20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Both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be guaranteed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statement, objection and argument and be informed of the related process in advance.

Article 21 (Attendance and request for evidence)

1. According to what is needed in the investigation, the informant,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witnesses and the like may be requested to attend a meeting to give a testimony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accede to such a request.
2. During investigation,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data, substantial measures could be taken such as restricting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from entering the research lab or seizing and keeping relevant research data.

Article 22 (Confidentiality)

1. The Committe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expos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ensu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s protected until the investigation findings are concluded.
2.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reports, investigat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as well as actions proposed are to be confidential. However, when a considerable ne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rises, such as a request from a government entity, the matter could be disclosed after a Committee resolution.
3. All committee members and persons wh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committee member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voting and executing tasks and the duty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remain in effect even after the individual is no longer in the posi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the informant) The Committee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acts of retaliation against the informant and when such an act of retaliation occurs, shall inform the chairperson of such fact and recommend the chairpers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심사 규정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

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게재 가: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9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60점 이상-70점 미만, 게재 불가: 60점 미만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시한까지 재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단, 투고자 전체의 심사 결과와 게재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행한다.

제5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제6조(복리뷰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복리뷰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제3장 발행 규정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역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논문집명, 발행년도 및 발행권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4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Adopted on March 24, 2014

Section 1.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rticle 1 (Name and composition)

1.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the Editorial Board (hereinafter “Board”) is organized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journals and books; to chart the course of the academic journal that is periodically publish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in addition to submitting and reviewing papers for the journal and; to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shing of selected articles. The Board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both from within and out of the university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among the members.
2.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In order t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Board, a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to take and keep minutes of the Board.

Article 2 (Function)

1.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for article submission and review.
2. The chairperson shall request the selection of reviewers for papers submitted. The Board shall refer to the review results and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publish the paper. The Board shall meet periodically but members can submit a written letter to count as attendance. Resolution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from over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Section 2. Bylaws for Publication Review

Article 3 (Submission of paper)

1. Submission of papers is possible until the last day that was announc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upon arrival of the submitted paper, confirm the receipt of the paper and send confirmation to the submitter.
2. Papers that do not adhere to rules regarding submission or composition shall not be accepted.
3. Pledge of Compliance for Research Ethics (obtained through the online system if the paper is submitted online), Consent to the Use of Copyrighted Content, and the dissertation plagiarism checker report shall be submitted upon paper submission. A similarity of 15 percent or below is acceptable.
4.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research as a co-author, such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by indicating in a prescribed form.

Article 4 (Procedures)

1. The reviewers are selected primarily from Board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with outstanding academic records in the relevant field of stud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for which pap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ool of reviewers.
2. Mutual evasion in kinship as reviewers
Once the paper is submitted, the contributor may suggest a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with a reasonable excuse. If any of the reviewers selected by the Board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presented by the contributor, the Board shall exclude them in the selection of reviewers. In the case where none of the reviewers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those who are selected by the Board are appointed as reviewers.
3. Each paper submitted shall be given to at least two undisclosed reviewers to be evaluated. Only when two or more reviewers decide to accept the paper, either unconditionally or upon condition of revision, shall the paper be published based upon the final decision by the Board. The rating scale is as follows:
Publish: 90 points or higher; Publish after revision (minor revision): 70 to less than 90 points; Re-review after revision (major revision): 60 to less than 70 points; Reject publication: less than 60 points

4. The paper rated as “publish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after revising the paper by taking into account reviewers’ comments along with a revision response letter. The paper rated as “re-review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to the Editorial Board with a revised manuscript and written responses to reviewers’ comments by a deadline set by the Editorial Board, and the contributor shall put forth a request for re-review. If the result of the re-review is “re-review after revision” again, the paper will be treated as unpublishable. It should be noted that re-review may not be offe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of all contributors and the submission to publication ratio. In this case, the contributor may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taking account of all comments by the reviewers. The paper rated as “reject publication” may be re-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revision.
5.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the papers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filling out an evaluation form included in the request form for review. He or she shall describe in detail the grounds for his or her evaluation.
6.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uthors immediately by the Institute under its name.
7. In the case where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evaluation results, the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eal” and public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Board.
8. Abstracts in English shall be published only when the editors appointed by the Institute have reviewed them.

Article 5 (Criteria for evaluation)

1. Submitted papers shall be evaluated in a fair and strict manner with the following criteria.
 - ① Originality: The contents and subject of the paper must be new and original, not having been published elsewhere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 ② Logic: The composition and flow of the paper must be logical and clear.
 - ③ Appropriacy: The paper must contain creative and new critique, analysis and proposal regarding the field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e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meth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bmission rules.
 - ④ Academic contribution: The paper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guiding and

developing the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n abstract in English submitted to the journal is largely evaluated based on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tent quality, and format quality.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on are as follows:

- ①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formity to grammatical rules, idiomatic English usage, adoption of appropriate English academic terms, and coherence and cohesion of the English text
- ② Content quality: Appropriateness of the paper title in English, whether the abstract describes the gist of the paper in a compressed manner without omission, and whether research findings are precisely stated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research
- ③ Format quality: Conformity to a specific format specified by the journal including English font, text size, and spacing, the number of keywords and format conformity, and conformity to a word limit for the abstract in English

Article 6 (Book Review and PhD Thesis Abstract)

- 1.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I research results and encouraging research efforts by young researchers, book reviews and PhD thesis abstract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official review process.

Section 3. Publication Rules

Article 7 (Name) These provisions are the publication rules for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rticle 8 (Purpose) These provisions determin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nd regulate related tasks.

Article 9 (Publication date) 「T&I Review」 is published once annually on 30 Jun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need.

Article 10 (Publisher)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I Review」 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Article 11 (Copyrights) Submitted papers shall not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published or not. Copyrights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shared by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Copyrights includ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right of transmission. Therefore, should anyone intend to republish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he or she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in advance.

Article 12 (Format) The format of the journal is as follows.

1. On the front cover of the journal, the title should be stated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issue number, publishing entity and its logo, the date and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and the ISSN should also be marked.
2. The journal must contain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words, academic papers, guidelines for papers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eer Review, submission rules, academic research ethic rules) and the list of editors.
3. At the end of each published paper, the date of contribution,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mended version after no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ate of acceptance should be stated.

Section 4 Other Provis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1.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any issues that occurred while writing the paper lies with the author. The evaluation is to be done anonymously so any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uthor should not be revealed.
2.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reviewer needs to put forth a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being reviewed along with the evidence for such judgment, as well as point out any errors or issues and suggest points of improvements. When needed, the reviewer can consult other experts for advice. The Board and the reviewer acknowledges the author's copyrights on the paper and cannot use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in advance. Also, when evaluating a paper, the reviewer shall not make any personal attacks on the author or use insulting expressions.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Addendum (Revised on March 20, 2017)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0, 2017.

Addendum (Revised on June 20, 2019)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0, 2019.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Addendum (Revised on October 25, 2022)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5, 2022.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 기고문은 논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논문길이는 A4 용지 15 매 내외로 하되 25 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영문초록은 약 150 단어 내외로 영어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또는 논문 작성 언어)로 각각 5 개 표기한다.
5. 글자모양: 한글은 한컴바탕, 단 영문 및 불문텍스트는 Times New Roman, 중국어텍스트는 SimSun, 일본어텍스트는 MS Mincho로 한다.
6. 문자모양: 본문과 초록은 양쪽 맞춤으로, 논문 제목과 최상위 단락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며, 초록 상단 저자명과 소속은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7. 줄 간격 및 여백: 줄 간격은 ‘T&I Review 논문작성서식’에 따라 설정한다. 마침표나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운다. 용지 여백은 폭 153, 길이 225, 위 20, 아래 15, 왼쪽 18, 오른쪽 18, 머리말 0, 꼬리말 13으로 설정한다.
8.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 시작은 10pt 들여쓰기 한다.
9. 논문은 서론, 본문, 결론 등으로 단락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단락으로 나눈다. 상하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논문 제목 = 14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 아래 두 줄 띄운다.
최상위 제목 = 12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위 단락과 두 줄 띄우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예, 1., 2.)
두 번째 제목 = 11.5pt bold 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아래 위 각 한 줄씩 띄운다. (예, 1.1., 1.2.)
세 번째 제목 = 10.5pt bold 체로 한다. 왼쪽정렬하고 위 단락과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기 없이 본문을 시작한다. (예, 1.1.1., 1.1.2.)
본문 = 10pt
10. 초록 = 영문으로 작성하며, Times New Roman 10pt 이탤릭체로 줄간격 150 양쪽 맞춤 정렬하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11.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주고, 영문으로 된 인용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백을 둔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글씨크기는 9pt 로 한다.

12. 표와 그림은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제목을 단다. 본문에서 반드시 표와 그림을 지칭해야 한다. 표는 표 1.의 형태로 표 위에 위치시키고, 그림은 그림 1.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위치시키며 본문 내에 관련 단락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표와 그림 아래 한 줄 띄운다.
13. 각주는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8pt, 줄간격 130, 내어쓰기 11pt 로 한다.
14. 국문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본문 중에 인용되는 경우: 처음 등장 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두 번째 등장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예 1) 쥘(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이다. 이와 함께 쥘(1994)은 동시통역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를 언급하였다.
 - 예 2) 2019 년에 발표된 왕상링(王湘玲)과 양옌샤(杨艳霞)의 중국의 기계번역 연구에 따르면.....임을 알 수 있다.....선행연구는 왕상링과 양옌샤가 2019 년에 발표한 2 편의 논문으로.....
 - 예 3) 와타나베(渡辺 2018)는.....라고 주장하였다. 와타나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2) 직접 인용 아닌 경우(괄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원어로 표기하고 3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 예 1) 자동통역은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Jia et al. 2019; Saina 2021).
 - 예 2) 이미 다수의 번역학 및 기계번역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에 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지로서.....
15.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되 미출판물과 개인서신 등은 제외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논문의 경우 국내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논문명은 홑낫표, 학술지명과 도서명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논문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서지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한다. 영어 참고문헌은 영문 원고 참고문헌 작성방식을 따른다.
16.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 Review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초판 발행 및 전자출판을 본 학술지에 허가한다.
17. 이전에 출판된 원고나 다른 학술지 심사 중인 원고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출판물의 수정본일 경우 세부사항을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18. 모든 투고는 상호심사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자의 코멘트와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송달하여 마감기한까지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19.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직위, 영문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한글 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메일 연락처와 약력 및 연구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재한다.
21.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교신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이메일(erits@ewha.ac.kr)로 한다.
22. 투고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3.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 편당 대학(원)생은 10 만원, 강사는 15 만원, 그 외의 투고자(독립연구자 등 일반인 포함)는 2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공동논문의 경우에는 제 1 저자의 신분에 기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 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4. 논문집(pdf)에 인쇄된 상태로 30 면 이상인 경우부터 1 면당 1 만원의 추가 게재료가 청구된다. 40 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작성 양식

<본문 내 인용>

1. 서술식 인용

① 단독저자의 경우:

김혜영(2012)은.....

이은용(2014)은.....

구체적 내용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를 표기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을 인용하는 경우:

첫 인용 시: 질(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

동일문헌에 대한 두 번째 인용부터: 질(1994)은.....

② 저자 2명의 경우: 한국 저자명은 ‘와/과’로, 영어 저자명은 ‘and’로 연결한다. 중국, 일본 저자명은 쉼표로 연결한다.

이범수와 김민영(2006: 23)에 따르면

그랜과 도즈(Gran and Dodds 1989)는

니완빈과 류즈(倪传斌, 刘治 2005)는

③ 저자 3명 이상: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외’ 혹은 ‘et al.’로 표시한다.

김문형 외(2013)에 따르면

브라운 외(Braun et al. 2013)는

자오원룽 외(赵云龙 외 2017)는

④ 문구의 인용: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20pt 여백준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법과 언어가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커버(Cover 1986: 1601)는 이렇게 묘사했다.

Legal interpretation takes place in a field of pain and death ... Legal interpretive acts signal and occasion the imposition of violence upon others. A judge articulates her understanding of a text, and as a result, somebody loses his freedom, his property, his children, even his life.

2. 소괄호 인용

① 소괄호 인용의 경우, 저자명 뒤에 쉼표를 쓰지 않는다. 외국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하고 3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정혜승 2018: 139)

(Schäffner 2004: 105)

(박정희와 김민 2007: 97)

(Denton and Hahn 1986)

(王彬, 欧阳铨 2002)

(김문형 외 2013)

(Curran et al. 2007)

(赵云龙 외 2017)

② 2편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한국어 논문에서 한국과 외국 저자명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 한국 저자명부터 나열한다.

(이창수 2000; 김순미 2002; 김순영 2005)

(Denton and Hahn 1986; Dorsey 2008)

(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

(송연석 2021: 70; Ahrens et al. 2021)

③ 기관 저자: 괄호 안에는 약칭을 쓴다. 동일 연도 출판물은 알파벳 소문자로 구분한다.

(CCHI 2020)

(CIOL n.d.(a))

(CIOL n.d.(b))

④ 번역서: 원저자명만 표기하고 번역서 역자 표기는 생략한다.

(Reiss and Vermeer 1984: 113)

⑤ 재인용: 가급적 원래 출처를 기재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재인용 표기한다.

(신지선 2017: 61에서 재인용)
(Denton and Hahn 1986에서 재인용)

⑥ 저자미상: 제목을 표기한다.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1999)

⑦ 동영상, 영화 등: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감독명을 표기한다.
(JTBC 2017)
(Langton et al. 2006)

<참고문헌 목록>

1. 학술지 논문:

한국 논문의 경우, 제목은 홑낫표(「」)를 사용하고 학술지명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이탤릭
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① 단독저자:

이지은. (2015).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T&I Review』 5: 93-120.

곽성희. (2001).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77-97.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邱懋如. (2001). 「可译性及零翻译」. 『中国翻译』 22(1): 24-27.

藤井章雄. (1972). 「ニュース翻訳の一考察」. 『時事英語学研究』 第11号, 頁99-112.
時事英学研究会.

② 공동저자: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한국 저자명은 가운뎃점(·)으로 연결하고 중국,
일본 저자명은 쉼표로 연결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저자명은 모두 ‘성(last name)’ + 이
름(이니셜) 순으로 작성하고 가장 마지막의 저자명 앞에 and를 쓴다.

김혜림·장애리·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Mitchell, J., Hayes, D. and Mills, M. (2009). Crossing school and university boundaries to reshape professional learning and research practice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36(3): 491-509.

王湘玲, 杨艳霞. (2019a). 「国内60年机器翻译研究探索——基于外语类核心期刊的分析」.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33(4): 90-96.

遠山仁美, 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2. 저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저서명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영어, 불어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Gile, D. (2010).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2nd ed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nette, G. (1982).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Seuil.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北京: 外文出版社.

原子郎. (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筑摩書房.

3. 편저: 한국어로 된 편저의 경우, 편자(엮은이)명 뒤에 ‘(편저)’를 적는다. 영어 편저의 경우, 편저명은 이탤릭체로 처리하고 모든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단일저자 편저는 ‘ed.’를, 복수저자 편저는 ‘eds.’를 표기한다. 복수저자 편저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첫 편자명은 ‘성(last name) + 이름(이니셜)’ 순으로 작성하고 두 번째 편자명부터는 ‘이름(이니셜) + 성’ 순으로 한다.

김홍규. (편저). (2002).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Albin, L. and Bae, S. H. (근간). 「Our own Kim Hyesoon: Collaborative translation of A Drink of Red Mirror」.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묻다(미확정 도서명)』(조의연과 이상빈 편저). 파주: 김영사.
-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 (1994). Methodological aspect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search. In Lambert, S. and B.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56.

4. 학위논문:

- 최효은. (2016). 한영 특허 번역 품질 평가 연구: KPA와 MT의 특징과 기능에 따른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Saldanha, G. (2005). *Style of Translation: An Exploration of Stylistic Patterns in the Translations of Margaret Jull Costa and Peter Bush*. PhD dissertation, Durbish City University.
- 朴恩淑. (2012).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5.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 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 6월). KOSAC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 응웬티히엔. (2009). 한국 ‘구인회’와 베트남 ‘자력문단’의 시인 비교. 한국현대문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110-127.
- Aranberri, N., Labaka, G., Diaz de Ilarraza, A. and Sarasola, K. (2014). Comparison of post-editing productivity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lay users. In O’Brien, S., M. Simard, and L. Specia (eds.),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20-33.

6. 번역서: 원저가 한국 문헌인 경우, 참고문헌 정보를 한국 문헌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원저가 외국 문헌인 경우, 참고문헌 정보를 외국 문헌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외국 역자명은 모두 ‘이름(이니셜) + 성’ 순으로 작성한다.

박지원. (2019). 『호질(La remontrance du tigre)』 (S. Bois, and E. Cho, Trans.). Decrescenzo éditeur.

Verschueren, Jef. (2003). 『화용론 이해』 (김영순, 지인영, 이정화 역). 서울: 동인.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Baigorri-Jalón, J. (2014). *From Paris to Nuremberg: The Birth of Conference Interpreting* (H. Mikkelsen, and B. S. Olsen, Trans.). Amsterdam/Philadephia: John Benjamins.

7.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EUATC. (2017). 2017 Language Industry Survey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the European Language Industry. Retrieved from http://www.digiling.eu/wp-content/uploads/2017/06/2017-Language-Industry-Survey-Report_6April2017.pdf on date month yyyy.

8.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중서림 편집국. (2006). 『옛센스 국어사전』(제6판). 서울: 민중서림.

Law, J. (2022). *A dictionary of la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Merriam-Webster. (n.d.).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 on date month yyyy.

9.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는 모두 출처와 검색 날짜를 표기한다.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기관명을 적는다.

동아일보. (2020). 코로나가 바꾼 영화 산업 지형도... 넷플릭스 VS OTT 경쟁 본격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

21.9.25.검색).

씨네21. (200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616(2021.9.28.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2021.9.2.검색).

Deseret News. (2016). A history of ‘Pride and Prejudice’ on TV and film.
<https://www.deseret.com/2016/2/5/20581914/a-history-of-pride-and-prejudice-on-tv-and-film#laurence-olivier-as-mr-darcy-and-greer-garson-as-elizabeth-bennet-in-the-1940-version-of-pride-and-prejudice>(2021.9.28.검색).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10. 영화, DVD, 방송, 유튜브:

오만과 편견. 넷플릭스. 2020년 9월 출시.

Langton, S., Austen, J., Firth, C. and Ehle, J. (Directors). (2006).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DVD]. 서울: KBS Media.

JTBC. (2017). JTBC 잡스. 웹툰 작가 편. 2017년 6월 1일 방영분. <https://tv.jtbc.joins.com/replay/pr10010459/pm10041803/ep10034107/view>.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_GSTI EWHA. (2022.12.8.). <https://www.youtube.com/watch?v=0wtpyudynZk>.

11. 신문, 잡지: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Guidelines for Contributors

1. Manuscript format: Microsoft Word
2. Languages: English, Korean, Chinese, French, and Japanese
3. Length: Approximately 7,000 words (15 pages, not exceeding 25 pages). Abstracts should be approx. 150 words in English. Five keywords in English should be provided.
4. Font: English Times New Roman 12pt, Korean 한컴바탕 10pt, Chinese SimSun 10 pt, Japanese MS Mincho 10 pt
5. Justification: Title, section headings, including references and appendix, should be center-aligned.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which should be placed between the title and the abstract, must be right-aligned. Abstract, keywords, and the text must be aligned at both the left and right margins (full justification). All new paragraphs must be indented 10 pt.
6. Spacing: Single line spacing throughout. Use a single space following a period or colon.
7. Title: 14pt bold, one line space below.
8. Articles should be divided into sections and subsections as necessary. Please mark the hierarchy of subheadings as follows:
Heading A = bold, center-aligned, two lines space above and below.
Heading B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Heading C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text on new line, no line space below.
Abstract = Italics, first paragraph must be indented 10pt,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9. Quotations over 40 words should be indented (left and right 1cm) and italicized without quotation marks. Short quotations in the text itself should be marked with quotation marks.
10. Spell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 (either American English or British English). Proofreading is required before submission.
11. The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the title,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position, abstract, and text.
12. The la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a brief biographical sketch of the author or authors. Email addresses for each author should also be provided.
13.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provided with brief caption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referred to in the main text. All illustrations,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text rather than at the end of it. Titles for tables should precede the tables and the titles for figures should be placed below the figures. One line spacing is required between the table or figure and the following paragraph.

14. Footnot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should be kept to a minimum.
15. Referencing style: APA (see examples in “Referencing style” section below). References should list all references cited in the article. All references mus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except for unpublished items such as correspondence.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and chronologically.
16. The author should obtain any necessary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and/or ethical clearance necessary for the publication of their papers. The author(s) retains copyright of articles but grants T&I Review right of first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
17. The manuscript should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nor be under review by another journal. However, a revised version of a previous publication will be considered if accompanied with proper acknowledgment.
18. All contributions will be subjected to a double blind peer-review process. Reviewers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anuscript is ready for publication with/without revisions. Comment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s, if needed, will be sent to the author and the author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a final draft of the manuscript by the due date.
19. Manuscripts and all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electronically to:
erits@ewha.ac.kr

Referencing Style

[In-text references]

Work by a single author

Gile's (1995) effort model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Goffman (1981: 8) states that...

According to Kiraly (1995: 7), ...

Work by two authors

Stern and Liu (2019) found that...

According to Gran and Dodds (1989)

Work by three or more authors

Gonzalez et al. (1991: 100) demonstrate that...

Provide page references where necessary and provide citation in a chronological order.

(Stern 2012; Lee 2019; Pym 2023)

[End-text referencing]

English references followed by non-English references.

Hanging indent (1cm): The first line of each reference is fully left justified while subsequent lines are indented to the right. The width of the hanging indent should be 1cm.

Journal articles: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Mitchell, J., Hayes, D. and Mills, M. (2009). Crossing school and university boundaries to reshape professional learning and research practice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36(3): 491-509.

邱懋如. (2001). 可译性及零翻译. *中国翻译* 22(1): 24-27.

遠山仁美, 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Book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nette, G. (1982).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Seuil.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 北京: 外文出版社.

Edited volume: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A chapter in an edited volume:

LeBlanc, M. (2017). 'I can't get no satisfaction!' Should we blame translation technologies or shifting business practices?. In Kenny, D. (ed.), *Human Issues in Translation Technol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 45-62.

Svoboda, T. and Sosoni, V. (2023).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in language and translation technologies. In Svoboda, T., L. Biel, and V. Sosoni (eds.),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London: Routledge, 73-91.

The second and third editors' first name initials precede last names.

Translated books: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Baigorri-Jalón, J. (2014). *From Paris to Nuremberg: The Birth of Conference Interpreting* (H. Mikkelsen, and B. S. Olsen, Tra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Unpublished dissertations:

Saldanha, G. (2005). *Style of Translation: An Exploration of Stylistic Patterns in the Translations of Margaret Jull Costa and Peter Bush*. PhD dissertation, Dublish City University.

朴恩淑. (2012).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论文.

Conference papers: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Conference proceedings:

Aranberri, N., Labaka, G., Diaz de Ilarraza, A. and Sarasola, K. (2014). Comparison of post-editing productivity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lay users. In O'Brien, S., M. Simard, and L. Specia (eds.),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20-33.

Electronic sources: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CCHI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 (2020). Requirements for Continuing Education (online) Retrieved from <http://cchicertification.org/renew-certification/requirements/continuing-education/> on 4 February 2023.

Articles in newspapers & magazines: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Non-English references in English manuscripts should be presented in English.

Lactorin-Inoue, K. (1991). Kokuzaikajidai no tsuyakukyouiku - totaaru komiyunikeeshion no susum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 Towards total communication). *Kiyō* 25: 23-61.

Lee, W. (2000). *Discourse Analysis*. Seoul: Hankukmunhwasa.

Lee, H. (1999). Efficient methods for vocabulary teaching. In Lee, H. (eds.),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oul: Hankukmunhwasa, 185-204.

Won, J. (2010). Directionality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2(1): 131-156.

Yang, C. (2007). *Interpret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J. Son, Y. Kim, and H. Ahn, Trans.). Seoul: Hankukmunhwasa.

T&I Review is a refereed journal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ERITS), which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effective T&I education and excellence in professional practice by sharing the results of systemic and innovative research.

Published on June 30, 2026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60

Tel: +82 2 3277 3704 or 3705 or 4087 Fax: +82 2 3277 4017

E-mail: erits@ewha.ac.kr

Website: <https://erits.ewha.ac.kr>

Submission

erits@ewha.ac.kr

tnirvw@kakao.com

<https://erits.jams.or.kr>

Subject: Contribution to T&I Review

Photocopying and reprint permission

Photocopies of extracts from this journal may be made without charg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provided that full acknowledgment is made of the source. Reprints in any form of publications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T&I Review는 통번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올바른 통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Tel: 02-3277-3704, 3705, 4087 Fax: 02-3277-4017

이메일: erits@ewha.ac.kr

홈페이지: <https://erits.ewha.ac.kr>

투고:

<https://erits.jams.or.kr>에 회원가입 후 투고하거나 erits@ewha.ac.kr로 이메일을 통해 투고한다. 이메일 제목은 [T&I Review 투고]라고 명기한다.

저작권 및 재출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학술지 일부를 복사할 경우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무료로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재출판은 발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SSN 2233-9221

Copyright© 2026 by ERITS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Designed by **Dahae Publisher** (02-2266-9247)